

신앙과 학문

제22권 제3호 (통권 72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22권 제3호 (통권 72호), 2017년 9월호.

이 학술지는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

발행일/2017년 9월 30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충신대학교)

편집, 제작/차나리, 신효영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일반 논문

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 김원평 / 도명술 / 이명진 / 이세일 / 임완기 / 정병갑 / 최현림 · 7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 김성애 · 31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 김성은 · 57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 | 방은영 · 103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 양혜원 · 14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원준 / 이희진 · 191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 조은주 / 최은정 / 조현미 / 이민경 · 229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한미영 / 손수경 · 265

일반 논문

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 길원평 / 도명술 / 이명진 / 이세일 / 임완기 / 정병갑 / 최현림 · 7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 김성애 · 31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 김성은 · 57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 | 방은영 · 103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 양혜원 · 14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원준 / 이희진 · 191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 조은주 / 최은정 / 조현미 / 이민경 · 229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한미영 / 손수경 · 265

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Refutation of the Recent Argument supporting the Homosexuality Inherence

길원평 (Won-Pyong Gill)*
도명술 (Myoung-Sool Do)**
이명진 (Myoung-Jin Lee)***
이세일 (Se-II Lee)****
임완기 (Wan-Ki Lim)*****
정병갑 (Byung-Kap Jeong)*****
최현림 (Hyun-Rim Choi)*****

Abstract

Articles and logic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are continuously presented. This article summarized the pre-existing result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such as the gene, the brain, the prenatal hormone, and the brother effect, and presented the refuting results and logics. Then, this article reviewed the recent results and logic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such as the gene, the epigenetic factors, the third gender, and the other claims, and presented the counter arguments. Then, this article presented the results and logics to refute the homosexuality inherence, a claim that homosexuality was not developed by choice, and a claim that both homosexuality and heterosexuality were the acquired taste. In conclusion,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about the claim that the

*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교수(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wpgill@pusan.ac.kr

**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msdo@handong.edu

*** 의료윤리연구회 전임회장(Medical Ethics Academy),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3, mnose1@hanmail.net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Kosin University),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seil2388@hanmail.net

***** 호서대학교 체육과학부 교수(Hoseo University),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wkim0513@hanmail.net

*****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Kosin University),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bkjeong@kosin.ac.kr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Kyung Hee University),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fmdr@naver.com

homosexuality is inevitably developed by the natural effects.

Key Words : homosexuality, inherence, gene, epigenetic factors, third gender

이 논문은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에서 제공한 연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1. 서론

최근에도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것이며 동성애자들은 형성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사회적인 인정과 함께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성애가 후천적이며 자신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본 논문은 선천성에 의한 동성애 형성 가능성만을 다루겠으며, 후천적인 요소들에 의한 동성애 형성 가능성은 다루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몇 개의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그 주장에 휩쓸렸지만, 그 후에 그 논문들의 결과들이 번복되면서 이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계 풍토가 되었다. 이제는 대다수 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몇 개의 유전자에 의해 동성애가 유발된다고 보지 않는다(Mayer and McHugh, 2016: 8; Whitehead and Whitehead, 2016: 267-268; Sanders et al., 2015: 1386; Bailey et al., 2016: 46, 87). 그러한 학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논문들을 널리 알리는 반면에 그 논문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기에, 전문가들과 달리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 5월의 미국 갤럽 조사에서 51%의 미국인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말했고, 30%만 환경, 양육 등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https://www.lifesitenews.com/~>, 2017). 이러한 미국인의 인식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근원적인 이유라고 본다.

최근에 한국 언론들도 서구 언론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각시키는 보도에 편향되어 있기에 한국인들 사이에도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 편향되어 있기에 한국인들 사이에도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

이다. 또한 동성애 관련 글을 읽으면 상당수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타고 나는 것으로 오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논문들과 언론에서 다루는 논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고찰하고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동성애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과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인 취향이라는 주장도 반박하고,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의 잦은 번복 이유도 살펴보았다.

II.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의 요약과 반론

1. 동성애 유발 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

1993년 7월에 해머 등은 40 가계(family)에 대해 유전적 연관(genetic linkage)을 조사하여,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군(Xq28)과 남성 동성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하였다(Hamer et al., 1993: 321). 그들은 논문의 머리글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은 99% 이상의 통계적 신뢰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관련된 두 편의 글이 실렸고, 해머의 결과로 동성애 유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근접해졌다고 기술했다(Szuromi, P., 1993: 273; Pool, R., 1993: 291). 1993년 12월에 리쉬 등은 해머 결과에 대해 대조군과의 비교가 결여되었다는 반론을 사이언스에 실었다(Risch et al., 1993: 2063). 흥미롭게도 1995년 사이언스에 ‘해머 논문의 공저자이며 연구팀 중 한 명이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실렸다(Marshall, 1995: 1841).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에 존재하는 네 개의 표지 유전자(genetic marker)들을 조사하였다(Rice et al., 1999: 665). 52쌍의 동성애자인 형제 사이와 33쌍의 일반 형제 사이의 유전자 공유(allele sharing) 결과를 비교한 후에, Xq28이 남성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하였다.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의심되는 동성애 유전자의 발견’이란 글이 실렸다(Wickelgren, I., 1999: 571).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무스

탄스키 등은 146가계에 속한 456명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genome)의 403개의 표지 유전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Xq28은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Mustanski et al., 2005: 277). 1993년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를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해머 자신이 1993년 결과를 반복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 논문에서는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라마고과란 등은 112명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의 약 6,000개의 단일염기변이(single-nucleotide polymorphism)을 조사하여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Ramagopalan et al., 2010: 131).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전유전체 연관성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방법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Drabant et al., 2012). 전유전체 연관성연구는 유전적 연관(genetic linkage) 연구와 달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최첨단 연구 기법이며, 또한 현재까지 수행한 것 중 최대 규모의 대상자들을 조사하였기에, 앞으로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2. 동성애자의 두뇌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

성적지향이 정신적 성향이기에 두뇌에 의해 정해지고,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일반인의 두뇌와 다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태아기의 8~24주에 호르몬 증가는 발생하는데, 그 시기의 호르몬 이상으로 두뇌 구조 형성에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1991년에 리베이가 41명 죽은 사람의 두뇌 전시상하부 중 INAH 크기를 조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의 INAH3는 여자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INAH3가 동성애와 관련성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하였다(LeVay, 1991: 1034).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동성애가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글이 실렸다(Barinaga, 1991: 956). 2001년에 바인 등이 INAH3은 남성 이성애자보다 남성 동성애자가 크기가 작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INAH3 내의 뉴런(neuron) 개수를 측정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Byne et al., 2001: 86). 바인 등은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작은 이유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보며, 리베이 결과를 반박하였다.

1992년에 알렌 등은 남성 동성애자의 앞연결부(anterior commissure)가 여성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크다는 발표를 했지만(Allen and Gorski, 1992: 7199), 2002년 라스코 등의 연구에서는 남녀 및 성적지향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발표하였다(Lasco et al., 2002: 95). 1997년에 비숍과 왈스텐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뇌량(corpus callosum)에 대한 49회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뇌량의 대상구조(splenium)에 대한 남녀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Bishop and Wahlsten, 1997: 581). 따라서 1990년대에 동성애자의 두뇌는 반대의 성(性)을 닮았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결국 그러한 논문들이 모두 번복되었다. 2006년에 바인은 호르몬에 의해 남성만의 특별한 두뇌 구조를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Byrne, 2006: 950).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두뇌 구조가 후천적인 학습 등에 의해 쉽게 변함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동성애자의 두뇌 구조가 일반인과 선천적으로 달라서 두뇌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3.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먼저 성호르몬의 효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면 전혀 차이가 없고(Meyer-Bahlburg, 1984: 375), 동성애자에게 강제로 성호르몬을 주입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Murphy, 1992: 501). 성호르몬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동성애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Kwan et al., 1983: 557).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좋은 방법은 많은 양의 태아기 호르몬 영향을 받은 사람의 동성애 비율을 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유산 위기 임신부에게 합성 여성호르몬인 디에틸stil베스테롤을 엄청나게 투여했는데, 그 임신부 딸의 성적 지향을 조사한 결과, 네 번 연구 중 두 개는 일반인보다 동성애 성향이 조금 높았지만(Ehrhardt et al., 1984: 457), 두 개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에 행한 연구에서도 차이가 없었다(Lish et al., 1992: 423). 태아기에 남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선천성부신과형성이란 질환을 가진 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동성애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다(Meyer-Bahlburg et al., 2008: 85). 태아기에 과도하게 호르몬이 분비된 사람과 일반인 사이의 성적 지향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로부터,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윌리엄 등이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조사하여 동성애와 태아기 호르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하였다(Williams et al., 2000: 455). 남성의 둘째손가락 길이가 넷째손가락 길이에 비하여 짧지만, 여성의 둘째손가락 길이가 넷째손가락 길이와 거의 같고(Manning et al., 1998: 3000), 손가락 길이의 비율에 태아기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Brown et al., 2001: 325). 윌리엄 등이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이성애자에 비하여 적은 값을 가져서 남성 쪽으로 가까웠다. 이것을 토대로 여성 동성애자가 여성 이성애자에 비해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추론했다. 그런데 미국 여성의 동성애자 비율이 1.8%이라고 놓으면, 손가락길이의 비가 위의 결과처럼 남성과 비슷해지면 여성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조금 증가하지만, 대다수 여성은 여전히 이성애자이다. 즉, 어떠한 손가락길이의 비율을 가져도 여성 이성애자의 수가 여성 동성애자에 비해 대략 50배 많다. 따라서 손가락길이의 비율이 태아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의 결과는 태아기 호르몬은 여성 동성애를 유발하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길원평·민성길, 2014: 15). 또한 윌리엄 논문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이 남성 이성애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태아기 호르몬이 남성 동성애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여성 동성애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요약을 하면,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4. 형 숫자가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의 하나로서 사용되며, 이를 ‘형 효과’라 부른다. 이러한 형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들도 있지만(Cantor et al., 2002: 63), 최근에 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2006년에 동성결혼을 등록한 약 이백만 명의 덴마크 국민을 조사한 결과, 형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Frisch and Hviid, 2006: 533), 2006년에 동성애 경향이 조금 있는 이성애자에게서도 남성은 형 효과가 있었고 여성은 ‘오빠 효과’가 있었다(McConaghy et al., 2006: 161). 또한 이 형 효과가 어린 남동생이 나약할 때 나타나는 형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Bem, 1996: 320).

형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 가설은 어머니가 태아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동성애 성향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Blanchard and Bogaert, 1996: 27). 즉, 첫 번째 남자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어머니 몸에 생겨진 남성에 대한 항체가 두 번째 남자 태아의 뇌를 공격하여 동성애 성향을 갖게 만든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어머니 몸에 생긴 항체가 남성-특이성 단백질에 반응한다면, 가장 남성적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정액의 질(quality)이 떨어지고 고환암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동성애자들에게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에 대한 항체가 가장 남성적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하지 않고, 두뇌에 있는 남성적인 부분만 공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태아의 뇌를 공격했다면 읽고 쓰는 것에 대한 학습 장애도 나타나야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는 오히려 말을 더 잘하며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Sanders and Wright, 1997: 463).

형 효과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여자 형제들만 있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등은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없고, 전체 동성애자의 17% 정도만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Cantor et al., 2002: 63). 따라서 형 효과가 옳다면 동성애 유발 원인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한 쪽은 면역반응에 의해 신경학적으로 손상을 입어 동성애자가 되었고 다른 쪽은 다른 원인에 의해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두 종류의 동성애자 사이에 행동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형 효과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머니의 면역반응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길원평 등, 2016: 110). 최근에 어머니의 면역반응 이론을 체계적으로 반박한 논문이 나왔다(Whitehead, 2007: 905).

Ⅲ.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 연구 결과들과 논리에 대한 고찰과 반론

1.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와 반론

2014년 2월에 남성 동성애자 409명을 조사하여 DNA 영역, 즉 8번 염색체 8q14와 X염색체의 Xq28에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미국과학

진흥총회에서 발표했으며, 2015년 5월에 학술지에 실렸다(Sanders et al., 2015). 이제 부터는 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8q14와 Xq28은 수많은 유전자로 구성된 염색체상의 영역이다.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려면 특정 유전자를 지정하고,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Xq28은 1999년과 2005년에, 8번 염색체는 2010년에 이미 동성애와 연관이 없다고 발표되었다. 이처럼 1999년, 2005년, 2010년에 연관이 없다고 밝혀진 부분들을 다시 주장하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 특정 형질을 가진 자가 공유하는 DNA 영역을 찾는 유전적 연관분석(genetic linkage study)을 사용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는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알 수 없으며,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는 DNA 영역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Whitehead and Whitehead, 2016: 167). 따라서 최근 학계는 특정 유전자와 특정 형질 간의 연관성을 찾는 전유전체 연관성 방법(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을 선호한다. 앞서 말한 대로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전유전체 연관성연구 방법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Drabant et al., 2012). 2016년에 주요 저자인 베일리가 쓴 논문에서도 위 논문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점은 격려할 만한 하지만, 형질, 즉 동성애에 영향을 주는 특정 유전자를 밝히는 것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Bailey et al., 2016: 77).

넷째, 과학자들의 비판 의견들이 있다(Servick, 2014: 902). 미국 유전학자인 닐 리쉬 교수는 “이번 논문은 Xq28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1999년 논문에서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최근 발표된 증거들도 Xq28에 대해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이번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하고, 사이언스에 관련 글을 적었다. 저자 샌더스는 단일 유전표지(isolated genetic marker)를 이용할 경우, 8번 염색체는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만 Xq28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다섯째, 2014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학술지에 실렸다. 샌더스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서 거절을 당했다는데, 이는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2004년부터 대상을 모집하여 실제 발표까지 9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흥미롭게도 샌더스 등은 논문의 마지막에 유전적인 기여는 결정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급하였다(Sanders et al., 2015: 1386). 즉, 동성애를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주장에 자신

들의 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2.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후생유전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반론

2015년 10월에 미국 인간유전학회에서 응운(Ngun) 연구팀은 유전자 40만 개의 후생유전학적 변화를 관찰한 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를 알려주는 5개 꼬리표(markers)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Ngun et al., 2015). 후생유전학적 변화란 DNA 메틸화와 같은 DNA의 구조변화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둘 중 최소한쪽이 동성애자인 남자 일란성 쌍둥이 47쌍의 타액을 채취해 DNA의 5개 꼬리표를 알고리즘(algorithm)에 대입한 결과, 이성애자 예측 확률은 50%, 동성애자 예측 확률은 83%이라고 2015년 10월 8일 네이처 뉴스에 실렸다. 하지만 위 발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수가 47쌍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단순 추측 이상이 될 수 없다. 둘째, 게놈의 140,000영역을 분석하여 6,000영역을 선택한 후에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때 샘플을 알고리즘 생성샘플과 적용샘플로 나누었다. 이러한 나눔은 샘플의 작은 숫자를 더 작게 만듦으로써,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셋째, 여러 모델 중에서 적용 샘플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선택하였다. 적용샘플과 무관하게 모델을 만든 후에, 적용 샘플에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객관적 과정을 위배함으로써,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넷째, DNA의 메틸화된 정도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후생유전학적 요인을 찾아냈다고 말할 수 없다. 메틸화 표지를 비롯한 후생유전학적 요인의 유전 가능성은 가설로만 존재한다. 다섯째, 후생유전학 표지는 조직 세포에 특이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침으로부터 얻은 샘플로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The Science Times, 2015). 여섯째, 이 결과가 학회에서 발표된 이후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지며, 응운 박사가 남성 동성애자인 점도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2015년 10월 8일자 네이처에 예비논문(preprint)도 없는 위의 결과를 언론에서 너무 크게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Becker, 2015: 479).

3. 제3의 성(性)이 있다는 주장과 반론

육체의 성은 수정란의 염색체와 유전자에 의해 성 기관, 정소, 난소 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육체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구별되는데, 매우 낮은 확률로 남녀가 아닌 간성(intersex)이 만들어진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는 성염색체 이상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성염색체는 여성은 XX, 남성은 XY인데, 일반적인 성염색체 이상으로 X 하나만 있는 터너증후군과 XXY, XXYY, XXXY 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다. 터너증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2차 성징이 결여되고 가슴이 발육되거나 임신을 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되지 않는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의 크기가 작고 생식능력이 결여된다.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 모두 사춘기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성들을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으며,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 기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환자들 중의 일부는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 이들 중 일부는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되어 있다(하재청 등, 2008: 234). 하지만 이 경우에 클라인펠터증후군 자체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며, 자신의 외모가 친구들과 다름을 깨닫고 느끼는 불안정한 성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남성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선천적인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고 후천적인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간성은 선천적인 성 기형의 일종이며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간성을 핑계로 동성애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4.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기타 논리에 대한 반론

최근에는 동성애자들 중에는 동성애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동성애를 끊을 수 있지만 타고난 사람은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신념에 속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반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위 주장은 반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를 끊으면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끊지 못하면 타고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 주장은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그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있다. 이 경우도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나타내는 과학적 증거는 없기에, 단순히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즉,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나중에 드러났는지,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분간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하는 것 같다.

IV.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

1.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

동성애가 유전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그 유전자를 가진 성인 1명당 1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결혼을 하고(Cameron et al., 2005: 915), 남성 동성애자의 13.5%, 여성 동성애자의 47.6%가 1명 이상의 아이를 갖는다(Wells et al., 2011: 155). 따라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한다.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행동양식은 한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명체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데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한다. 수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바뀌어야 행동양식이 바뀌므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계조사를 하면 동성애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동성애가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 유전자가 손상되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다운증후군과 같이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모두 합쳐도 인구

의 대략 1%이다(Cavalli-Sforza and Bodmer, 1971). 그런데 서구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합친 비율은 약 2~3%이기에, 돌연변이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크다(Whitehead and Whitehead, 2016: 24). 또한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다르다. 1994년 조사에서 14~16세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와 지난 일 년 동안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내면 동성애 파트너를 가질 확률이 낮고, 큰 도시에서 보내면 동성애 파트너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Laumann et al., 1994). 2006년에 200만 명의 덴마크 사람을 조사했을 때, 시골에서 태어난 자는 도시에서 태어난 자보다 적은 동성애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다(Frisch and Hviid, 2006: 533). 따라서 위의 결과는 동성애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2.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

동성애가 선천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기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1991년 베일리 등의 조사에서 남성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일란성 쌍둥이 52%, 이란성 쌍둥이 22%, 다른 형제 9.2%, 입양된 형제 11%이었다(Bailey et al., 1991: 1089).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유전자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와 형제들의 일치비율에 비해 훨씬 높기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가 유전임을 믿게 만들었다. 그런데 위 결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잡지와 신문을 통하여 대상을 모집하여서, 동성애자인 쌍둥이들이 많이 응모하여 동성애 일치비율을 증가시켰을 수 있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1년 베일리 결과는 일치하는 쌍둥이에게 가중치를 주어 일치 비율을 높였다(Jones and Yarhouse, 2000: 75).

최근에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소개하겠다. 2000년에 미국인 1,512명의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비이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녀를 통합하여 일란성 쌍둥이가 18.8%이었다(Kendler et al., 2000: 1843). 2000년에 호주인 3,782명의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11.1%, 여성 13.6%이었다(Bailey et al., 2000: 530; Jones and Yarhouse, 2000: 77). 2010년에 스웨덴인 7,652명의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9.9%, 여성 12.1%이었다(Langstrom et al., 2010: 75). 통계학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증가하므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10% 정도의 일치 비율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후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도 일치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음은, 동성애자가 되도록 미친 선천적인 영향은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V. 동성애 형성에 관한 기타 주장과 반론

1. 동성애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함의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을 수 없으며,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지향 중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첫째,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대 과학으로 판별할 수 없다.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향이 형성되었다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습관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될 수 있지만 선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무심코 선택하여 반복한 행동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성향도 외부 자극에 대한 무수한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린 나이에 형성된 동성애 성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어린 시절의 동성애 성향을 자신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성향이 강화되고, 동성애 성향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향은 약화된다. 즉, 동성애 성향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동성애 경향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진짜 동성애자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동성에 성향이 형성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2.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인 취향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으로 형성되므로, 동성애를 이성애와는 다르게 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취향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반론으로는,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는데, 육체는 전적으로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만, 성행동도 기본적으로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말하는 성(human sexuality) 또는 성심리는 생물학적 요인(뇌, 성호르몬)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 수정란의 유전자에 의해 성 기관, 정소, 난소 등이 만들어지므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만, 성 인식의 형성에는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적 영향과 교육, 문화 등에 의한 후천적 영향이 모두 미친다.

이성애 형성과정에 교육, 문화 등의 후천적인 영향이 강력하지만, 선천적으로 결정된 생물학적 성이라는 토대 위에 형성되었기에 후천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성애는 선천적으로 예정된 경로를 따라 후천적인 도움을 받아서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적이며,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 인식이다. 반면에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선천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1990년대 초에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들이 나왔지만, 결국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동성애는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육체로부터 오는 영향과는 반대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동성애 형성에 선천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적 자료로부터 유추하면,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동성애는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왜곡된 성 인식이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적 영향을 강제로 억누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천적인 성과 부합하는 이성애와 동등하게 정상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VI.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의 잦은 반복 이유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항상 반복될 가능성을 갖지만, 1990년대 초반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했던 결과들은 모두 반복되었다. 이러한 반복 결과는 이례적인 것이므로, 동성애 관련 결과들의 반복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조사 대상의 수가 적으면 평균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요동(fluctuation)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우연이다. 예로서, 적은 수의 동성애자의 코 높이를 측정했을 때 일반인의 코 높이와 우연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 결과가 우연인지, 코 높이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동성애를 일으켰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다른 코 높이를 가지는 결과는 흥미롭다고 학술지에 실리게 된다. 반면에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비슷한 코 높이를 가지는 결과는 학술지에 실리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몇 십년동안 동성애와 생물학적 현상이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언론이 대서특필하여 동성애와 생물학적 현상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되려면, 일관된 결과가 나오든지 대규모로 조사하여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자 수는 적고 성급하게 학술지에 실림으로써, 동성애 관련 결과의 반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원인과 동성애로 말미암은 결과가 뒤바뀌어 해석될 수 있다. 예로서, 1991년 리베이가 남성 동성애자의 특정 두뇌 부분이 여성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결과를 죽은 사람의 두뇌에서 얻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여성과 비슷한 두뇌를 가져서 동성애를 한 것인지, 혹은 동성애자로서 살았기에 특정 두뇌 부분이 변형되었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 즉, 동성애자로서 살아온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물학적 특성이 동성애의 원인으로 왜곡될 수 있다. 셋째, 과학자 또는 조사대상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5년에 해머 연구팀 중 한 명이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고발하였다(Marshall, 1995: 1841). 연구윤리국이 밝히지는 못했지만, 데이터가 선별되어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조사대상자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예로서, 1991년에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할 때, 일관성 쌍둥이인 동성애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사에 동참하여 동성애 일치 비율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학자 또는 조사대상자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Ⅶ. 결론

본 논문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려고 하였다. 먼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즉 유전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이상, 형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후에,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반론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즉 동성애 유발 유전자, 후생유전학적 요인, 제3의 성, 기타 주장 등을 고찰한 후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추가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과 동성애가 선천적인 영향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려고 하였다.

다행히 최근에는 대다수 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예전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렸지만, 이제는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근에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다수의 과학자들이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성적지향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지향은 타고난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으며(Mayer and McHugh, 2016: 8), 화이트헤드 등도 결론에서 유전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에 의해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다(Whitehead and Whitehead, 2016: 267-268). 또한 샌더스 등은 최근에 발표된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관한 논문의 결론에서 ‘유전적 기여가 결정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급했고(Sanders et al., 2015: 1386),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여진 논문에서조차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결론지었다(Bailey et al., 2016: 46, 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연구 결과만을 부각시키므로, 서구의 일반인에게는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서구 일반인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서구에 확산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도 동성애는 타고난 것으로 인식하도록 편집되곤 한다. 지금은 번복이 된 예전의 과학적 근거만 소개하고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최근 결과는 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편향된 정보들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오해를 갖게 하고, 상당수 지식인이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오해를 갖게 만드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첨언하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로 유추하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최근에 많은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축적되었고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기에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동성애 형성에 선천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예로서, 살인이라는 행동에는 쉽게 흥분하는 성격, 근육질의 몸 등과 같은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천적인 영향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만들거나 살인 충동 자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것이다. 따라서 살인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선천적인 영향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선천적인 영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선천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하게 만들거나 동성애 성향 자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영향에 의해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길원평·민성길 (2014).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신앙과 학문**, 19(1), 7-36.
[Gill, W. P. and S. K. Min (2014). A Study of Homosexuality from a Christian Worldview. *Faith and Scholarship*, 19(1), 7-36.]
- 길원평 등 (2016).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개정 2쇄. 서울: 건강과 생명.
[Gill, W. P. et al. (2016). *Homosexuality is innate?* (2nd ed.). Seoul: Health and Life.]
- 하재청 등 (2008). **성의 과학**. 제6판. 서울: 월드사이언스.
[Ha, J. C. et al. (2008). *Science of Sex*. (6th ed.). Seoul: World Science.]
- Allen, L. S. and R. A. Gorski (1992). Sexual orientation and the size of the anterior commissure in the human bra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89, 7199.
- Bailey, J. M. and R. Pillard (1991).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1089.
- Bailey, J. M., M. P. Dunne, and N. G. Martin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24.
- Bailey, J. M., P. L. Vasey, L. M. Diamond, S. M. Breedlove, E. Vilain, and M. Epprecht (2016). "Sexual Orientation, Controversy, and Science." *Psychol Sci Public Interest*, 17(2), 45-101.
- Barinaga, M. (1991). Is Homosexuality Biological? *Science*, 253, 956.
- Becker, R. (2015). Preprints called on to support controversial talks. *Nature*, 526, 479.
- Bem, D. J. (1996). Exotic becomes erotic: a developmental theory of sexual orientation. *Psychological Review*, 103, 320.
- Bishop, K. M. and D. Wahlsten (1997). Sex differences in the human corpus callosum: myth or reality?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1(5), 581.
- Blanchard, R. and A. F. Bogaert (1996). Homosexuality in men and number of older broth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 27.
-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2001).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86.
- Byne, W. (2006). Developmental endocrine influences on gender identity: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Mt Sinai Journal of Medicine*, 73, 950.
- Cameron, P., T. Landess, and K. Cameron (2005). Homosexual sex as harmful as drug abuse, prostitution or smoking. *Psychological Reports*, 95, 915.
- Cantor, J. M., R. Blanchard, A. D. Paterson, and A. F. Bogaert (2002). How many gay men owe their sexual orientation to fraternal birth orde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1, 63.
- Cavalli-Sforza, L. L. and W. F. Bodmer (1971). *The Genetics of Human Populations*. San Francisco: W. H. Freeman.
- Drabant, E. M., A. K. Kiefer, N. Eriksson, J. L. Mountain, U. Francke, J. Y. Tung, D. A. Hinds, and C. B. Do (2012).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based cohor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Nov 6-10, San Francisco.
- Ehrhardt, A. A., H. F. L. Meyer-Bahlburg, J. F. Feldman, and S. E. Ince, (1984). Sex-dimorphic behavior in childhood subsequent to prenatal exposure to exogenous progestogens and estrogen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3, 457.
- Frisch, M and A. Hviid (2006). Childhood family correlates of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arriages: a national cohort study of two million Dan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5), 533.
- Hamer, D. H.,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
- Jone, S. L. and M. A. Yarhouse (2000). *Homosexuality: The u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hurch's Moral Debat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Kendler, K. S.,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2000).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843.
- Kwan, M., W. J. Greenleaf, J. Mann, L. Grapo, and J. M. Davidson (1983). The nature of androgen action on male sexuality—a combined laboratory-self-report study on hypogonadal men.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57, 557.

- Langstrom, N., Q. Rahman, E. Carlstrom, P. Lichtenstein (2010).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75.
- Lasco, M. S., T. J. Jordan, M. A. Edgar, C. K. Petito, and W. Byne (2002). A lack of dimorphism of sex or sexual orientation in the human anterior commissure. *Brain Research*, 936, 95.
- Laumann, E. O.,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1994).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ay S. (1991).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034.
- Lish, J. D., H. F. L. Meyer-Bahlburg, M. Ehrhardt, B. G. Travis, and N. P. Veridiano (1992). Prenatal exposure to diethylstilbestrol (DES): childhood play behavior and adult gender-role behavior in wom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1(5), 423.
- Manning, J., D. Scutt, J. D. Wilson, and D. I. Lewis-Jones (1998). The ration of the 2nd to 4th digit length: A predictor of sperm number and concentrations of testosterone, luteinizing hormone and oestrogen. *Human Reproduction*, 13, 3000.
- Manning, J. T., Trivers, R. L., Singh, D. and R. Thornhill (1999). *Nature*, 399, 214.
- Marshall, E. (1995). NIH's 'Gay Gene' Study Questioned. *Science*, 268, 1841.
- Mayer, L. S. and P. R. McHugh (2016). Sexuality and Gender Finding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The New Atlantis*, 50, 10-143.
- McConaghy, N., Hadzi-Pavlovic, D., Stevens, C., Manicavasagar, V., Buhrich, N. and U. Vollmer-Conner (2006). Fraternal birth order and ratio of heterosexual/homosexual feelings in women and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51, 161-174.
- Meyer-Bahlburg, H. F. L. (1984). Psychoendocrine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options. *Progress in Brain Research*, 61, 375.
- Meyer-Bahlburg, H. F., C. Dolezal, S. W. Baker, and M. I. New (2008). Sexual orientation in women with classical or non-classical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as a function of degree of prenatal androgen exces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1), 85.
- Murphy, T. F. (1992). Redirecting sexual orientation: techniques and justifications. *Journal of Sex Research*, 29, 501.

- Mustanski, B. S.,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and D. H. Hamer (2005).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72.
- Ngun T. C., W. Guo, N. M. Ghahramani, K. Purkayastha, D. Conn, F. J. Sanchez, S. Bocklandt, M. Zhang, C. M. Ramirez, M. Pellegrini, and E. Vilain (2015). *A novel predictive model of sexual orientation using epigenetic markers*. Presented at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2015 Annual Meeting, Baltimore, Md.
- Pool, R. (1993). Evidence for homosexuality gene. *Science*, 261, 291.
- Ramagopalan, S. V., D. A. Dymont, L. Handunnetthi, G. P. Rice, and G. C. Ebers (2010).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 131.
- Rice, G.,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665.
- Risch, N., E. S. Wheeler and B. J. B. Keats (1993). Male Sexual Orientation and Genetic Evidence. *Science*, 262, 2063.
- Sanders, G. and M. Wright (1997). Sexual orientation differences in cerebral asymmetry and in the performance of sexually dimorphic cognitive and motor task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 463.
- Sanders, A. R., E. R. Martin, G. W. Beecham, S. Guo, K. Dawood, G. Rieger, J. A. Badner, E. S. Gershon, R. S. Krishnappa, A. B. Kolundzija, J. Duan, P. V. Gejman and J. M. Bailey (2015). Genome-wide scan demonstrates significant linkage for male sexual orient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5, 1379.
- Servick, K. (2014). New Support for 'gay gene'. *Science*, 346(6212), 902.
- Stanton L. Jones and Mark A. Yarhouse (1997). Science and the Ecclesiastical Homosexuality Debates, *Christian Scholar's Review*, 26(4), 446.
- Szuromi, P. (1993). Genetics and male homosexuality. *Science*, 261, 273.
- Wells, J. E., M. A. McGee, and A. L. Beautrais (2011). Multiple Aspects of Sexual Orient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a New Zealand National Surve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0(1), 155-168.
- Wickelgren, I. (1999). Discovery of 'Gay Gene' Questioned. *Science*, 284, 571.
- Williams, T., M. E. Pepitone, S. E. Christensen, B. M. Cooke, A. D. Huberman, N. J. Breedlove, T. J. Breedlove, C. L. Jordan, and S. M. Breedlove (2000).

Finger-length ratios and sexual orientation. *Nature*, 404, 455.

Whitehead NE (2007). An antiboy antibody? Re-examination of the maternal immune hypothesis. *J Biosocial Sci*, 39(6), 905.

Whitehead, N. E. and B. K. Whitehead (2016). *My Genes Made Me Do It! Homosexualit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4th ed.). Whitehead Associates.

Retrieved from

<https://www.lifesitenews.com/news/for-the-first-time-a-majority-of-americans-believe-homosexuals-are-born-tha>. (2016.5.26.)

The Science Times 2015. 10. 29일자. “통계의 덫에 빠진 동성애 연구.”

[“Study of Homosexuality in the Statistical Trap”, The Science Times (2015.10.29).]

논문초록

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길원평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교수)

도명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임회장)

이세일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임완기 (호서대학교 체육과학부 교수)

정병갑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

최현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며 관련 논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즉 유전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이상, 형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후에, 이를 반박하는 논문들과 반론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즉 동성애 유발 유전자, 후생유전학적 요인, 제3의 성, 기타 주장 등을 고찰한 후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소개하였으며, 동성애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과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인 취향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의 잦은 반복 이유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선천적인 영향에 의해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주제어 : 동성애, 선천성, 유발 유전자, 후생유전학적 요인, 제3의 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The ‘Good Works’ in Heidelberg Catechism

– Focused on the Socially Weak –

김성애 (Sung-Ae Kim)*

Abstract

The study aims at discussing on the significances of the Good Works in Heidelberg Catechism, and then suggesting the significance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More detailed objectives and related contents are as followed.

First, the study looks into the significants of ‘Good Work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From here the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n term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re described, and the concepts of the Good Works is mentioned as well. And relation to the Good Works, the meaning of gratitude, belief,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are discussed. Lastly, the Good Work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ocially poor and weak in the Heidelberg Catechism. Ursinus has mentioned that the Good Works comes out the true beliefs, follows God's Laws, and they are all about the glory of God. Therefore, the Good Works for the socially poor and weak should be what Christian is to obey God's command of serving the poor and weak.

Lastly, the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regarding the Good Work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n society in the super individualism neglects the socially weak, and churches in the society passes over those individualism in silence. In the society and the church, the awareness of community would be buried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y. In such a phase, necessity of Christianity Role should be strongly come to the fire, which could recover on the awareness of community in the society and the church. So it should be necessary to the ethical works for the poor and weak, as a code of conduct for Korean Christianity. Therefore the Korean Christianity should look for new significants in Jesus' Commands, that you shall love your God and

*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sakim@daegu.ac.kr

2017년 06월 25일 접수, 07월 17일 최종수정, 07월 19일 게재확정

your neighbor as yourself.

Key Words : Heidelberg Catechism, good works, the socially poor and weak

이 논문은 김성애 (20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선한행위’ - 레비나스 타자윤리와 관련하여 -)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중에서 일부를 이 논문의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1. 연구의 의의

연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가지는 믿음의 본질은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행위’ 속에서라는 말이다. 그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선행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주제를 가진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선행일진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특히 사회 구성원은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로 인한 다양한 소통 방법 특히 SNS 등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인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이 사회는 초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개인들이 자기 이외의 일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 폭력, 비도덕적인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둔감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의 발생 원인에 대한 통감함이 무뎠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 질어져가는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교회가 관념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타파하지 못하는, 즉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못하는 부분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교회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그것에 근

거한 윤리적 임무에 대해 감각을 일깨워야 하는데도 말이다.

믿음과 행위가 이분법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선행이라 하겠다. 이 선행이 개인적 이기심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적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 할 핵심적인 해법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은 믿음에 전제한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믿음을 행위로 온전하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 의미를 논함에 있어, 성령에 대한 부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이상은, 2013: 282).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선행을 강조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항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믿음 다와 진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첫 번째 문항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포괄적이고 역동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구원과 칭의의 사역에서 뿐 아니라 성례전과 선행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이상은, 2013: 283).”¹⁾

이에, 연구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을 구체화함으로써²⁾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을 입은 신앙인이 어떻게 선행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믿음은 단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거나 관념적인 그물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함으로 유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것도 선행을 통해서 확인되기에, 이 연구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선행을 강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회복하는 시사점을 얻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관련된 모든 선행 연구들은 선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부분에 대해 이경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혁과 교회의 교리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연구가 적을 뿐 아니라, 저자 우르시누스가 쓴 해설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더 적은 실정이다. 그러하기에 우르시누스의 해설서를 자료로 삼아 믿음과 선행행위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한국 개혁과 교회 신자들의 삶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경직, 2013: 53).

I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성격 및 구조

(1) 역사적 배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저자에 대한 분분한 논란 가운데서도 유력한 추측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라는 설과 공동저자 설이다(주도홍, 2013: 184). 전자는 존 네빈(John W. Nevin)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소개의 글에 밝힌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내용에 우르시누스의 정신과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는 말에서도 확인이 된다(원광연 역, 2006: 2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4판에 이르는 보완작업을 거쳐 완성되었고, 1618~19년 도르트총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독교 국가에서 수용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개혁신교회의 주요 신앙고백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였다(주도홍, 2013: 19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그것은 팔츠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관여되어 있음과(권호덕, 2007: 166) 통치하는 자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적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 종교적 내용과 강조로 인해 야기되는 신앙에서의 무질서와 오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권호덕, 2007: 166)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당시의 통치 철학과 운영을 자신의 신앙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요리문답은 개혁신교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혁신교회 세계 3대 신앙고백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주도홍, 2013: 184).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교육서로서 역할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의견 중 하나이다.

(2) 성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신앙적 열망과 루터 및 칼빈의 종교개혁적 성격을 함께 품고 있으면서 신앙적 지도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적합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주도홍, 2013: 208). 권호덕은 “Ursinus는 마치 여러 방향의 종교개혁자들

의 신학사상을 용광로에 녹여 만든 종합체와 같았다. 또 그의 동료인 Olevianus는 칼빈의 제자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루터와 멜란히톤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다(권호덕, 2007: 183).”고 언급한다. 그래서인지 네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이 삶과 밀접한 관계로, 소위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고 역설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요리문답은 사사로운 작품이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히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색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것을 만들어낸 우르시누스는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신앙적 삶의 기관이었다(원광연 역, 2006: 26).”고 밝히고 있다.

(3) 구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시대를 향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믿음과 행위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되는 이유로,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된 인간이 칭의를 통한 구원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이경직, 2013: 53).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제1부: 3문-11문),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제2부: 12문-85문), 감사(제3부: 86문-128문)가 그것이다(이형기 편역/해설, 2003: 112).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연관성 있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신학적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는데,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필립 멜란히톤(Phillip Melancthon), 존 칼빈(John Calvin) 등의 신학이 바로 이 요리문답의 신앙적 근거이며, 이 요리문답은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는 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 칭의와 감사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주도홍, 2013: 199).

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의 개념적 정의

선행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은 이렇다:

제91문: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오직 참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으며(롬 14:23),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삼상 15:22; 엡 2: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고전 10:31) 일들이며, 우리의 견해나 인간의 규정에 따른 일들이 아닙니다(신 12:32; 겔 20:18,19; 사 29:13; 마 15:9). (황재범 편역, 2013: 69)

우르시누스는 91문답을 해설하면서 선행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56).”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르시누스는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원광연 역, 2006: 756)고 강조하면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하심에 따른 참된 믿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56-758).

이상의 설명에서 보면, 선행은 결코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요, 칭의와 믿음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이것은 믿음과 감사가 있도록 한 성령의 역할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에는 믿음, 감사, 성령이 언제나 동반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인리히 헤페(Heinrich Heppe)는 우르시누스가 말한 선행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1) 필수적으로 칭의를 수반하는 중생, (2) 구속에 대한 감사, (3) 하나님의 전파, (4) 우리 신앙과 선택의 확증, 그리고 (5)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나타내는 선한 모범(이정석 역, 2011: 822)”이 그것이다.

(2) 선행의 목적

헤페는 선행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이정석 역, 2011: 821-822)라고 한다. 여기서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에서 직접 언급한 선행의 이유를 86문답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한다:

제86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의하여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를 대가로 치루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또한 그

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시므로, 우리는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롬 6:13; 12:1f; 뵤전 2:5, 9, 10; 고전 6:20)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마 5:16; 뵤전 2:12)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고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되고(뵤전 1:6, 7; 마 7:17; 갈 5:6, 22f.)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될 것(뵤전 3:1f; 롬 14:19)이기 때문입니다(황재범 편역, 2013: 67).

이상에서 본 대로, 우르시누스는 선행의 이유와 선행의 내용을 86문과 91문의 해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중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2.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함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4. 그것들이 믿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5.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선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이다. 1. 하나님과 관계된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2. 우리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 확신하고, 선행을 통하여 믿음이 발휘, 양육, 강건,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의 소명과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적이고 영적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다. 3.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목적은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의에 장애와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다(원광연 역, 2006: 739-769).

이러한 선행이 가능하려면 그 전제가 있는데, 즉, 오직 중생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위한 회심과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이 그것이다(원광연 역, 2006: 760-762). 베른하르트 로제(Bernhard Lohse)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를 벗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함을 시작으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진리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Lohse ed., 1988: 287을 주도홍, 2013: 200에서 재인용).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은 단순히 특정한 문답 속(86문, 91문)에 갇혀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건너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믿음 가운데서 중생한 우

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선행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과제와 대면하고 있다.

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감사와 선행

우르시누스는 선행을 감사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즉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요,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다(원광연 역, 2006: 766).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선행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감사는 성령과도 연결되는데, 그것은 선행이 성령이 전제된 것이므로 감사 또한 그러하다고 하겠다(이상은, 2013: 287). 이경직은 선행이 감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얻으며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사랑을 언급하는데(이경직, 2013: 67),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 결과 나오는 반응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원광연 역, 2006: 80을 이경직, 2013: 67에서 재인용)”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감사의 필요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자신이 위로를 얻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서 우리에게 공로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원광연 역, 2006: 737).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즉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믿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간절한 심적 상태요, 그래야만 그러한 우리의 심적 상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선행이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상은에 의하면, 선행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이상은, 2013: 287), 여기서 그는 기도와 윤리의 중요성이 있음을 미카엘 바인트커(Michael Beintker)의 인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은 선한 사역에로의 능력을 향한 해방으로 전개되며, 하나님의 계명의 지평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삶을 향해 나타난다(86-113문). 이것은 또한 감사의 삶에서 이어지는 “기도”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116-129문) 기도는 가장 “숭고한 부분”(vornehmste Stueck)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형태”(116문)로 나타난다. (...)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

리의 이성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86문). (이상은, 2013: 288-289)

위에 열거된 대로, 바인트커는 기도를 감사의 구체적인 열매인 선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윤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윤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사를 고양시키는 우리의 선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르시누스는 감사에는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기도는 진실에, 선행은 정의에 속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 열매인 선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회심의 중요함을 또 한 번 지적하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과정들, 특히 행위는 선행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원광연 역, 2006: 737-738). 그러니까 회심, 믿음, 감사, 기도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안에서 선행의 본질을 일으키고 유지 시키는 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믿음과 선행

(1)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행

앞에서도 언급된 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선행은 제91문에 있지만 이것은 86문에서부터 이어져있으며 제3부의 끝인 128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우르시누스가 선행을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선행이 믿음의 증거이고 결과이며 믿음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이 회심과 무관하지 않으며 회심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경직, 2013: 54)”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선행과 관련하여, 믿음의 정의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우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21, 22 문답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1문: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 믿음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 모두가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의 하나의 확실한 앎입니다(약 1:18). 다른 한편으로 참 믿음은 성령께서(고후 4:13; 엡 2:8, 9; 마 16:17; 빌 1:19)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롬 1:16; 10:17)인 바의 진심어린 신뢰(롬 4:16-21; 5:1)입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없이 주어지되(히 11:7-10; 롬 1:16), 순수한 은혜에 의해, 즉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엡 2:7-9; 롬 3:27f; 갈 2:16).

제2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인데(요 20:31; 마 28:20), 이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의 보편적이며, 의심할 바 없는 사도신경입니다.

(황재범 편역, 2013: 37-38)

이상의 요리문답의 내용을 우르시누스의 해설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믿음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한다(원광연 역, 2006: 203). 그 중에서 네 번째인 ‘의롭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선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원광연 역, 2006: 209). 이경직은 우르시누스의 말을 빌려 네 종류의 믿음 중 앞의 세 종류는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통해 생기며, 네 번째 믿음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 생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우리 인간이 거듭나게 될 때 두 돌판 모두가 인간 마음속에서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이경직, 2013: 61).”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이 참된 믿음의 본질적 면을 언급한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은 인식과 그 믿음의 필수 조건인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다(이경직, 2013: 57).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는 일종의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우르시누스는 언급한다. 즉, 그것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며, 회심과 중생과 온전한 순종이 생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생기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수용하는 것 등이다(원광연 역, 2006: 210)

여기서 볼 때,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뚫고 나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행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행이다. 이경직은 우르시누스가 주장하는 이 점에서 칼빈의 입장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면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이해라는 지적 요소도 지니지만(Calvin, *Institutes*, III. ii. 2.) 감정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도 지녀야 한다. 칼빈에 따르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동반한다(Calvin, *Institutes*, III. xi. 20)(이경직, 2013: 64).”라고 언급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서도 선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를 대가로 치루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우르시누스 역시 그의 해설에서 선행의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원광연 역, 2006: 765)”이라고 언급하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등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원광연 역, 2006: 765).

(2) 믿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선행

이상의 내용들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선행의 부분이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도 선행하도록 한다. 역으로 말하면,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거 되고 우리의 ‘믿음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60배 100배 자라게 된다. 우르시누스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행과 새로운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자들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처럼 선행과 순종과 회개를 생산하기 때문이다(원광연 역, 2006: 766).”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행을 하게하며, 선행이 믿음을 더욱 양성시킨다(원광연 역, 2006: 766).”고 역설한다.

(3) 믿음과 이웃에 대한 선행

믿음은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선행을 하게 한다. 우르시누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선행을 하게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분, 그리스도의 대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분이다(원광연 역, 2006: 768). 여기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행은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선행 자체가 구원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때(이경직, 2013: 64 참조), 이웃에 대한 선행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웃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21 문에 나타난 믿음을 보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둘째,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인 바의 신뢰(황재범 편역, 2013: 37 참조)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과 선행

이 절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선행이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성령이 선행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53문답에 나타나 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창 1:2; 사 48:16; 고전 3:16; 행5:3f.), 둘째 그는 내게도 계서서(마 28:19; 고후 1:21f.) 참된 믿음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해주시며(갈 3:14; 벰전 1:2; 고전 6:17), 나를 위로해주시고(행 9:31)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요 14:16; 벰전 4:14). (황재범 편역, 2013: 50)

이 문답에서 우르시누스는 성령에 대해 위격, 직분, 역할 혹은 활동의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원광연 역, 2006: 448), 이러한 성령은 자신의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시나, 특히 경건한 자들에게 성화, 믿음, 중생,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소망, 인내 등을 은사로 주신다(원광연 역, 2006: 62). 이상은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은 그리스도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서(이상은, 2013: 299),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의 특성은 현대에 와서 바르트를 통해서 주목되었다. 그는 우선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의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춰진 하나님 혹은 절대적 하나님(Deus absconditus, Deus absolutus)

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설명한다.(이상은, 2013: 299)”는 바르트의 의견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31문, 32문)(황재범 편역, 2013: 42-43) 성도가 기름부음 받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신다고 하며, 성도의 윤리적 사명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이상은, 2013: 304).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그러면 우르시누스가 언급한 성령이 선행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우르시누스는 선행을 성령의 전제 속에서 언급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선행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마음이 진정 중생한 중생자에게만 가능하며, 그것도 최초의 회심과 중생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동일한 성령의 항구적이고도 끊임없는 영향력과 지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날마다 그 동일한 선물들을 그들 속에서 더욱 증가시키고 확증시키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60).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선행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즉 그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첫 회심에서 비롯된 중생 뿐 아니라 성화 과정 까지도 관여하신다(이경직, 2013: 62). 그러니까 선행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야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도록 하는 성령에 의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킨 결과가 선행이다(이경직, 2013: 66).”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전 생애동안 선행을 하여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겠다(주도홍, 2013: 205). 우르시누스는 91 문답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정하며 가증스럽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배설물일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회심 이전에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믿음이 선행의 원인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원광연 역, 2006: 761).”라고 강조하여,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선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이상은은 성령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의 주체이신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의 주체’로서의 성령을 말하

고 있다(이상은, 2013: 284-287). 여기서 우르시누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선행은 믿음과 회심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이라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61).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주장에서 선행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한 회심과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선행은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단언이 확실한 성경적인 논리를 가진다고 하겠다(원광연 역, 2006: 763).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7문과 8문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는데, 우르시누스는 그것을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들어 밝히고 있다(원광연 역, 2006: 110). 우르시누스가 밝히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선행은 중생한 자들의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경우, 중생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은 중생자들의 선행이 성화된 삶으로 엮어내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자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선행이 되도록 관여하신다는 의미이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인간이 성화하게 하는 주체가 된다(이상은, 2013: 304). 성화는 애초에 구원이 없이는 그 언급이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선행을 통하여 완성된다(이경직, 2013: 78).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하여 많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2.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고상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4.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행위 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5.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사 하시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 6.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7. 그래서 우리는 선행 이전에 먼저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 8.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받는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9.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10.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11.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다(원광연 역, 2006: 769-772).

이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필히 선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이경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을 해설

한 우르시누스의 선행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영광,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로 규정하면서 율법은 선행의 규범적 측면에서, 영광은 상황적 측면에서, 그리고 선행을 참된 믿음에 두는 것은 실존적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이경직, 2013: 72). 그러기에 중생함을 입은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지 선행을 닮은 행위를 하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의 ‘행위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 뿌리를, 선행의 본질적인 터를, 선행의 주체를 망각해서 는 안 될 것이다.

III.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

앞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듯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86문)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삶 전체로 감사함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구에 응하는 측면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의 측면이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 즉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함 이요,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삶이다(원광연 역, 2006: 765; 최태영, 2012: 14). 이런 이유에서 선행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인 자신, 이웃으로 들 수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과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의무적인 것이다. 즉, 선행을 해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86항은 선행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최태영, 2012: 14).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을 행하는 이유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선행의 표면상 드러나는 행위의 현상적 내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주장하는 존재와 행위, 영성과 윤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홍순원, 2013: 568)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겠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은 단순히 행위 차원의 강조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의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 있지도 않다. 즉, 선행은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선행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중생한 자의 모든 행위는 선행이 목적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 목표이자 동시에 현실적인 삶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적 선행을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감사, 그리고 소통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선행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할 방법도 아울러 언급한다. 여기서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여 그 행위가 완전히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듭난 기독교인에게 선행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인간은 그러한 행위를 온전히 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맺는 열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인간의 행위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도 하고 불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행위의 모든 결점과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복구되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56-757).

이상에서의 선행에 대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본 선행의 정의, 믿음의 중요성, 성령의 역할, 감사의 의미가 앞서 기술된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입장이 논의된다.

1. 사회적 약자 중심 선행의 정의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 역시 선행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선행이 단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돌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선행이 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에 대해 논하기 전에, 연구자가 정의한 선

행을 앞 서 언급된 선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은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세 차원은 그 각각의 독립적인 차원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웃을 유기적인 관계로 엮어서 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하나님-나, 하나님-이웃, 이웃-나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나-이웃-하나님’이라는 유기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믿음, 성령, 감사 등을 선행과 엮어서 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중생한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는 것에 순종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적,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 등이다.

2.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위한 믿음의 중요성

앞 서 언급된 것처럼, 우르시누스가 믿음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고 중생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하겠다. 믿음이 선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믿음이 확신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낳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믿음에 기인한 ‘따름’은 바로 선행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서 나오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의 행위는 선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선행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잣대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 있는 가’, ‘나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매몰될 위험성에 빠지지 않을 거울이 된다.

3.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위한 성령의 역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담고 있는 성령론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웃을 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상은, 2013: 28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에서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기록하고 있고(황재범 편역, 2013: 32 참조), 우르시누스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행위를 행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로 정하시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서도 선한 생각들과 행위들이 나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작정에 선하게 여겨지는 쪽 이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뜻을 다른 쪽으로 지향할 수가 없다(원광연 역, 2006: 123).

이렇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그 실천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섬기시는 삶을 사신 예수의 생활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어려운 일일 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할 수 있게 만든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은 우리의 삶과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 약자를 돌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요청을 순종으로 채울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전 생애동안 이룰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으로 자리하게 하고 성화를 이룰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4.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에 대한 감사의 의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알게 하였으니, 감사가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문답(황재범 편역, 2013: 31 참조.)에 나오는 것으로, 그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계명에 근거하여 감사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에 주는 의미를 논의하도록 한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를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러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를 불쾌하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2).

우리의 감사함은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므로 그가 우리를 향한 정의 실천의 당부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선행으로 그의 선이 최고가 됨을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며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하는 선행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원광연 역, 2006: 737-738)는 우르시누스의 말을 되새겨 보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외되고 버려져야 함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중심한 선행은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녕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중생함을 입은 데서 오는 감사함의 표현이고, 동시에 그들의 현존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들이 삶의 풍요 가운데 초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정의적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IV.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이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주는 시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되, 그 길은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칭의 입을 확인하게 한다. 선행의 동기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그 동기는 중생함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벗어짐에 대한 감사함에서,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에서 주어진다 하겠다. 이렇게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과 뜻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인간의 확신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실현되는 열매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하여 볼 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꽃을 피우는” 곳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한유진, 2013: 6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는 바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본거지로 역할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물질과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해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모든 섬김의 사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된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디아코니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나 복음전파의 수단 정도이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구원과 해방과 화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다(최윤배, 2012: 923).

위의 인용에서 본 바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디아코니아)이 개혁교회의 전통이고 큰 비중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당연한 교회적 소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생함을 입은 우리의 직접적인 섬김이요,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실현할 본질적인 터요, 계획이요, 에너지의 집합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맨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초개인주의적 현상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들어 있는 교회는 그

구성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믿음을 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심’의 사고가 교회 안에 살아 있는 한, 한국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믿음의 행함’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관념 자체 만으로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그 본질은 행위,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행으로 나타날 때에만 존재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선행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서 말하는 선행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 함의 당위성을 가지게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차원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빠진 행위는 그저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중생한 자의 특권인 영생의 열매를 가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같은 책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상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 일상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섬김’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뒤를 따른다는 각오이므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넷째,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윤리적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선행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평화와 안녕으로 회복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개인주의 시대 속에 있는 지금의 사회는 점차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적인 사명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

른 계약 관계의 형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경제적 자본주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이 상실된 우리의 사회와 교회에서 “너”와 “우리”의 중요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우리 사회 내에서 고통과 험벗음은 공동체 속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돌보고 살피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가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새 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연구자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행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선행의 의미 속에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면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윤리적 태도의 내용적 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 3:17)”라는 말씀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라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기를 강조한다. 이제는 교회가 경제논리와 이기심과 어울려 지내던 장면들에서 돌아서서 공동체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랑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랑이 곧 선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표일 것이다.

이에, 한국 교회는 믿음이 구원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선행이 일상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의 기독교적 신앙고백을 보다 확고한 교리적 이해 속에서 재인식해야 하고, 믿음이 이념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행으로 이어질 행동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배와 설교는 개인중심이 아닌 공동체의 확인과 구성원간의 관계성과 소통이 살아나도록 하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예배 안에서 성례의 본래적 의미가 회복되도록 장려하고 그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할 방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호덕 (2007).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 특징에 대한 한 연구. **장로교회와 신학**, 4(0), 163-203.
- [Kwon, H. D. (2007). A Study on the T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n Presbyterian Theological Society*, 4(0), 163-203.]
- 김성애 (20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선한행위 - 레비나스 타자윤리와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Kim, S. A. (2014). *The ‘Good Conducts’ in Heidelberg Catechism - In Relation to Lévinas’ Ethic of ‘the others’ -*.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이경직 (2013). 이신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국개혁신학**, 37(0), 48-83.
- [Lee, K. J. (2013). Concepts of faith and good act in 원광연 역’ Commentary of Heidelberg Catechism. *Korea reformed theology*, 37(0), 48-83.]
- 이상은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 그 윤리적 함의. **한국개혁신학**, 40(0), 281-310.
- [Lee, S. E. (2013). The Pneumat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ts Ethical Implication. *Korea reformed theology*, 40(0), 281-310.]
- 이형기 편역/해설 (2003).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Lee, H. G. (Compilation/Translation/Commentary) (2003). *Confession onf Faith in the World Reformed Church*.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
- 주도홍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정신: 개혁교회 그 분명한 정신을 추구하며. **한국개혁신학**, 40(0), 183-214.
- [Jou, D. H. (2013). History and Spirit of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 reformed theology*, 40(0), 183-214.
- 최윤배 (2012). **갈뱅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Choi, Y. B. (2012).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John Calvin*.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최태영 (2012). 개신교 신앙고백서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 **신학과 목회**, 37(0), 5-27.
- [Choi, T. Y. (2012). An Understanding of Holy Life According to Protestant Confessions. *Theology and Ministry*, 37(0), 5-27.]
- 한유진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불령거의 교회론 비교. - ‘거룩한 보편

- 적 교회'를 중심으로 -. **기독교 철학**, 16(0), 59-84.
- [Han, Y. J. (2013). A Comparison of the Ecclesiology in Heidelberg Catechism and Bullinger - Focused on 'The Holy Catholic Church'. *Christian Philosophy*, 16(0), 59-84.
- 홍순원 (2013). 성령과 사회적 성화: 존 웨슬리의 성령론적 윤리. **신학과 실천**, 35(0), 567-589.
- [Hong, S. W. (2013). Holy Spirit and Social Sanctification: John Wesley's Pneumatological Ethics. *Theology and praxis*, 35(0), 567-589.]
- 황재범 편역 (2013). **개혁교회 3대 요리문답**. 서울: 한들출판사.
- [Hwang, J. B.(Translation) (2013). *The Three Major Catechism: Heidelberg Catechism (1563),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1647),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1541)*. Seoul: Handeul Publisher.]
- Hepp, H. *Reformierte Dogmatik*. 이정석 역 (2011). **개혁파정통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Ursinus, Z.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200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논문초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김성애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진 선행의 의미를 논의하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선행에 주는 과제를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의 의미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성격 및 구조가 다루어진다. 또한, 선행의 개념과 감사, 믿음, 성령에서의 선행 의미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선행을 논한다. 우르시누스는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중생한 인간이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이 한국 기독교에 시사해 주는 과제를 논한다. 초개인주의 시대 속에 있는 지금의 사회는 점차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적인 사명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계약 관계의 형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경제적 자본주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이 상실된 우리의 사회와 교회에서, 공동체와 이웃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가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새 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주제어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선행, 사회적 약자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The Roles of Religion in Family Life: A Research Review

김성은 (Seong-Eun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religion in family life through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families and to propose future research agenda. Specifically, 41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families publish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journals between 1999 and 2016 were selected and topic areas, samples, measurements of religiosity, religious experiences investigated, research models, and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tudies were reviewed. The research studies explored various topics including marriage preparatio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y functioning.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research had some flaws in sampling,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research model, and some did not follow analytical procedures rigorously. Consequently, understanding of how religion influences family life and shapes the experiences of families was limited. Using this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and the maj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ddressed in the scholarship of religion and families in the West as a backdrop, 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nd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ment required to better elucidate the linkage between religion and families in Korea.

Key Words : religion, spirituality, families, marriage, marriage preparation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ealthyfam@skku.edu

2017년 08월 01일 접수, 09월 02일 최종수정, 09월 17일 게재확정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에서 종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조사 결과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갤럽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에 각각 44%, 49%, 47%, 54%, 50%로,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4%포인트 감소하였지만 1984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6%포인트 증가하였다(한국갤럽 2015: 17). 그리고 2014년에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고, 불교인의 67%, 개신교인의 84%, 천주교인의 73%가 그렇다고 하여 종교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갤럽, 2015: 39). 또한 응답자와 모친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1984년과 2014년에 불교인들에게 82%와 82%, 개신교들에게 43%와 56%, 천주교인에게 40%와 46%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종교의 전승이 높았다(한국갤럽,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는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 종교 활동에의 참여, 종교적·영적 자원 등은 가족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Mahoney, 2010). 첫째, 종교적 신념이나 가르침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 가족, 사회 및 영적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이는 가족기능이나 가족관계의 역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ahoney, 2005; Mahoney et al., 2003; Silberman, 2005). 기독교에서는 부모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는데(Bartkowski & Elison, 1995), 유아기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양육을 성스럽게 바라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덜 공격적이고 신체적 폭력의 사용빈도가 낮았다(Mahoney et al., 2003). 불교에서는 인간의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에의 도달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전반적인 양육능력도 높았다(김혜순, 2009). 그런데 종교적 신념은 가족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족 간 종교적 신념의 불일치는 가족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소원을 초래하기도 한다(송현동, 2008; 이정덕·전미경, 1995). 둘째, 예배나 교리 탐구의 참여,

교회에서 주도하는 봉사활동에의 참여, 명상, 수행 및 기도 등의 종교활동 참여는 가족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내창, 2001). 기독교를 믿는 부부나 연인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친밀감과 관계 헌신도가 높았고(Fincham & Beach, 2014), 불교를 믿는 어머니의 신행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김혜순, 2007). 셋째, 종교적 자원은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변경애·김순옥, 1999; Pargament et al., 2005).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재혼한 부모와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였고(김형민·이은경, 2016),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자녀학대와 자녀에 대한 신체적 공격의 위험이 낮았다(Wiley, Warren, & Montanelli, 2002).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 부부, 부모 혹은 자녀 등의 표본을 사용하여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관계 또는 종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가족생활 영역들에서 종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연구들의 주제, 표본과 연구대상, 종교의 개념, 종교성의 측정,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표본과 표본추출방법, 종교성의 측정과 같은 방법론은 연구결과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 가정학분야에서 출판된 가족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교변인을 검토한 변경애와 김순옥(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 출판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고찰한 논문은 부재하다.

서구에서는 종교와 가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들(Mahoney, 2005, 2010; Mahoney et al., 2001; Thomas & Cornwall, 1990)을 지속적으로 출판해왔는데, 이는 종교와 가족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진보를 이뤄왔다. 미국 가족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는 각각 1990년과 2010년에 1980년대와 2000년대에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가족과 종교에 대한 연구 논문들의 출판경향, 주제, 방법론적 쟁점, 연구결과들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 논문들(Mahoney, 2010; Thomas & Cornwall, 1990)을 출판하였다. 또한 가족심리학의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Family Psychology*는 2001년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판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양적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Mahoney et al., 2001)를 출판하였는데, 이 논문은 종교성이 이혼, 전반적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정폭력, 가족기능, 양육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제시하고 종교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복합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학의 주요 학술지인 Journal of Social Issues도 2005년에 종교와 부부 및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임상적 적용과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 논문(Mahoney, 2005)을 출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족생활의 어떤 영역들에서 종교의 역할이 탐색되었고, 어떤 표본과 어떤 측정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주요 연구결과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검토 논문의 선정

검토 논문의 선정을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도서관 등의 목록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경험적 연구들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이에 는 종교를 가진 개인, 부부,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양적연구, 종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적연구, 종교 변인을 도입하지 않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탐색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통일교 등과 같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또한 가족생활은 발달적 접근에 기초해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계 및 가족과정 연구에 초점을 두는 가족학 분야(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0)에서 다루는 가족생활을 의미하였다. 이에 는 가족유형, 가족성립과 적응, 가족관계, 가족역할, 가족권력, 의사소통, 가족생활만족, 가족위기와 해체, 가족정책 등이 포함된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9). 그리고 발달단계 상으로 결혼준비, 결혼, 영유아기자녀 가족, 학령기

자녀 가족, 청소년기자녀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을 포함하였고 노년기 가족 연구는 제외하였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 개인의 발달, 심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적응, 죽음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연구가 거의 전무하였다. 한편 1999년 이전에 출판된 가족학 분야 논문들 중 종교변인을 도입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고찰연구(변경애·김순옥, 1999)가 이미 출판되어 본 연구는 1999년 이후에 출판된 논문들만을 검색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환자 가족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1999년 이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장애인 연구들 중 종교가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는 총 2편으로 검색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전공역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학, 교육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상담학, 신학, 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종교학, 청소년학 등의 신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 영역에서 해당 연구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교와 영성을 구분되지만 연결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영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종교와 영성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김동기, 2013). 대표적인 예로 종교심리학에서 종교와 영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Pargament와 동료들(2013)의 접근이 있는데, 이들은 영성을 성스러움의 추구, 종교를 영성도모가 주 목적인 종교적 전통이나 맥락 내에서 의미추구로 정의하여 종교를 영성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이들은 종교생활의 핵심은 영성이고 종교기관은 기관 구성원들이 성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교적 의식 및 예배에의 참석, 종교경전의 탐구, 종교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종교적 선의 추구 등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영성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고 하였다(Mahoney, 2010; Pargament et al., 2013).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성과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영성을 기독교, 천주교 등의 특정 종교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어(김덕일·송원영, 2011; 신승범, 2012) 영성이 종교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도 검색대상에 포함하였다.

2. 검색 어휘

연구논문의 검색을 위해 검색항목 전체, 주제어, 논문명, 저자, 초록 중 검색항목 전체에 가족생활을 표현하는 ‘가족’, ‘배우자 선택’, ‘결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 ‘남편’, ‘아내’, ‘아버지’, ‘자녀’, ‘양육’, ‘가족기능’, ‘의사소통’, ‘상호작용’, ‘폭력’, ‘이혼’, ‘재혼’, ‘한부모’ 등의 검색어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종교성’, ‘영성’ 혹은 ‘신앙’과 각각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3. 분석 준거

국내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에 미국의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184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Mahoney(2010)의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relational spiritual framework’와 국내외 종교와 성에 대한 44편의 양적 연구들을 고찰한 한내창(2007)의 ‘종교와 성태도·성행동의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국내의 연구 개관’에서 사용한 분석준거를 참고하였다. Mahoney(2010)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영역 별로 분류하고 영역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를 구분하여 연구결과와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논의하였다. 한내창(2007)은 표본과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들의 조사방법을 살폈고, 종교성 척도와 성행동·성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영역 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구결과 및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연구영역

연구영역은 Mahoney(2010)의 분류에 기초하여 가족형성 준비, 결혼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관계 전반, 가족기능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는 Mahoney(2010)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분류목록에 추가하였다.

(2) 상세 연구주제

상세 연구주제의 분류를 위해 Mahoney(2010)의 21개 상세 연구주제들을 사용하였고 21개 주제들 중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탐색되지 않은 상세 주제들을 제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구된 상세주제들(예, 양육불안, 부모역할지능, 가족강인성, 종교기반 프로그램 등)은 목록에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상세 연구주제는 배우자선택,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 결혼준비 프로그램, 결혼만족, 부부평등, 부부관계 전반, 결혼과 부부적응 및 갈등, 결혼여정,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 부모역할지능, 재혼적응, 가족강인성, 가족적응, 이혼의도, 결혼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기능의 22개로 분류되었다.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표본추출방법의 분류를 위해 한내창(2007)이 사용한 분류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은혜·이미리·박소연, 2006)을 사용하였다. 양적조사연구들은 확률표집과 비확률표집으로 구분하였고, 비확률표집은 편의표집, 목적표집, 눈덩이표집으로 분류하였다. 양적실험연구들은 연구설계에 있어 진실험설계인지 준실험설계인지를 파악하였고, 준실험설계연구들은 피험자들을 무선할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비무선할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들의 표집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질적연구들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나장함, 2012)으로 분류하였다.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양적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성의 측정과 질적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들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내창(2007)의 연구에 기초해 연구양적연구에서 어떤 종교 변인과 종교 변인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질적연구에서 종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5) 주요 연구결과

Mahoney(2010)의 분류에 기초해 각 연구 영역 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기술에 있어 종교적 특성과의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중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나 충분한 논의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III. 연구결과

1. 종교와 가족 연구 개요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41편이었고, 41편 연구들의 연구영역, 상세 연구주제,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영역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에서 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준비(N=5, 12.2%), 결혼과 부부관계(N=10, 24.4%), 부모자녀관계,(N=4, 9.8%), 부모역할과 양육(N=13, 31.7%), 가족스트레스와 적응(N=6, 14.6%), 가족관계 전반¹⁾(N=2, 4.9%), 가족기능(N=1, 2.4%)의 7가지 가족생활 영역에서 탐색되었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출판되었다. Table 1에 연구 영역과 영역 별 상세 연구주제와 출판된 논문 편수를 제시하였다.

Table 1 Areas and sub-areas of research and the number of research (N=41)

Areas of research	Sub-areas of research	N
Marriage preparation	Mate selection	2
	Interreligious marriage permissiveness	1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2

<continued>

1)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는 한 논문에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함께 살핀 연구를 의미한다.

Areas of research	Sub-areas of research	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2
	Marital equality	1
	Marital relations general	2
	Marital adjustment and conflict	4
	Marriage journey	1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child communication	2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1
	Parent-child conflict	1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Childrearing attitude	2
	Parental role satisfaction	1
	Childrearing stress and anxiety	5
	Parenting efficacy	1
	Directions of Christian education	1
	Parenting style	1
	Christian parenting perception and practices	1
	Parental role intelligence	1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Adjustment process of remarried families	1
	Family hardiness	2
	Family adjustment	1
	Divorce intention	1
	Marital satisfaction	1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
	KDF characteristics	1
Family functioning	Family functioning	1

(2) 상세 연구주제

각 영역 별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된 상세 연구주제는 다양하였다. 가족형성 준비 영역의 연구들은 배우자선택(N=2),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N=1), 기독교 혹은 비종교 기반 결혼준비프로그램의 효과성(N=2)에 대해 탐색하였다. 결혼과 부부관계 영역의 연구들은 결혼(불)만족(N=2), 부부평등(N=1), 부부관계 전반(N=2), 결혼과 부부적응 및 갈등(N=4), 결혼여정(N=1)에 대해 탐색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연구들은 부모자녀의사소통(N=2), 부모자녀만족도(N=1), 부모자녀갈등(N=1)을, 부모역할과 양육 영역의 연구들은 양육태도(N=2), 부모역할만족도(N=1),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N=5), 부모효능감(N=1), 기독교부모교육의 방향성(N=1), 자녀양육 스타일(N=1),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과 실천(N=1), 부모역할지능(N=1)에 대해 탐색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영역의 연구들은 재혼적응과정(N=1), 가족강인성(N=2), 가족적응(N=1), 이혼의도(N=1) 및 결혼만족도(N=1)을, 가족관계 전반 영역의 연구들은 가족관계만족도(N=1)와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N=1)을, 가족기능 영역의 연구는 가족기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들의 연구 영역 별 연구들의 표본추출방법과 표본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양적조사연구 25편 중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을 한 연구가 1편, 비확률표집 중 목적표집, 편의표집, 눈덩이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15편, 4편, 1편이었다. 그리고 표집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구가 4편이 있었다. 실험연구 6편은 모두 비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 10편 중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4편과 6편이었다.

표본을 종교 별로 보면 총 41편의 연구 중 기독교표본 연구가 32편, 통일교표본 연구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기독교와 불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혼합표본이 1편, 종교와 무교 표본이 1편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영역 별 표집방법과 표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준비에 대한 연구들 중 한 편의 연구가 확률표집법으로 전국의 성인표본(한내창, 2012)을, 나머지 연구들은 비확률표집법으로 기독교나 통일교 기독교 미혼 청년표본을 추출하였다. 후자의 연구들은 전문대학교 재학 중인 통일교 대학생들(문선애, 2012)과 대전(김광률·정현희, 2001)과 K시의 3개 교회들(경동진·조윤옥, 2014)에서 미혼 청년들을 표집하였다. 한 편의 질적연구(우원규·김수연, 2015)는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종교적 신념이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미혼 여성을 표집하였다.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양적연구들은 목적표집이나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기독교 부부나 기독교 여성을 표집하였다. 대전의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서동진, 2005), ENRICH 검사를 받은 기독교 부부(김덕일·송원영, 2011), 신학생 부부(김승희·김은영, 2014) 혹은 서울 K교회의 여성리더(조혜정, 2012)를 연구하였다. 질적연구들은 편의표

집이나 눈덩이표집을 통해 대학졸업 이상의 종교성이 일정정도 이상인 30-40대 기혼여성(이수인, 2007), 부교역자 아내(김애란·류혜옥, 2013),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집사 직분 이상인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부부(백정미, 2014), 중년기 목회자 아내(오정미·조성희, 2016),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기독교 기혼여성(심은정, 2014)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진, 2011)도 있었다.

Table 2 Areas of research, authors, sampling method, and sample (N=41)

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Marriage preparation	Kim, K.Y. & Chung, H.H.(2001)	Nonrandom	12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Moon, S.A.(2012) ¹⁾	Convenience	80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Sunmoon University
	Han, N.C.(2012)	Probability	1482 national sample from KGSS data
	Kyoung, D.J. & Joe, Y.O.(2014)	Nonrandom	20 Christian single recruited via 3 churches
	Woo, W.K. & Kim, S.Y.(2015) ²⁾	Snowball	24 Christian, Buddhist and Catholic single wome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Seo, D.J.(2005)	Purposive	139 Christian couples of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Lee, S.I.(2007) ²⁾	Snowball	15 married Christian women
	Kim, K.J.(2011) ²⁾	Snowball	12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Kim, D.I. & Song, W.Y.(2011)	Convenience	815 Christian couples who took ENRICH inventory
	Cho, H.J.(2012)	Convenience	228 middle aged Christian female leaders recruited via K church
	Kim, A.R. & Rhew, H.O.(2013) ²⁾	Convenience	8 Christian wives of junior pastors recruited via H church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Kim, S.H. & Kim, E.E.(2014)	No detailed info	100 Christian couples recruited via seminaries
	Paik, J.M.(2014) ²⁾	Snowball	20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Shim, E.J.(2014) ²⁾	Snowball	2 Christian married women
	Oh, J.M. & Cho, S.H.(2016) ²⁾	Snowball	7 middle aged Christian wives of pastors

<continued>

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Parent-child relationship	Park, I.K.(2007)	Convenience	187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 church
	Oh, T.K. & Kwon, K.K.(2011)	Snowball	145 Christian mothers and their 145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9 churches
	Lee, Y.H. & Park, J.H.(2011)	Purposive	292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0 churches
	Cho, H. J.(2015)	Purposive	269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churches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Chung, K.S.(2004) ¹⁾	Purposive	555 Christian parents recruited via Christian organizations
	Kim, H.S.(2007)	Purposive	561 Buddhist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8 Buddhist preschools
	Kim, K.H. & Lee, B.S.(2009)	Purposive	190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cruited via preschools
	Kim, H.S.(2009)	Purposive	172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5 preschools
	Hwang, O.J.(2009)	Nonrandom	26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Chung, H.J.(2011) ²⁾	Convenience	29 Christian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3 Christian preschools
	Shin, S.B.(2012)	Purposive	570 Christian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20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es
	Chung, I.S. & Chang, E.J.(2012)	Nonrandom	49 Christian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recruited via 1 church
	Chung, H.J.(2013)	Nonrandom	16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recruited via 1 church
	Kim, S.W.(2015)	No detailed info	252 Christian parents over age 20
	Lee, S.H.(2015) ²⁾	Convenience	3 Christian mothers who completed a parenting education
Park, A.K.(2016)	Purposive	111 Catholic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4 catholic churches and 5 preschools	
Bae, E.J.(2016)	Purposive	202 Christian fathers of school aged &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schools & churches	

<continued>

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Jeon, J.S.(2007a)	Purposive	406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middle and high schools
	Jeon, J.S.(2007b)	Purposive	969 Canadian, Korean Canadian, Kore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4 high schools
	Lee, H.K.(2008)	No detailed info	70 Korean Americans, 153 Koreans
	Yoo, H.S. & Song, J.A.(2009)	Purposive	288 Christian and Catholic adults contemplating divorce recruited via shelters and counseling service agencies
	Chang, S. & Kim, S.A.(2012)	Nonrandom	22 Christian victims of wife abuse recruited via social service agencies
	Kim, H.M. & Lee, E.K.(2016) ²⁾	Convenience	10 Christian mothers and adolescent from remarried families recruited via 1 church
Family relationships	Byun, K.A. & Kim, S.O.(2001)	Purposive	1110 Christian couples and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and schools
	Han, M.R. & Kim, J.C.(2005)	No detailed info	20 Christian and 20 non christian couples
Family functioning	Lee, J.S.(2014)	Purposive	343 Christian couples with children recruited via medium- and large-sized churches

1) Descriptive research, 2) Qualitative research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4편은 모두 양적연구로서 기독교 중·고등학생이나 기독교 모와 중·고등학생 자녀의 혼합 표본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은 서울의 1개 교회(박인곤, 2007), P시의 여러 교회들(오탈균·권재기, 2011; 이영희·박준하, 2011),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사역자가 담당하는 교회들(조혜정, 2015)에서 표집하였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자녀의 불교인 부모(김혜순, 2007)나 모(김경희·이복순, 2009; 김혜순, 2009; 황옥자, 2009),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갑순, 2004; 신승범, 2012), 초등생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인숙·장은정, 2012), 영·유아·초·중등학생 자녀의 기독교인 모(정희정, 2013), 영유아-청소년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김성원, 2015), 유아자녀의 천주교인 모(박애경, 2016), 초·중·고등생 자녀의 기독교인 부(배은주, 2016)를 표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 개 혹은 여러 지역의 교회, 교회기

관, 불교기관, 성당, 학교 등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질적연구 2편은 서울시의 3개의 유치원에서 기독교인 유아기자녀 모(정희정, 2011)와 이음부모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마친 청소년기 자녀 모(이수희, 2005)를 연구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양적연구들은 중·고등학생(전요섭, 2007a), 고등학생(전요섭, 2007b), 성인 기독교인(이현경, 2008), 이혼고려 중인 기독교·천주교 성인남녀(유향순·송정아, 2009)를 표본으로 하였고, 각각 캐나다 밴쿠버, 서울·안양의 고등학교, 서울과 안양의 중·고등학교, 미국 플로리다와 서울의 가족서비스 기관, 전국의 이혼법률상담소, 쉼터 및 상담소에서 표집하였다. 질적연구 한 편은 연구자가 속한 교회의 재혼가정 부모와 청소년(김형민·이은경, 2016)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양적연구들은 10개 시의 기독교부와 자녀(변경애·김순옥, 2001)와 K시의 기독교와 비기독교 부부(한미령·김종철, 2005)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이준선, 2014)는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표본을 서울, 경기, 대전에서 추출하였다.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가족형성 준비나 가족생활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양적연구가 24편, 종교가 가족형성 준비나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적연구가 10편이었다. 비종교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가 5편, 변수 간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실태조사가 2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신앙 몰입동기, 영성 등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성을 파악하였고, 질적연구들은 기독교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 종교·신앙·영성의 역할로 종교를 연구하였다.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한 24편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측정도구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N=5)를 제외한 19편의 양적연구들에서 종교성은 단일문항, 저자가 구성하거나 기존 문항들을 수정한 문항들,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다. 10편의 연구들에서 종교성이나 영성이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고, 6편의 연구들에서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5편의 연구가 명목척도, 한 편의 연구가 서열척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3편의 연

구들에서 종교성은 저자가 구성하거나 수정한 다문항들로 측정되었다.

Table 3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spirituality in quantitative research (N=24)

Areas	Authors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Measurements
Marriage preparation	Kim, K.Y. & Chung, H.H.(2011)	Christian-based marriage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Han, N.C.(2012)	Type of religion, Frequency of religious participation, other religious participation, and prayer, Self-assessed religiosity,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Religious exclusiveness	1 item for each variable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Kim, D.I. & Song, W.Y.(2011)	Spiritual satisfaction	Spiritual Satisfaction Items from Kim et al.'s Korean ENRICH Inventory(2009), 10 items
	Cho, H.J.(2012)	Faith maturity	Modified version of Lee's Faith Maturity Assessment Scale(2009), 45 items
Parent-child relationship	Oh, T.K. & Kwon, K.K.(2011)	Mother'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children at home, Children'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mother at home	3 items & 2 items the authors created
	Lee, Y.H. & Park, J.H.(2011)	Repentance, Salvation, Christian faith, Parental faith, Church attendance	1 item for each variable
	Cho, H. J.(2015)	Faith maturity	Modified version of Hwang's The Shepard Scale(2011), 30 items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Kim, H.S.(2007)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Practice of Buddhism	32 items & 29 items the author created
	Kim, K.H. & Lee, B.S.(2009)	Mindfulness	Park's Mindfulness Scale(2006), 20 items
	Kim, H.S.(2009)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Kim's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2006), 38 items
	Hwang, O.J.(2009)	Buddhism-based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continued>

Areas	Authors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Measurements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Jeon, J.S.(2007a)	Christian faith	1 item
	Jeon, J.S.(2007b)	Christian faith	1 item
	Yoo, H.S. & Song, J.A.(2009)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Allport & Ross(1967)' s I/E religiosity, 20 items
	Chang, S. & Kim, S.A.(2012)	Christian-based healing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Family relationships	Byun, K.A. & Kim, S.O.(2001)	Religious participation	40 items the author modified using various scales
	Han, M.R. & Kim, J.C.(2005)	Christian faith	1 item
	Family functioning	Lee, H.S.(2014)	Spiritual maturity

각 연구 영역 별로 사용된 종교성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준비 영역의 양적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신앙 몰입동기로 종교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종교유형은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내창, 2012: 140).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세 가지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응답은 월평균빈도로 환산되었다. 공적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드리러 가십니까?”, 기타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현재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교회, 성당, 절 등에서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기도빈도를 “귀하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한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한 편의 연구가 기독교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로 종교활동 참여를 파악하였다(김광률·정현희, 2001). 그리고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은 “귀하는 얼마나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믿음의 정도는 “귀하의 견해는 ① 어떠한 종교에도 특별한 진리는 없다 ② 대부분의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③ 오직 한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한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또한 종교·신앙의 몰입 동기는 본질적 및 비본질적 종교성으로 측정되었는데, 각각을 위해 “나에게는 오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①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②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 ③ 어렵거나 슬플 때 위안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④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한내창, 2012: 140)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한편, 질적연구는 종교가 참여자들의 이성교제, 결혼가치관, 사회관계에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하였다(우원규·김수연, 2015).

결혼과 부부관계 연구들 중 양적연구들은 종교성을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나 영성으로 파악하였고, 질적연구들은 신앙체계의 수용, 종교·신앙의 중요성, 사모 역할, 자원으로써 종교·영성으로 종교를 접근하였다. 양적연구들은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다케, 게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신앙성숙 척도(조혜정, 2012)와 한국판 ENRICH 척도 중 영적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김덕일·송원영, 2011)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들은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이수인, 2007; 심은정, 2014), 건강한 부부관계에 기여하는 요인들으로서 신앙의 역할(김경진, 2011), 사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심리적·역할 갈등(김애란·유혜옥, 2013; 오정미·조성희, 2016), 영적자원(백정미, 2014)에 대해 탐색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연구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앙활동의 정도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도입하였다. 모가 가정에서 하는 자녀를 위한 신앙 활동과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활동으로 구성된 신앙활동 척도(오태균·권재기, 2011),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 신앙성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신앙성숙 척도(조혜정, 2015)가 도입되었다. 또한 회개여부, 구원여부, 신급(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 부모신앙(부모양쪽, 부모한쪽, 부모신앙 없음), 교회출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 등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인들이 사용되었다(이영희·박준하, 2011).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양적연구들은 불교인 부모, 기독교인 부모, 천주교인 부모의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종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다차원 척도나 단일문항을 도입하거나 종교유형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종교성향과 영성을 측정하는 다차원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불교인 부모들의 종교성은 저자가 제작한 교리에 대한 이해도, 수행에 대한 이해도, 문화·관습적 이해도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불교사상 이해도 척도(김혜순, 2007), 저자가 제작한 계와 정으로 구성된 신행행황 척도(김혜순, 2007), 탈중심적 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으로 구성된 마음챙김 척도(김경희·이복순, 2009)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부모들의 영성은 불안, 과장하기, 실제 그대로 받아들임, 실망, 인상주의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영성평가 척도(신승범, 2012)로, 천주교 부모들의 신앙성숙은 교리충실도, 신앙과 생활의 일치도로 구성된

신앙성숙도 척도로 파악되었다(박애경, 2016). 또한 기독교인 부의 종교적 안녕감은 종교적 안녕감 척도(배은주, 2016)로 측정되었다. 이밖에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신앙경력(20년 미만, 10-29년, 30-39년, 40년 이상, 모태신앙), 교회직분(무,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목회자/사모, 기타), 신앙정도(좋지 않음, 좋은편 아님, 보통, 좋은편, 매우 좋음), 부부신앙(부부기독교인, 부만 기독교인, 모만 기독교인, 기타)이 사용되었다(김성원, 2015).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들은 종교 기반 프로그램의 참여(황옥자, 2009, 정인숙·장은정, 2012; 정희정, 2013)로 종교성을 측정하였다. 질적연구들은 양육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신앙의 역할(이수희, 2015)과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기독교부모교육의 방향(정희정, 2011)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들 중 양적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전요섭, 2007a, 2007b),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유향순·송정아, 2009), 기독교 전인격 프로그램 참여(장선·김순안, 2012)로 종교성을 측정하였고, 질적연구는 재혼적응에서 자원으로써 신앙의 역할로서 종교(김형민·이은경, 2016)를 탐색하였다.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활동의 참여 정도와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교성을 측정하였다. 종교활동 참여는 교회중심 종교 활동과 가정중심 종교 활동으로 구성된 종교활동 척도(변경애·김순옥, 2011)로, 신앙 유무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한미령·김종철, 2005)로 파악되었다.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척도인 영적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이준선, 2014).

한편 비종교변수를 사용하여 종교인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은 결혼예비 집단상담 프로그램(경동진·조윤옥, 2014), 자아상태(서동진, 2005), 원가족건강성과 갈등대처행동(김승희·김은영, 2014), 인터넷 사용동기(박인곤, 2007), 가족스트레스(이현경, 2008)를 예측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태조사로 통일교인들의 배우자선택(문선애, 2012)과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정갑순, 2004)가 있다.

2.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결과

(1) 가족형성 준비

종교유형은 미혼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선문대학교 재학 중인 통일교 학생들에게 동질혼의 선호도는 높았는데, 실태조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 중 67.5%가 배우자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77.5%가 통일교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문선애, 2012). 종교유형 별 종교적 동질혼의 선호도는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정도 종교적 신념이 있는 24명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미혼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연구에서도 탐색되었다(우원규·김수영, 2015). 기독교 미혼 여성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남성의 가족의 종교성까지 고려하였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 여성들은 타종교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남성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종교유형, 종교적 신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활동의 정도나 종교성향은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확률표집법을 통해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48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한내창, 2012)에서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는 종교 집단 내에서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질적·비본질적 종교성, 종교적 배타성 등의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불교인 집단에서는 종교성 변수들과 통제 변수들 모두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천주교 집단에서는 본질적 종교성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독교 집단에서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본질적 종교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종교적 배타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에게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미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결혼 준비 프로그램은 이들의 결혼준비도와 관계적 성숙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기독교적 원리를 적용한 결혼 준비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의 6쌍의 예비부부들은 참여하지 않은 6쌍의 예비부부들에 비해 사전·사후·추후 시기의 기독교적 성숙도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김광률·정현희, 2001). 그리고 비기독교 결혼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기독교 미혼 청년들

은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사전·사후 시기의 결혼준비도와 자기개념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경동진·조운옥, 2014).

(2) 부부관계

영성과 종교성은 여성이나 부부가 지각한 관계만족, 관계능력,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독교인 부부의 관계역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영성과 부부관계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 중 ENRICH 검사를 받은 20대 이상 기독교인 부부 815쌍의 연구에서 영적 만족도는 부부관계 만족도, 이혼고려 및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었다(김덕일·송원영, 2011). 영적 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관계에 더 만족하였는데,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관계, 자녀 양육, 가족친구, 역할관계, 커플친밀, 가족친밀, 커플유연, 가족유연 모든 부부의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영적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이혼고려도 낮았고, 가정폭력의 발생도 적었다. 또한 영성은 기독교인 부부의 관계능력에도 영향 미쳤는데, 신앙생활이 10년 이상인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10쌍의 기독교인 부부에게 영적 자원은 부부의 관계능력의 4가지 요소인 서로를 수용하는 능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대처 능력에 관여하면서 부부관계의 특성과 역동(성장추구형 부부, 극복노력형 부부, 성장필요성 부부, 갈등 지속형 부부)을 형성하였다(백정미, 2014). 한편 종교성과 부부관계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 중 228명의 기독교 중년 여성리더들에 대한 연구에서 신앙성숙도의 5가지 하위요인 중 케리그마(믿음 공동체 속에서의 말씀)와 디아코니아(공동체 내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부부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2012). 그리고 교역자 아내들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연구(오정미·조성희, 2016)에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부부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모역할에서 벗어나 남편과 영적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균형 잡힌 목회자 부부모델의 부재, 목회자 아내의 삶이 고되고 힘듦, 남편에 대한 실망과 갈등이 생김, 갈등대처방식의 미숙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통한 치유와 회복, 남편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 변화를 위한 노력, 및 남편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교역자 아내로서의 어려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오정미·조성희, 2016: 222).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

교 중년기 부부의 혼합표본 자료에서 신앙은 행복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김경진, 2011).

종교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교역자 아내에 대한 질적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과 부교역자의 아내라는 특수한 역할로 인해 심각한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부교역자의 아내들은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교역자 남편으로 인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혼자 챙겨야 하지만 어려움을 남편에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김애란·류혜옥, 2013).

기독교의 가부장적 교리와 신앙체계는 기혼 여성들의 부부평등 의식과 실천이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하였다. 종교성이 깊은 15명의 중산층 대졸 기독교 여성들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석은 남편 우위형, 혼합형, 실질적 평등형의 부부평등 유형에 따라 달랐다(이수인, 2007). 남편 우위형과 혼합형 부부관계의 여성들은 신앙을 삶의 가부장적 실재와 이에 대한 인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실질적 평등형 부부관계의 여성들은 교리체계를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편의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부장적 교리는 부부평등성 인식과 실천뿐 아니라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명의 기혼여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통한 현모양처상의 내면화, 영적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형성된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혼생활에서 변화되는데, 이들은 교회에서 강조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범적인 아내 상과 사회문화적으로 대두되는 행복한 아내 상을 통합하면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심은정, 2014).

한편 자아상태와 원가족 건강성 및 갈등대처행동과 같은 비종교변수들이 기독교인 부부의 결혼만족과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되었다. 중년기 기독교 부부 138쌍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자아상태는 비판적 아버지 자아, 양육적 아버지 자아, 어른 자아, 순응적인 어린이 자아로 분류되었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아상태가 매우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 결혼불만족과 갈등이 높았다(서동진, 2005). 또한 결혼 7년 미만의 신학생 부부 100쌍에게 원가족 건강성과 대처방식은 결혼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김승희, 김은영, 2014). 아내와 남편 모두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적응 수

준이 높았다. 그리고 남편이 외부도움요청을 사용하고, 회피방법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았고 아내의 대처방식은 결혼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가족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았다.

(3) 부모자녀관계

종교성의 측정방법과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갈등,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이 규명되었다. 292명의 기독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탐색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회개여부, 구원여부, 신급, 부모신앙의 여부, 교회출석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영희·박준하, 2011). 자녀의 회개유무는 부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회개를 한 집단에서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았고 폐쇄적 의사소통이 낮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집단에서 부모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았고, 폐쇄적 의사소통이 낮았다. 신급(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에 따라 부와 모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신앙(부모양쪽, 부모 한쪽, 두 분 신앙 없음)에 따라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양쪽이 신앙이 있는 집단이 신앙이 없는 집단보다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았다. 교회출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에 따라 부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종교성과 부모자녀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은 기독교 중·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에 영향 미쳤다(조혜정, 2015). 신앙경력이 주일학교 5년 이하인 청소년 집단이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5년 이상인 집단 보다 생활규칙과 영상매체 영역에서 모와의 갈등이 높았고, 주일학교 5년 이하가 모태신앙과 주일학교 5년 이상 집단보다 생활규칙과 학업진로 영역에서 부와의 갈등이 높았다. 한편 중·고등학생 자녀와 모 145쌍에게 수집한 자료로 신앙활동과 자녀와 모가 인지한 모-자녀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에 기초해 분석한 연구에서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는 관계만족의 하위영역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오태균·권재기, 2011). 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대방의 신앙활동 보다 본인의 신앙활동이 모-자녀 관계의 심리내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모의 신앙활동은 자신과 자녀의 심

리의적 만족에 영향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의 신앙활동은 자녀와 모의 심리외적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또한 모의 신앙활동은 자녀가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 보다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고, 자녀의 신앙활동은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보다 모가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비종교 독립변수를 도입한 연구에서, 187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정보추구나 환경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오락 및 시간 때우기와 개인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소극적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박인곤, 2007).

(4) 부모역할과 양육

부모의 종교성과 부모역할 간의 관련성은 경상북도와 충청도 소재 유아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유아기 자녀의 불교인 모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에 대한 연구들에서 규명되었다. 먼저 불교인 모의 종교성은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로 측정되었는데, 신행생활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종교적 수행을 의미한다(김혜순, 2007). 이 연구에서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의 점수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신행생활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 아버지들의 아동기 때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배은주, 2016), 관계경험은 종교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종교적 안녕감은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동기 때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한편 부모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불안, 양육태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자녀양육스타일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먼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결과변수로 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거나 종교기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마음챙김 수준은 종교가 있는 모에게서 높았고, 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낮았다(김경희·이복순,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관과 기독교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모의 학습관련 자녀양육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들은 사전·사후시기에 양육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정인숙·장은진, 2012). 또한 북한이탈 주민 기독교 어머니들이 남한에서 겪는 심리 내면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 및 원인을 인식하고 성경적 방식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자녀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자녀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정희정, 2013).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한 연구에서, 모의 기질적 특성, 부모의 내적·외적 욕구 요인, 부모의 건강요인 등의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부간 갈등 요인, 고부간 갈등요인 등의 부모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또래 관계, 자녀의 형제관계요인 등의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정희정, 2011).

양육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과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천주교 어머니들에 대한 연구에서 천주교 신앙성숙과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종교기반 부모교육과 상담의 참여는 기독교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을 낮추었다. 경기도의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 유아기 자녀의 모 111명의 자료에서 신앙성숙도와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박애경, 2016).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에 대한 질적연구(이수희, 2015)에서 양육불안을 높이는 요인들로 원가족과의 분화수준이나 분리불안, 모의 완벽주의 성향이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음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성경적 상담을 받은 이후 양육불안이 감소되었고, 가족관계도 회복되고 영적 성숙도 이뤄졌다.

한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불교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불교인 부모들과 영아기자녀의 기독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경상북도 1곳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불교 어머니들에게 붓다의 수행법인 명상과 사무량심을 불교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5개 중 민주적 태도, 의도적 무관심 태도, 및 자율적 태도에서 향상이 있었다(황옥자, 2009). 그리고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온정적이었고, 가정에배를 드리는 가정이 11.2%,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부

모는 48.5%,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는 9.9% 등이었다(정갑순, 2004).

이 외에 기독교 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양육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기독교인 부모 252명의 기독교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되고, 교회에서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분일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독교인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및 총점이 높았다(김성원, 2015). 또한 경북 중소도시의 불교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자녀가 있는 불교인 어머니들 172명의 자료에서 불교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인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과 전체 효능감에서 높게 나타났다(김혜순, 2009). 그리고 5개 도시 기독교 성결교회 소속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570명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권위형 양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 하나님을 불신, 영적인 만족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지배형 양육방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신승범, 2012).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종교와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련성은 이혼, 재혼, 가정폭력을 겪은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가족을 대상으로 종교 변수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원으로서 종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해 탐색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 성인남녀 288명에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대처양식, 분노 및 용서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유향순·송정아, 2009),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에 따라 변수들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외재적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와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갈등대처양식은 그렇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나 용서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갈등대처방식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종교는 적응에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이들은 사랑, 용서, 이해를 중심으로 돌봄과 의사소통 및 영성을 포함한 기독교 전인격적 치유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후 자이존중감, 사회적응능력,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장선·김순안, 2012). 한편 자원으로서의 영성과 신앙공동체의 도

움은 기독교 재혼가정의 적응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이었다(김형민·이은경, 2016). 재혼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전의 결혼에서 나타났던 외도나 폭행 등의 심각한 부부위기사건들을 재혼 이후에도 경험하였고, 계자녀의 문제와 갈등으로 결혼의 해체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신앙생활을 통한 치료적 관계의 형성으로 재혼적응을 도모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위유형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가족강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적이었다. 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이민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유무에 따라 부모의 권위유형과 강인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전요섭, 2007b).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는 캐나다 청소년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경우는 캐나다 한인 청소년이 아버지를 독재적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캐나다의 청소년이, 신앙이 있는 경우 한인 청소년이 어머니를 독재적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캐나다 청소년과 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였고, 한국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을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였다. 서울과 안양의 기독교 중·고등학생 남녀 406명의 자료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위유형의 영향은 가족 강인성의 하위요인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전요섭, 2007a).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권위유형과 신앙의 유무는 가족강인성의 하위영역인 협동심과 자신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통제감에는 영향 미치지 않았다.

(6) 가족관계 전반

종교활동이나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측정된 종교성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었다. 10개 시 30대 이상 기독교 부부와 자녀 1110명에게 수집된 자료에서 종교활동 중 가정중심의 종교활동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변경애·김순옥, 2001).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정소득, 자아개념의 모델에 교회중심 및 가정중심 교회활동을 추가하여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모형에서, 아내 모델은 6.3%, 남편 모델은 6.0%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정중심 종교활동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활동 변수를 추가해 모자관계를 분석한 모형에서 어머니 모델은 2.5%, 자녀 모델은 2.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정중심 종교활동은 어머니의 모자관계 만족도와 자녀의 모자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교회중심 종교활동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모자녀 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 미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적가족화 자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이 분석되었는데, K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10쌍의 부부와 신앙이 없는 10쌍 부부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그림의 크기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한미령·김종철, 2005).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자녀를 더 크고 좋게 그려 기독교인이 자녀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배우자를 더 크고 좋게 그려 비기독교인이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이 배우자에 대해 평가한 점수보다 남성이 배우자에 대해 평가한 위치점수가 낮아 여성이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가족기능

서울, 경기, 대전의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에게 수집한 자료로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성숙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가족기능성에 영적 성숙도를 매개로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이준선, 2014).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으로의 직접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고, 원가족 경험이 영적 성숙도로의 직접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영적 성숙도도 높았다. 또한 영적 성숙도에서 가족기능성의 직접경로에서 영적 성숙도가 좋을수록 가족기능성이 높았고, 원가족 경험에서 영적 성숙도를 거쳐 가족기능성으로의 간접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영적 성숙도가 높았고,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개관하여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41편의 연구들을 연구영역에 따라 분류하였고, 연구영역 별로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영역 별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한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형성 준비

가족형성 준비에 대한 연구들에서 종교가 배우자 선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 결혼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탐색되었다. 종교유형, 믿음의 정도, 종교성향 등에 따라 배우자 선택과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 배우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한내창, 2012).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기독교적 결혼생활이나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들은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종교기반 혹은 비종교기반 결혼준비 프로그램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분석절차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기반 결혼준비프로그램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준비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메타분석연구는 프로그램들의 전체효과 크기 및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효과 변수들, 운영특성(프로그램 회기, 참여한 인원의 수,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등에 따른 효과크기를 파악하게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과 부부관계

종교는 부부관계의 역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인 부부들의 영적만족도는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 미쳤고, 기독교인 기혼 여성

의 신앙성숙도는 부부적응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교역자 아내들에게 역할갈등이나 교역자 아내들에게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천이었지만 갈등해결의 자원이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는 평등의식이 있는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관계의 역동이나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표본과 통계분석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교가 부부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먼저 영적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영적 만족도 수준과 직업군에서 편향이 높은 표본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0편의 연구 중 3편의 질적 및 양적 연구들이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1개 교회나 특정 목적이 있는 모임을 통해 편의표집을 하였는데, 이 표집법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권장되지 않은 표집법이다. 우리나라에서 확률표집에 기초한 대단위 사회조사들 중 종교와 부부관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역동이나 상호작용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표본추출의 오류가 연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부부관계와 종교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왜 특정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나장함, 2012).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질적연구들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이나 종교성이 깊은 여성들을 주로 연구참여자로 하고 있어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의 여성들이나 종교성이 낮은 여성들의 종교와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아시아계 여성이민자들이 부부관계에서 종교교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질적연구들(Chan, 2005; Kim, 2010)은 종교경험이 사회경제적 맥락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맥락과 종교경험과 부부관계의 복잡한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부부관계와 종교에 대한 연구로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적 영성의 한국적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편·아내·여성 각자의 종교활동 참여 정도나 믿음의 정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왔는데,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관계적 종교 변수가 무엇이지를 규명하는 것은 연구뿐 아니라 임상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서구에서 발전된 관계적 영성 관점(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에 기초한 연인·배우자중심 기도(Partner-focused prayers)에 대한 연구들

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계적 영성 관점은 연인·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적 신념과 행동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Mahoney, 2010, 2013). 연인·배우자중심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심리내적 의사소통 과정과 연인·배우자의 안녕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종교 구인이다(Mahoney and Cano, 2014).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연인·배우자 중심 기도의 긍정적 영향이 규명되고 있는데, 미국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연인중심 기도는 관계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또한 흑인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 중심 기도는 자신의 결혼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관계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도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중심 기도는 배우자의 결혼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의 관계만족도의 완전매개 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부부관계의 적응을 촉진하는 관계적 종교 변수들을 탐색하고, 종교 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부부교육이나 부부문제에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측정된 종교성은 중·고등학생 자녀 혹은 중·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인지한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에 미쳤지만, 이 연구들에서 한계점들이 발견되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1개 교회에서 편의표집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회개유무, 구원여부, 신급, 교회참석 정도, 신앙경력으로 종교성을 측정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들이 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회개유무와 구원여부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신급의 응답범주를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로, 부모신앙을 부모양쪽 신앙, 부모한쪽 신앙, 부모신앙 없음으로, 교회출석을 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로 나눈 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모-자녀의 커플 자료를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을 도입한 연구는 의의가 매우 크지

만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교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선정과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연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도 있었다. 향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성 측정도구의 선정과 연구에 포함되는 변인들의 선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적합한 종교 변인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서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성화(Sanctification)’는 우리나라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화는 인간이 종교적 가르침에 기초해 사물, 시간, 가족관계, 일, 사건, 사람 등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성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Pargament et al., 2005). 기독교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준 선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부모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신성화의 대표적인 예이다(Bartkowski and Ellison, 1995). 서구에서 신성화를 도입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Manifestation of God Scale)나 신성화 척도(Sacred Qualities Scale)를 사용해왔다(Pomerleau et al., 2015).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표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는데, 이는 하나님(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자녀관계에서 하나님(신)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14문항을 7점 응답범주로 측정하는 이 척도는 “하나님은 나와 어머니/아버지/자녀와의 관계에 임재한다.”,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또한 신성화 척도는 부모자녀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는지를 평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거룩한-거룩하지 않은’, ‘영적-세속적’, ‘기적 같은-생물학적’과 같은 형용사 짝으로 응답내용을 제시하고 7점 척도로 정도를 파악한다(Murray-Swank et al., 2006). 향후 하나님의 임재척도나 신성화 척도와 같이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통한 검증에 기초한 종교성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관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시도들은 종교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4편의 연구들 중 3편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종교의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높다는 점에서 부모가 부

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종교성은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만족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종교의 역할을 심도깊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부모역할과 양육

종교와 부모역할과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영유아기 자녀 부모들이나 초·중·고등학교 자녀 부모들의 종교성이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종교가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에게 깊이 자리 잡힌 종교성의 정도를 파악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Holden, 2001)에서 다차원 척도로 측정된 신앙성숙, 종교적 안녕감, 신행생활, 불교이해도는 부모양육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주형으로 측정된 종교유형, 신앙경력, 교회직분, 신앙정도와 같은 척도는 부모역할과 양육에서 종교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들 중 통제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전·사후시기의 평균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결론내리거나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문항들을 자의적으로 만들거나, 분석절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

불교를 가진 부모들에 대한 연구의 저자들은 직접 구성한 문항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화 작업을 거친 불교 종교성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대부분의 종교성 척도는 기독교 문화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정승국, 2014; 한내창, 2001) 불교인의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들은 기독교와 달리 공적 종교활동이 거의 부재하여 기독교를 기반으로 개발된 종교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불교인들의 종교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한내창, 2001; 한국갤럽, 2015). 최근에 정승국(2014)에 의해 개발된 불교 종교성 척도는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였는데, 이 척도는 불교원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 해는 불교원리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이, 불교원리에 따른 실천 수행을 의미하는 행, 수행을 통한 궁극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증을 포함한다. 불교 종교성 척도는 향후 불교인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신성화를 활용한 연구들은 기존의 자녀양육 연구들에서 나타난 이론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자녀의 부모들이나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같이 역경에 처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떻게 종교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이 위기를 겪을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뤄졌는데, 종교는 기독교 재혼가정, 이혼을 고려 중인 성인남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적응에 도움을 제공하였고, 비록 캐나다 이민 가족의 청소년, 미국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의 유무와 가족강인성 간의 관련성은 다소 복잡적이었지만 종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교성을 측정된 연구들은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표본추출 과정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종교는 가족이 위기를 겪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종교적 자원이나 대처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은 향후 가족연구에서 종교의 다양한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2년 이상 병원에 입원한 55세 이상 환자들의 건강과 종교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중단 연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현재의 역경을 하나님의 체벌로 인식,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인지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대처방식은 사망률을 예측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들과 의료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은 사망률의 위험을 22-33% 높였다(Pargament et al., 2001). 이는 종교가 인간의 삶에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argament et al., 2005).

종교는 인간이 곤혹스러운 생애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한내창, 2001).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나 소망을 갖거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앙공동체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Pargament, 1997). 종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위기 시 핵심적인 자

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탐색한 재혼, 이민, 폭력과 같은 가족사건 이외에도 가족원의 사망, 질병, 부모기로의 전이, 장애, 실직, 재해, 중독, 심각한 부부갈등, 자녀의 문제행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역경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종교와 가족연구에 한 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족관계 전반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와 가족관계만족도와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 지각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변경애와 김순옥(2001)의 연구는 대규모의 표본으로 교회중심 종교활동과 가정중심 종교활동을 포함하여 종교활동을 측정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종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종교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탐색을 통해 종교의 복합적인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가르침은 긍정적인 가족관계로도 모호하지만,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수용방식은 다양한 가족관계의 양상이나 특성을 가져온다(Mahoney, 2005). 가정폭력에 대한 서구 연구들에 의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나 배우자는 종교적 가르침을 자신의 병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Mahoney and Tarakeshwar, 2005),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종교적 교리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Nason-Clark, 1997). 종교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교와 사회적 맥락과 가족관계의 복잡한 관련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논문들의 개관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내적 상호작용과 관계 및 역동과 관련된 가족생활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과 중요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의 상세 연구 주제, 표본추출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구결과 등을 고찰함으로써 종교의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영역들에서 표본추출 방법과 표본의 편향, 종교성 측정도구와 통계적 분석에서의 문제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동안 다양한 가족생활 영역들의 연구들은 종교는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결코 간과될 수 없고, 가족의 건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종교와 가족 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색과 방법론적인 진보를 통해 전 시대의 연구들이 규명한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한 층 더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경동진 · 조윤옥 (2014). 기독교청년의 결혼준비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천과 신학**, 41, 353-386.
- [Kyoung, D. J. & Joe. Y. (2014).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marital preparation of the christian adolescent. *Theology and Praxis*, 41, 353-386.]
- 김경희 · 이복순 (2009).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정서안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3(2), 333-362.
- [Kim, K. H. & Lee, B. S. (2009). The effects on breeding stress through the emotional stability and mother's mindfulness.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3(2), 333-362.]
- 김광률 · 정현희 (2001). 기독교인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연구**, 2(2), 181-196.
- [Kim, K. Y. & Chung, H. H.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arriage prepa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 181-196.]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9-48.
- [Kim, K. J. (2011). A research on factors contributing to healthy relationships in midlife coupl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9-48.]
- 김동기 (2013). **종교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Kim, D. K (2013).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Religious Behavior*. Seoul: Hakjisa.]
- 김덕일 · 송원영 (2011).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49-70.
- [Kim, D. I. & Song, W. Y. (2011). K-Enrich: spiritual power on marriag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49-70.]
- 김성원 (2015).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영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 **기독교교육정보**, 45, 27-49.
- [Kim, S. W. (2015). Differenc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perceptions of Christian parenting and parenting practices through parental and spiritual variable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27-49.]
- 김승희 · 김은영 (2014). 신학생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

-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79-102.
- [Kim, S. H. & Kim, E. Y. (2014). The effect of seminary student couples' family origin and coping behaviors on marit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4), 79-102.]
- 김애란·류혜옥 (2013). 교회 부교역자 아내의 역할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2), 35-74.
- [Kim, A. R. & Rhew, H. O.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role conflict of assistant pastor's wif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4(2), 35-74.]
- 김형민·이은경 (2016).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2), 243-269.
- [Kim, H. M. & Lea, E. K. (2016). Study on the parents of remarried families and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ir teenage children: focusing on Christian remarri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2), 243-269.]
- 김혜순 (2007). 신행의 이사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찰 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5, 171-188.
- [Kim, H. S. (2007). The effects of practice of Buddhism on parenting satisfaction: centered on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in temples' kindergarte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 171-188.]
- 김혜순 (2009). 집착정도와 불교 이해도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불교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3, 359-388.
- [Kim, H. S. (2009). The effects of the levels of clinging and the understanding of Buddhism on their parenting efficacy: centered on mothers whose preschoolers were enrolled in Buddhist Kindergarten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53, 359-388.]
- 나장함 (2012). 교과교육과 수업 연구에서 질적 접근: 질적 연구 샘플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3, 75-105.
- [Na, J. H. (2012). A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cusing on sampling strategies for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 Research*, 53, 75-105.]
- 문선애 (2012). 통일교 축복가정자녀의 배우자선택 유형변화와 그 의미. **신종교연구**, 26, 269-288.
- [Moon, S. A. (2012). Pattern change and its meaning of spouse choice by the children of the blessed families of the unification. *Journal of New Religions*, 26, 269-288.]
- 박애경 (2016). 카톨릭신자 어머니의 신앙성숙도와 양육불안 간의 관계연구. **유아**

교육학논집, 20(5), 467-484.

[Park, A. K. (2016).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spiritual maturity with Catholic mot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5), 467-484.]

박인곤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실태 상관관계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16, 207-230.

[Park, I. 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ge of adolescents and Korea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styl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6, 207-230.]

배은주 (2016).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기능에 미치는 영향: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2), 125-147.

[Bae, E. J. (2016). The effect of Christian father's Childhood experiences and parent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s of religious well-being. *Faith & Scholarship*, 21(2), 125-147.]

백정미 (2014). 기독교인 부부관계요인과 영적자원의 역동적 상호작용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03-134.

[Paik, J. M. (2014). A research on interaction of spiritual resource and relational factors in Christian marital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 103-134.]

변경애 · 김순옥 (1999). 가족연구에 나타난 종교변인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07-129.

[Byun, K. A. & Kim, S. O. (1999). A review of religious variables in family studies: focus on Home Economic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2), 107-129.]

변경애 · 김순옥 (2001). 개신교 기혼여성의 종교활동이 가족원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33-49.

[Byun, K. A. & Kim, S. O. (2001). The effect of protestant married women's religious activity on family members' relation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9(5), 33-49.]

서동진 (2005).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결혼불만족과 자아상태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6(2), 645-664.

[Seo, D. J. (2005). A study on marital distress and ego-gram of Christian middle age couples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6(2), 645-664.]
- 송현동 (2008). 가족구성원의 종교분포가 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상제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77-97.
- [Song, H. D. (2008). The effects of distribution of religions of family make-up upon family conflict. *Studies in Religion*, 50, 77-97.]
- 신승범 (2012). 부모의 관계적 기독교 영성과 그들의 자녀 양육방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317-343.
- [Shin, S. B.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christian spirituality and parenting styles among evangelical Korean christian parent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317-343.]
- 심은정 (2014). 30대 기독교인 여성의 결혼여정에 대한 사례연구: 심리사회영역 영역의 역동적 만남.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35-165.
- [Shim, E. J. (2014). Two Christian women's marital journey from psychosocial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 135-165.]
- 오정미·조성희 (2016). 목회자 아내의 부부 적응에 관한 심리적 현상연구: 부부 적응도가 높은 중년기 목회자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1), 197-230.
- [Oh, J. M. & Cho, S. H. (2016). The effect of narrative therapy on adolescent drop out crisi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7(1), 197-230.]
- 오태균·권재기 (2011). 신앙활동을 통한 의사소통이 모-자녀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형을 이용한 해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28, 191-223.
- [Oh, T. K. & Kwon, J. K. (2011). The effect of relational satisfac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by communicating through spiritual activity: the application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using multi-level model.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8, 191-223.]
- 우원규·김수연 (2015). 배우자 선택시 고려하는 종교의 의미: 종교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01-125.
- [Woo, W. K. & Kim, S. Y. (2015). Mate selection considering religion mainly with women who is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y. *Family and Culture*, 27(3), 101-125.]
- 유향순·송정아 (2009). 종교성향에 따른 분노와 용성 및 갈등 대처양식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141-186.

- [Yoo, H. S. & Song, J. A. (2009). The effect of anger, forgiveness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religiosity on divorce inten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8, 141-186.]
- 이수인 (2007). 부부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재구성, 신앙의 수용방식과 역할: 보수주의 개신교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4), 1-44.
- [Lee, S. I. (2007). Reconstruction of the perception and reality of conjugal equality, the accepted ways and role of belief: based on conservative protest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9(4), 1-44.]
- 이수희 (2015). 부모교육과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본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상담*, 23(2), 255-289.
- [Lee, S. H. (2015). Qualitative case study of mothers' anxiety on parenting based on parenting educa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3(2), 255-289.]
- 이영희·박준하 (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189-210.
- [Lee, Y. H. & Park, J. H.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image of God which perceived by Christian youth according to the faith-related variation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189-210.]
- 이은혜·이미리·박소연 (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Lee, E. H., Lee, M. R. & Park, S. Y. (2006). *Research methods for child studies*. Seoul: Hakjisa.]
- 이정덕·전미경 (1995).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99-213.
- [Lee, C. D. & Jun, M. K. (1995). A study for the religious conflict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4), 199-213.]
- 이준선 (2014). 기혼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157-195.
- [Lee, J. S. (2014).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f married christians on family functioning with spiritual maturity as a parameter variabl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1), 157-196.]
- 이현경 (2008). 한국 기독교 문화권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연구: a test of causal model. *상담학연구*, 9(1), 295-304.

- [Lee, H. K. (2008). Family stresses and adjustment of Korean Christian cultural families: a test of causal mode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1), 295-304.]
- 전요섭 (2007a). 청소년의 아버지 권의유형과 기독교 신앙에 따른 가족강인성. **청소년학연구**, 14(1), 189-212.
- [Jeon, J. S. (2007b). Family hardiness by fathers' authority style & the Christian faith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Studies*, 14(1), 189-212.]
- 전요섭 (2007b). 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한인 청소년 및 한국 청소년 간 부모권위 유형 인식 및 기독교신앙 상태에 따른 가족강인성. **청소년학연구**, 14(2), 139-165.
- [Jeon, J. S. (2007a). Family hardiness by parental authority and the Christian faith of Korean adolescence, Korean adolescence in Canada, and Canadia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39-165.]
- 정갑순 (2004). 기독교가정 영·유아 부모자녀 양육에 대한 실태조사. **유아교육학논집**, 8(3), 171-203.
- [Chung, K. S. (2004). A study on investigation of parents hav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Christian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8(3), 171-203.]
- 장선·김순안 (2012). 기독교 원리를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7(3), 245-269.
- [Chang, S. & Kim, S. A. (2012).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 esteem, soci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female family violence victims. *Faith & Scholarship*, 17(3), 245-269.
- 정승국 (2014). 불교적 종교성 척도 개발 연구. **불교학연구**, 41, 217-242.
- [Jung, S. G. (2014). Development of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Buddhist religiosity, *Journal for Buddhist Studies*, 41, 217-242.]
- 정인숙·장은진 (2012). 학습관련 자녀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독서활동 중심의 기독교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예비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203-237.
- [Chung, I. S. & Chang, E. J. (2012).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parents to decrease learning-related parenting stress focused on reading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3), 203-237.]
- 정희정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신앙과 학문**, 16(4), 195-222.
- [Chung, H. J. (2011). A study on directions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child care stress of christian mothers havi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Faith & Scholarship*, 16(4), 195-222.]
- 정희정 (2013).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2), 135-171.
- [Chung, H. J.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hristian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North Korean defectors. *Faith & Scholarship*, 18(2), 135-171.]
- 조혜정 (2012). 기독교 중년 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32, 97-122.
- [Cho, H. J. (2012). The effects of Christian midlife women's faith maturity on marit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2, 97-122.]
- 조혜정 (2015). 청소년의 자율성 관련 부모 갈등과 신앙성숙과의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47, 27-53.
- [Cho, H.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hildren conflicts on autonomy and faith maturi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7-53.]
- 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3).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서울: 교문사.
- [Korean Family Counseling Institute (2013). *Family Studies*. Seoul: Kyomunsa.]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9). **가족학**. 서울: 하우
- [Association for Korean Family Studies (1999). *Family Studies*. Seoul: Hau.]
- 한국갤럽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제 5차 비교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Gallup Korea (2015). *The religion of Koreans 1984-2014*. Seoul: Gallup Korea.]
- 한내창 (2001).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193-215.
- [Han, N. C. (2001). Evaluation of I/E and other religiosity measur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5(6), 193-215.]
- 한내창 (2007). 종교와 성태도·성행동의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국내외 연구 개관. **종교연구**, 57, 31-55.
- [Han, N. C. (2007). A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on the effects of religion on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Studies in Religion*, 57, 31-55.]

- 한내창 (2012). 종교성과 타종교와의 결혼 허용도. *한국사회학*, 46(1), 130-155.
- [Han, N. C. (2012). Religiosity and interreligious marriage permissivenes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1), 130-155.]
- 한미령 · 김종철 (2005). 기독교신자 부부와 비신자 부부의 동적 가족화 특성 비교. *재활심리연구*, 12(1), 135-154.
- [Han, M. R. & Kim, J. C. (2005). The comparison of the KFD characteristic between the Christian and non-Christian couple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2(1), 135-154.]
- 황옥자 (2009). 불교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29, 1-17.
- [Hwang, O. J. (2009).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based on Buddhism on mothers' self-concept and their rear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 1-7.]
- Bartkowski, J and C. Ellison (1995). Divergent models of childbearing in popular manuals: conservative protestants vs. the mainstream experts. *Sociology of Religion*, 56, 21-34.
- Brelsford, G and S. Righi (2013). Grateful and sanctified: exploring the parent-child conflict. *Journal of Family Issues*, 36(12), 1575-1594.
- Chan, C (2005). A self of one's own: Taiwanese immigrant women and religious conversions. *Gender and Society*, 19(3), 336-357.
- Fincham, F. and S. Beach (2014).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praying for partner increases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5), 587-593.
- Holden, G (2001). Psychology, religion, and the family: that's time for a reviv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657-662.
- Kim, S (2010). Korean American women navigating marriage through evangelical Christiani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5), 735-748.
- Mahoney, A (2005). Religion and conflict in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689-706.
- Mahoney, A (2010).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a 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805-827.
- Mahoney, A, K. Pargament, N. Tarakeshwar. and A. Swank (2001). Religion in the home in the 1980s and 1990s: a meta-analytical review and conceptual

- analysis of links between religion, marriage, an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559–596.
- Mahoney, A. K. Pargament A. Murray–Swank and N. Murray–Swank (2003). Religion and the san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4(3), 220–236.
- Mahoney, A. and N. Tarakeshwar (2005). Religion’s role in marriage and parenting in daily life and during family crises.” in Paloutzian, R. and C. Park. (Ed.) (2005).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New York and London: Guildford Press.
- Mahoney, A. and A. Cano (2014).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family life: delving into relational spirituality for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735–738.
- Murray–Swank, A, A. Mahoney and K. Pargament (2006). Sanctification of parenting: link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arental warmth among biblically conservative and liberal moth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6(4), 271–287.
- Nason–Clark, N (2013). *The Battered Wife: How Christians Confront Family Violence*. Louisville: John Knox Press.
- Pargament, K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Pargament, K. H. Koenig, N. Tarakeshwar and J. Hahn (2001). Religious struggles as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medically ill elderly pati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s*, 161, 1881–1885.
- Pargament, K. G. Magyar–Russell and N. Murray–Swank (2005). The sacred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religion as a unique Pro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665–687.
- Pargament, K. A. Mahoney, J. Exline, J. Jones and E. Shafranske (2013). Envisioning an integrative paradigm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Pargament, K. (Ed.) (2013). *APA Handbook of Psychology, Religion and Spirituality* (vol 1.): Context,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omerleau, J. W. Wong, and A. Mahoney (2015). Sanctification: a meta-analytic review. *Newsletter of Division 36, Society for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39(1).

Thomas, D. and Cornwall, M (1990). Religion and family in the 1980s: discovery and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98-992.

Silberman, I (2005). Religion as a meaning system: implications for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641-663.

Snarey, J and D. Dollahite (2001). Varieties of religion-family linkag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646-651.

Wiley, A. Wannan, H.B. and Montanelli, D. (2002). Shelter in a time of storm: parenting in poor rural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Family Relations*, 51, 265-273.

논문초록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김성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종교와 가족에 관한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41편의 연구논문들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고 논문들을 연구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영역 별 상세 주제, 표본, 종교가 연구된 방식, 연구결과, 제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준비, 결혼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관계 전반, 가족기능 영역에서 탐색되었다. 2)표본은 확률표집, 편의표집, 목적표집, 눈덩이표집 등을 통해 추출되었다. 3)종교는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믿음의 정도, 종교·신앙 조직 몰입 동기, 영성 등으로 측정되거나,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이나 종교·영성·신앙의 역할로 연구되었다. 4)하지만 표본추출의 문제와 표본의 편향, 부적합한 종교성 척도의 사용, 연구모형의 제한성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문헌검토 결과와 서구 논의를 토대로 향후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종교, 영성, 결혼준비, 결혼, 가족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

Influence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Church School Teachers
- with priority given to teachers in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

방은영 (Eun-Young B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y possible differences among church school teacher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general variables(the number of teachers, educational experience,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and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the impact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15 selected teachers in the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of church schools located in an urban community and a province. A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basic data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udy with questionnaires that covered general background,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he answer sheets from 580 respondents were collected, and the data from 566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the answer sheets that were incomplete and/or included outli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l the general variables(the number of teachers, educational experience,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and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s important to take the work environments of teachers into account in regard to their job performance. Second, teaching efficacy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Third, as for the impact of the subfactors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four(decision-*efficacy*, disciplinary self-*efficacy*, parent-involvement *efficacy* and climate-creating *efficacy*) out of the five subfactors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and teaching self-*efficacy* was not influential.

Key Words : church school Teachers, teaching efficacy, job satisfaction

* 충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music1-1@hanmail.net

2017년 08월 01일 접수, 08월 20일 최종수정, 08월 21일 게재확정

1. 서론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 부흥과 발전에 있어서 교회학교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녀교육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실천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명령을 교회학교가 잘 수행하여왔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교회학교는 이미 양적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정체기를 넘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인 고령화, 저출산, 맞벌이, 사교육의 성행, 서열화 및 스펙중심의 교육제도 등에 맞서 정체성의 위기에 까지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교회학교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장화선, 2010) 이와 더불어 부모나 자녀들 또한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교회학교를 통해 제대로 가르치는 사명이 소홀해 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음은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손원영, 2005; 엄기영, 2005; 이동윤, 2014).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천영섭(2011)은 미국 교회 교인들의 85%이상이 주일학교 출신이며 선교사 및 사역자의 95% 이상 역시 주일학교 출신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사례를 볼 때 교회학교가 교회의 존립과 성도들 신앙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학교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고 마땅히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해결점을 그 쇠퇴의 원인들에 대한 반성적 사고로부터 발견하고 다시금 말씀중심, 그리고 영성회복을 통한 질적 성장과 내실화에 집중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함영주,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 교회의 중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어린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중심체이자 귀하고도 놀라운 직분으로서의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미래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교사의 모범과 헌신은 아이들에게 결정적

인 모델링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신앙심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양승현, 2002). 이렇듯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교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신앙 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사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과정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직에 스스로 자원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나타난 연구사례(손진환, 2015; 조항철, 2003)를 근거로 볼 때 교사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선별기준 하에 교사를 선발하기 보다는 자원하는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사직을 권유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범철, 2008). 이로 인해 교회학교 교사 스스로 교사직에 대한 근본적인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사명감의 부재 속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교수효능감의 인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명감을 지니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교사들조차 교회학교의 직무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 교사직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박범철, 2008). 따라서 교회는 교사로 하여금 단순히 사명감에 충실한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 교사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수행할 수 고귀한 직무인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직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사 직무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높이도록 돕는 가운데 가르치는 자로서 지녀야 할 교수행위예의 기대 및 신념 등 교사 개개인의 내적변인을 고려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직의 수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의 내적 변인들과 관련한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관련 연구(공은화, 2016; 김연화·김경은, 2012; 백영숙·강병재, 2013; 이정현·안효진, 2012; 정효정, 2003; 조성연, 2005; Federici and Skaalvik, 2011; McCollum, et al., 2006; Smith and Guarino, 2006; Tschannen-Moran and Gareis, 2004) 및 교수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이성희, 2016; 이정수·오연주, 2006; 최혜윤, 2016; 허수윤 외, 2016)이 있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교육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교사를 그 중심에 두고 긍정적인 교수행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내적 변인들을 밝히고자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영유아교사 관련 연구들이 교사양성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나아람, 2011; 이기룡, 2016; 조운호, 2004), 그리고 교사의 정체성 관련 연구

(강규호, 2007; 박은혜, 2008; 박재화, 2013), 교수학습 방법(권진하, 2011; 박혜경, 2014; 이수인, 2014; 정영선, 2008)등에 집중하여 왔음에 비취볼 때 교사 내면을 살피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들로 부터 교회학교 교사의 섬기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열정과 실제 교수활동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내적 변인들 중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공은화, 2016; 김명선, 2012; 김연아·김경은, 2012; 김영한, 2013; 김요한, 2015; 배현순·이희수, 2015; 여종일, 2016; 조향철, 2002; Bruck, Allen, and Spector, 2002; Coté and Morgan, 2002). 이를 통해 오늘날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교회학교와 그 중심에 놓여있는 교사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들 상호 간의 관계 및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한 심도 깊은 탐구를 통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97). 이는 학생의 성취와 관련된 교수자의 개인특성 중 하나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교수자의 신념을 의미하기도 한다(Ashton and Webb, 1986). 이와 같은 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의 개인적 성취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관적이고도 지속적인 내적변인으로 작용한다. 박은실과 동료들(2007)은 교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교수효능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교사로 하여금 동기와 과제수행을 예측하고 직무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교수효능감을 강조한 바 있다. 교수효능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크게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효능기대는 성공적 결과를 초래할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나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효능기대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에서 특정의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개인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내, 사고유형, 정서적 반응, 긍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결과기대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자기평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며(Bandura, 2006) 하나의 주어진 행동이 특정의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추측 또는 판단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은 교사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교수효능감

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수행과제에 대한 끈기 및 동기부여와 노력, 그리고 성공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등을 들 수 있다(구수진, 2001).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는 좋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를 교회학교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의 차원에서 적용하여 보면 교회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교사는 단순한 신앙심으로부터의 헌신을 넘어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막연히 교사로서의 섬김의 과정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직무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와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가 지닌 교수효능감의 정도를 고찰하고 이를 지원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고찰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서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란 한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과정이나 평가로부터 느끼는 기쁨이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반응으로서(Kusma, Groneberg, Nienhaus, and Mache, 2012; Shermerhorn, Hunt and Osborn, 2010) 이는 기쁨의 정도라고도 할 수 있다(선종욱·오병섭·황덕수, 2010).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지니게 되며 조직의 운영에 협조적이며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장미정, 2011). 이를 교회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교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신앙심의 발전에 유익하고 믿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교회에 바람직하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명예롭다고 느끼는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김미숙, 2008). 반대로 교사의 개인적, 또는 신앙적 욕구가 교사 직무를 통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무능률의 저하, 욕구불만, 의욕상실 등의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 자신의 개인적, 신앙적인 특성 뿐 만 아니라 교회조직, 또는 집단의 특성 및 급변하는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는 교사마다 처한 직무 환경이 매우 다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허선영, 2005). 이무근(1993)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 관련 요인들로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적인 요인의 경우는 연령, 성별, 인종, 지능, 성격, 직무경험, 직업적 흥미, 직위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은 보수, 복지시설 및 제도 근무환경,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직장 내 인간관계, 회사정책과 절차, 관리 및 감독 스타일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 분야의 여러 연구들(김현경, 2008; 오영숙, 2006; 이원선, 2002; 차선미, 2006)에서도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살피고 이를 교사 지원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은 보통 개인과 교회조직 두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무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교회조직의 차원에서는 교사 한사람의 직무만족으로부터 기인한 교회학교 조직의 효율성 및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지닌 직무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도를 살피기 위한 하위요인으로는 동료관계 만족도, 리더쉽 관계 만족도, 직무관계 만족도, 교회학교 환경 만족도, 교회 내 평가 및 직위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개인적 성장 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교회학교의 위기를 극복 하고 교사의 질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김영한·서영, 2013; 이성희, 2007; 이정현·안효진, 2012; 조성연, 2005)을 통해서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교사직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교사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된바 있다.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김영선, 2012; 김요한, 2015; 이찬일, 2011; 최현민, 2008)는 교사의 영성 및 섬김의 차원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명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보다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내적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교회학교 교사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단순한 헌신과 섬김의 차원을 넘어 교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배경들로부터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내적요인으로서 교수효능감과 교수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철저하게 살피고자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교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수행을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와 K도에 위치한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에서 평신도 교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사 566명이다. 초기 설문에 응한 615명은 모두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580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미 응답 문항과 이상치를 제거한 최종 566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ubjects

	세부 분류내용	frequency	%
Sex	Male	87	15.37
	Female	479	84.63
Age	aged between 20 and 25	70	12.37
	aged between 25 and 30	74	13.07
	aged between 35 and 40	214	37.81
	aged between 40 and 50	137	24.20
	the age of 50 and over	71	12.54
Marriage	single	169	29.86
	married	397	70.14
Child	1	18	3.18
	2	70	12.37
	3 or more	248	43.82
	None	230	40.64
Degree level	high school graduate	149	26.33
	two-year junior college graduate	229	40.46
	university graduate	142	25.09
	graduate school graduate	46	8.13
	Total	566	100.00

앞의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479(84.63%) 명으로 ‘남자’ 87(15.37%)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35~40세’가 214(37.8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40~50세’가 137(24.20%) 명으로 두 번째, ‘25~30세’가 74(13.07%)명으로 세 번째, ‘50세 이상’이 71(12.54%)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20~25세’가 70(12.3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397(70.14%)명으로 ‘미혼’ 169(29.86%)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3명 이상’이 248(43.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없음’이 230(40.64%)명, ‘2명’이 70(12.37%)명, ‘1명’이 18(3.1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따른 분포는 ‘전문대졸 이상’이 229 (40.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졸 이상’이 149(26.33%)명, ‘대학졸 이상’이 142(25.09%)명, ‘대학원졸 이상’이 46(8.13%)명 순이었다. 교회관련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hurch-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details	frequency	%
denomination	Presbyterian	403	71.20
	Methodism	60	10.60
	Holiness Church	52	9.19
	Baptists	25	4.42
	Full Gospel	26	4.59
church location	in seoul	318	56.18
	kyungki-do	199	35.16
	Incheon	48	8.48
	Ect..	1	.18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below 100	21	3.71
	100 ~ 299	34	6.01
	300 ~ 999	96	16.96
	1000 ~ 1999	142	25.09
	2000 or more	273	48.23
the number of child church members	below 30	66	11.66
	30 ~ 49	143	25.27
	50 ~ 99	165	29.15
	100 ~ 199	105	18.55
	200 or more	87	15.37

<continued>

	details	frequency	%
number of teachers	below 10	57	10.07
	10 ~ 19	166	29.33
	20 ~ 49	171	30.21
	50 ~ 99	110	19.43
	100 or more	62	10.95
whether to be equipped with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or not	Operating	519	91.70
	Not operating	47	8.30
합 계		566	100.00

앞의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속교단에 따른 분포는 ‘장로교’가 403(71.20%) 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리교’가 60(10.6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성결교’가 52(9.19%)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순복음’이 26(4.59%)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침례교’가 25(4.4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위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내’가 318(56.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기도’가 199(35.16%)명, ‘인천’이 48(8.48%)명, ‘기타지역’이 1(0.18%)명 순이었다. 교인 수에 따른 분포는 ‘2000명 이상’이 273(48.23%)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0명 이상~2,000명 이하’가 142(25.09%)명, ‘3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6(16.96%)명, ‘100명 이상~300명 이하’가 34(6.01%)명, ‘100명 미만’이 21(3.71%)명 순이었다. 교회 출석 아동 수에 따라서는 ‘50명 이상~100명 미만’이 165(29.1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30명 이상~50명 미만’이 143(25.27%)명, ‘100명 이상~200명 이하’가 105(18.55%)명, ‘200명 이상’이 87(15.37%)명 순으로 많았다. ‘30명 미만’이 66(11.6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부 교사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20명 이상~50명 미만’이 171(30.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명 이상~20명 미만’이 166(29.33%)명, ‘50명 이상~100명 이하’가 110(19.43%)명, ‘100명 이상’이 62(10.95%)명 순으로 많았다. ‘10명 미만’이 57(10.0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유치부운영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운영함’이 519(91.70%)명으로 ‘운영하지 않음’ 47(8.30%)명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관련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background as a church school teacher

	세부 내용	frequency	%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a year to less than two hours	259	45.76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four hours	247	43.64
	4 hours or more	60	10.60
	Total	566	100.00
Satisfied with serving as a church school teacher	high	260	45.94
	middle	275	48.59
	low	18	3.18
	not sure	13	2.30
teaching experience of the church school	less than a year	77	13.60
	more than a year ~ ~ less than two year	77	13.60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135	23.85
	more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111	19.61
	10 years or more	166	29.33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none	181	31.98
	completed a 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ciety	70	12.37
	received one or more training workshop(s) provided by the denomination or church	171	30.21
	teacher certificate holder related to infancy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25.44
Why decided to be a church school teacher	voluntarily	284	50.18
	persuaded by ministers or acquaintances	204	36.04
	wanted to attend church with my own children	38	6.71
	forced by others because of a shortage of teachers	40	7.07
Future intention to keep serving as a teacher	have the intention	391	69.08
	no intention	14	2.47
	I don't know	40	7.07
	it will depend on future situations	121	21.38
	Total	566	100.00

앞의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일 섬김 시간에 따른 분포는 ‘2시간 미만’이 259(45.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2시간 이상~4시간 이하’가 247(43.64%)명으로 많았고, ‘4시간 이상’이 60(10.6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김 만족에 따른 분포는 ‘중’이 275(48.5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상’이 260(45.94%)명으로 두 번째, ‘하’가 18(3.18%)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모르겠음’이 13(2.3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 경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10년 이상’이 166(29.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2년 이상~5년 이하’가 135(23.85%)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11(19.61%)명이었다. 그리고 ‘1년 미만’과 ‘1년 이상~2년 미만’은 77(13.60%)명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이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181(31.9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단 및 교회자체 교사연수 참석’이 171(30.21%)명, ‘영유아 관련 교사자격증 취득’이 144(25.44%)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유아교육관련 교육 이수 경험 있음’이 70(12.3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계기는 ‘스스로 자원해서’가 284(50.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사역자들 및 지인)의 권유로’가 204(36.04%)명, ‘교사가 부족해서 타의에 의해’가 40(7.07%)명, ‘자녀와 함께 다니고 싶어서’가 38(6.71%)명 순이었다. 교사로서 점검 계획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있다’가 391(6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추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이 121(21.38%)명으로 두 번째, ‘모르겠다’가 40(7.07%)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없다’가 14(2.4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2개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효능감 검사 도구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dura(1997)의 TES(Teacher Efficacy Scale)을 보완하여 유아교육 기관의 특수상황에서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된 구수진(2001)의 검사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수효능감에 관한 5개의 하위영역인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 자기 효능감, 훈육 자기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고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1점에서 5점을 주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Chronbach's α 계수는 .938이며 교수 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는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

다. 교수효능감 검사도구의 문항 수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2) 직무만족도 검사도구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orde-Bloom(1988)이 제작한 유아교사 직무만족 측정도구인 ECJSS(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를 정향립(200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회적 인정’ 요인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수승진, 사회적 인정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교수 2인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인의 타당도 조사를 통해 교회학교 상황에 부적합한 질문으로 판단된 보수관련 4문항을 제거하고 총 50문항을 최종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1점에서 5점을 주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924이며 직무 만족도의 하위변인으로는 동료관계 만족도, 리더쉽 관계 만족도, 직무관계 만족도, 교회학교 환경 만족도, 교회 내 평가 및 직위 만족도이다. 검사도구의 구체적인 문항 수 및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number of items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used

Variables	Subvariables	The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Teaching Efficacy	decision- efficacy	two items	.720
	teaching self-efficacy	five items	.802
	disciplinary self-efficacy	three items	.807
	parent-involvement efficacy	four items	.791
	climate-creating efficacy	eight items	.897
	Total	22 items	.938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ollegueship	10 items	.774
	satisfaction with leadership	10 items	.846
	job satisfaction	10 items	.726
	satisfaction with church school environments	10 items	.694
	satisfaction with internal evaluation and position	10 items	.775
Total	50 items	.924	

앞의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의 하위변인별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의사결정 효능감' .720, '교수자기 효능감' .802, '훈육자기 효능감' .807, '부모참여 효능감' .791, '풍토조성 효능감' .897, 이었으며 '교수효능감'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38로 나타났다. 교수 효능감과 하위요인 모두 신뢰도 기준인 .6을 넘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만족도의 하위변인별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동료관계 만족도' .774, '리더쉽관계 만족도' .846, '직무관계 만족도' .726, '교회학교 환경 만족도' .694, '교회 내 평가 및 직위 만족도' .775, '직무만족도'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24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하위요인 모두 신뢰도 기준인 .6을 넘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S시 및 K도에서 사역 중인 교회의 목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에서 영·유아·유치부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 5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 이전에 유아 교육관련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2인, 그리고 영·유아·유치부 관련 목회자 8인의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도 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S시 교회의 영·유아·유치부교사 8인과 K도에 위치한 교회의 영·유아·유치부 교사 6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담당 목회자와의 면접을 통해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여 긴밀한 협조를 구하였다. 2016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직접 방문 및 전달을 통해 총 6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자의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총 580부의 설문지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응답지 14부를 제거한 후 566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수거율 95%).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 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회학교 관련 응답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정규분포여부 검증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의 하위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경력, 교육 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N	M	SD	skewness	krutosis	correlation	
						Teaching Efficacy	Job Satisfaction
Teaching Efficacy	566	3.53	.59	.28	.56	1	
Job Satisfaction	566	3.67	.44	.13	-.90	.34***	1

앞의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기술적 통계에 있어서 교수효능감은 평균 3.53(.59)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 3.67(.44)로 나타났다. 두 변인 모두 정규 분포를 가정하였으며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34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o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N*=566)

	<i>M</i>	<i>SD</i>	stemness	knows	decision- efficacy	teaching self-efficacy	disciplinary self-efficacy	parent- involvement efficacy	climate- creating efficacy	teaching Efficacy	satisfaction with colleagueship	satisfaction with leadership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hurch school environments and position	job satisfaction
decision- teaching self-efficacy	3.48	.75	.12	-14	1										
disciplinary self-efficacy	3.44	.58	.41	.93	.53***	1									
parent- involvement efficacy	3.55	.64	.01	.41	.51***	.69***	1								
climate- creating efficacy	3.60	.60	.07	-16	.46***	.60***	.67***	1							
teaching Efficacy	3.57	.59	.09	-14	.46***	.60***	.67***	.75***	1						
satisfaction with colleagueship	3.53	.59	.28	.56	.75***	.82***	.86***	.84***	.84***	1					
satisfaction with leadership	3.67	.57	-.07	-.85	.31***	.22***	.30***	.34***	.36***	.38***	1				
job satisfaction	3.81	.67	-.03	-.96	.18***	.10*	.18***	.20***	.21***	.21***	.68***	1			
church school environments	3.55	.50	.33	-.09	.19***	.22***	.26***	.27***	.34***	.31***	.50***	.55***	1		
internal evaluation and position	3.44	.50	.44	-.26	.11**	.14***	.19***	.20***	.28***	.22***	.46***	.50***	.56***	1	
Job Satisfaction	3.69	.57	.08	-.85	.17***	.18***	.19***	.25***	.30***	.26***	.53***	.52***	.57***	.66***	1
	3.67	.44	.13	-.90	.24***	.21***	.27***	.31***	.37***	.34***	.79***	.83***	.79***	.79***	.81***

앞의 Tabl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의 평균은 3.53(.59)으로 나왔으며 하위변인의 평균은 3.44(.58)~3.60(.60)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만족도의 평균은 3.67(.44)로 나왔고 하위변인의 평균은 3.44(.50)~3.87(.57)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변인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변인 간 정적 상관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인 변인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7, Table 8, Table 9, Table 10, Table 11과 같다.

Table 7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number of teachers

dependent variables	number of teachers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below 10(A)	57	3.49	.54	4.228**	.002	B<C
	10~20(B)	166	3.42	.46			
	20~50(C)	171	3.64	.50			
	50~100	110	3.50	.51			
	100 or more(E)	62	3.54	.55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below 10(A)	57	3.61	.42	6.358***	.000	B,D<C
	10~20(B)	166	3.57	.44			
	20~50(C)	171	3.80	.42			
	50~100	110	3.62	.42			
	100 or more(E)	62	3.70	.44			
	Total	566	3.67	.44			

** $p<.01$, *** $p<.001$

앞의 Table 7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유아·유치부 교사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에 대한 조사 결과, ‘20명 이상~50명 미만’($M=3.64$, $SD=.50$), ‘100명 이상’($M=3.54$, $SD=.55$), ‘50명 이상~100명 이하’($M=3.50$, $SD=.51$), ‘10명 미만’($M=3.49$, $SD=.54$), ‘10명 이상~20명 미만’($M=3.42$, $SD=.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28$, $p<.01$).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은 10명 이상~20명 미만보다 20명 이상~50명 미만에서 높았다.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20명 이상~50명 미만’($M=3.80$, $SD=.42$), ‘100명 이상’($M=3.70$, $SD=.44$), ‘50명 이상~100명 이하’($M=3.62$,

$SD=.42$), '10명 미만'($M=3.61, SD=.42$), '10명 이상~20명 미만'($M=3.57, SD=.4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358, p<.001$).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직무만족도는 10명 이상~20명 미만보다 20명 이상~50명 미만이 그리고 50명 이상~100명 이하보다 20명 이상~50명 미만이 평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8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 of the church school

dependent variables	teaching experience of the church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less than a year	77	3.24	.43	16.269***	.000	A<C,D A,B,C,D<E
	more than a year~less than two year	77	3.42	.42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135	3.48	.48			
	more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111	3.51	.51			
	10 years or more	166	3.74	.51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less than a year	77	3.55	.42	3.161*	.014	A<E
	more than a year~less than two year	77	3.64	.42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135	3.64	.46			
	more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111	3.69	.40			
	10 years or more	166	3.75	.45			
	Total	566	3.67	.44			

* $p<.05$, *** $p<.001$

앞의 Table 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경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교수효능감은 '10년 이상'($M=3.74, SD=.51$), '5년 이상~10년 미만'($M=3.51, SD=.51$), '2년 이상~5년 이하'($M=3.48, SD=.48$), '1년 이상~2년 미만'($M=3.42, SD=.42$), '1년 미만'($M=3.24, SD=.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6.269, p<.001$).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검증 결

과, 교수효능감은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5년 이하,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의 모든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직무만족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M=3.75, SD=.45), '5년 이상~10년 미만'(M=3.69, SD=.40), '1년 이상~2년 미만'(M=3.64, SD=.42), '2년 이상~5년 이하'(M=3.64, SD=.46), '1년 미만'(M=3.55, SD=.4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161, p<.05).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직무만족도는 1년 이상~2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 높았다.

Table 9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dependent variables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none	181	3.40	.48	7.132***	.000	A<D
	completed a 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ciety	70	3.58	.55			
	received one or more training workshop(s) provided by the denomination or church	171	3.51	.46			
	teacher certificate holder related to infancy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3.65	.54			
	Total	566	3.52	.51			
	none	181	3.62	.45			
Job Satisfaction	completed a 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ciety	70	3.58	.43	3.028*	.029	
	received one or more training workshop(s) provided by the denomination or church	171	3.70	.42			
	teacher certificate holder related to infancy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3.73	.44			
	Total	566	3.67	.44			

*p<.05, ***p<.001

앞의 Table 9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교육이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관련 교사자격증 취득’($M=3.65$, $SD=.54$), ‘사회에서 유아교육관련 교육 이수경험 있음’($M=3.58$, $SD=.55$), ‘교단 및 교회자체 교사연수 참석’($M=3.51$, $SD=.46$), ‘전혀 없음’($M=3.40$, $SD=.4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132$, $p<.001$).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은 전혀 없음보다 영·유아 관련 교사자격증 취득이 평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영·유아 관련 교사자격증 취득’($M=3.73$, $SD=.44$), ‘교단 및 교회자체 교사연수 참석’($M=3.70$, $SD=.42$), ‘전혀 없음’($M=3.62$, $SD=.45$), ‘사회에서 영·유아교육관련 교육 이수경험 있음’($M=3.58$, $SD=.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028$, $p<.05$).

Table 10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dependent variables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a year to less than two hours	259	3.47	.51	3.842*	.022	A<C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four hours	247	3.54	.49			
	4 hours or more	60	3.66	.54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a year to less than two hours	259	3.67	.44	1.607	.201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four hours	247	3.69	.45			
	4 hours or more	60	3.58	.40			
	Total	566	3.67	.44			

* $p<.05$

앞의 Table 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로서 주일 섬김 시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은 ‘4시간 이상’($M=3.66$, $SD=.54$), ‘2시간 이상~4시간 이하’($M=3.54$, $SD=.49$), ‘2시간 미만’($M=3.47$, $SD=.5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42$, $p<.05$).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은 2시간 미만보다 4시간 이상이 평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만족도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4시간 이하’($M=3.69$, $SD=.45$), ‘2시간 미만’($M=3.67$, $SD=.44$), ‘4시간 이상’($M=3.58$, $SD=.4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1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number of church members

dependent variables	number of church members	<i>N</i>	<i>M</i>	<i>SD</i>	<i>F</i>	<i>P</i>	Scheffe
Teaching Efficacy	below 100	21	3.41	.44	2.006	.092	
	100 ~ 299	34	3.49	.54			
	300 ~ 999	96	3.41	.49			
	1000 ~ 1999	142	3.58	.53			
	2000 or more	273	3.55	.50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below 100	21	3.40	.42	3.478**	.008	
	100 ~ 299	34	3.52	.46			
	300 ~ 999	96	3.65	.40			
	1000 ~ 1999	142	3.70	.42			
	2000 or more	273	3.70	.45			
	Total	566	3.67	.44			

** $p < .01$

앞의 Table 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인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은 ‘1000명 이상~2000명 이하’($M=3.58$, $SD=.53$), ‘2000명 이상’($M=3.55$, $SD=.50$), ‘100명 이상~300명 이하’($M=3.49$, $SD=.54$), ‘100명 미만’($M=3.41$, $SD=.44$), ‘300명 이상~500명 이하’($M=3.41$, $SD=.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00명 이상~2000명 이하’($M=3.70$, $SD=.42$), ‘2000명 이상’($M=3.70$, $SD=.45$), ‘300명 이상~500명 이하’($M=3.65$, $SD=.40$), ‘100명 이상~300명 이하’($M=3.52$, $SD=.46$), ‘100명 미만’($M=3.40$, $SD=.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78$, $p < .01$).

2.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Table 12와 같다.

Table 12 The influence of the teaching efficacy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S.E	t	R ²	F
Job Satisfaction	(constant)	2.35	.00	.12	20.090	.186	129.199***
	Teaching Efficacy	.37	.43	.03	11.367***		

* $p < .05$

앞의 Table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효능감은 직무 만족도를 18.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18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29.199$, $p < .001$).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β)값을 살펴보면 .43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1.367$, $p < .001$).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 하위변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Table 13과 같다.

Table 13 The influence of the teaching efficacy subvariables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S.E	t	VIF	R ²	F
Job Satisfaction	(constant)	2.34		.16	20.112		.230	33.484***
	decision-efficacy	.08	.13	.03	2.898**	1.483		
	teaching self-efficacy	-.09	-.11	.04	-2.133*	2.095		
	disciplinary self-efficacy	.03	.04	.04	.717	2.435		
	parent-involvement efficacy	.13	.17	.04	2.940**	2.367		
	climate-creating efficacy	.23	.30	.04	5.053***	2.462		

* $p < .05$, ** $p < .01$, *** $p < .001$

앞의 Table 13에서 밝힌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해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고($R^2=.23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3.484$, $p<.001$).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β)값을 살펴봤다. 의사결정 효능감은 .13으로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t=2.90$, $p<.01$), 교수자기 효능감은 -.11로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t=-2.13$, $p<.05$). 그리고 부모참여 효능감은 .17로 직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t=2.94$, $p<.01$), 풍토조성 효능감은 .30으로 직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t=5.05$, $p<.001$).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교육 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사 수’의 경우 20명 이상~50명 미만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교수효능감 뿐 아니라 특히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느끼는 동료로서의 교사 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동료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협업을 통한 성취, 그리고 동료애를 느끼는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큰 규모의 교사 수를 지닌 교회학교의 환경이 작은 규모의 교사 수를 지닌 교회학교에서보다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권진하(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교육환경 및 교회지원 체제가 풍부한 상태에서 동료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심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최현민(200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자질, 교육환경(시설, 장소, 시간 등), 행정체계 등 전반적인 직무환경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회교육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 박현웅(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단순한 교사직의 수행을 넘어 협업하고 서로 동료장학을 하면서 영적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자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도록 돕는 직무환경은 교회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직의 수행을 신앙과 헌신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 아니라 교회는 더욱 더 능동적으로 교사가 느끼는 물리적 환경 및 인적환경의 개선을 통한 교사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사 경력’의 경우,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모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의 75%이상이 10년 미만의 교사가 대부분이며 교사들의 근속연한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밝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많은 교사의 헌신도가 높음을 밝힌 김진아(2006)의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교사경력이 교수효능감에 무관하며(서정임, 2001) 경력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구수진(2001)의 연구결과 및 경력이 낮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았다는 김신덕(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하지만 교사 경력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신도가 증가하며 교수효능감이 높았음을 밝힌 강현숙(2014)의 연구 및 김정희·김동춘(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사경력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음을 밝힌 오영숙(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김종현, 1986, 최현민, 2008, 재인용; 양금희, 2008)를 뒷받침한다. 한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 중 2년 이상 5년 미만의 교회학교 교사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 다음으로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초임교사 시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든 경우 직무의 내용 및 실재를 파악하고 나면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직에서의 기대와 신념 또한 증가하며 이를 통해 직무에 만족하게 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랜 교사경력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학교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타성에 젖은 교사직에 대한 태도 등 부정적 요소들을 초월한 섬김과 자기개발을 통해 오랜 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신앙의 차원에서 자신의 직무를 사명감에 찬 직무(조항철, 2003)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교사 스스로 교수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결과(양금희, 2008)로 나타났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교육 이수’의 경우, 영·유아 관련 교사자격증 취득여부와 교단 및 교회차원의 교사연수 등에서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영유아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 향상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영·유아 관련 교사자격증이나 이에 견줄만한 교회제도 안에서의 교사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박은혜(2008)와 손진환(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실제로 적지 않은 교회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교사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교사교육 이수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교회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일 섬김 시간’의 경우 교수효능감에 있어서 교사들은 주일 섬김 시간으로 2시간 미만보다 4시간 이상의 섬김 시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교육에서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주어진 교회학교에서의 섬김 시간을 뛰어넘어 준비과정과 이후 영·유아 관리를 위한 섬김의 시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가운데 실제로 교사가 이를 위한 시간과 정성을 쏟을 때만이 자신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적인 교사로 인식하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직무만족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인식하는 주일 섬김 시간의 양 그 자체보다 교사가 체감하는 인적, 물리적 직무환경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인 수’의 경우 교수효능감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능감은 교회 교인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반해 직무만족도는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교사가 체감하는 직무환경과 지원체제가 상대적으로 크고 만족할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가 지닌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공은화, 2016; 김연아·김정은, 2012; 김영한, 2013; 배현순·이희수, 2015; 안효진, 2012; 여종일, 2016; 조성연, 2005; Klassen and Chiu,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교사가 지니는 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기 신념이 높을수록 교사로서의 개인적 성취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관적이고도 지속적인 내재변인으로 작용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유아 교사의 내재적 직무만족도가 높았음을 밝힌 연구(김정희·김동춘,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가운데 교사가 적절한 교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감이 높을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교수효능감은 교회학교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선택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명감을 기초로 개인의 끈기 및 동기부여와 노력 및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교회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단순한 신앙심으로부터의 헌신을 넘어 자신의 직무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와 신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이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 본 표준화된 계수 값에서는 교수자기 효능감을 제외하고는 의사결정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의 3가지 하위요소 모두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능감에 있어서 ‘의사결정 효능감’의 경우, 교회학교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교사들에 비해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의 주요한 역할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음과 이를 사명과 섬김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밝힌 김진아(2007)와 이정희(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훈육자기 효능감’의 경우, 신앙심의 발휘를 통해 교사는 자기 자신을 사명감의 차원에서 성결하고 준비된 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통제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지니는 동시에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지각하는 사명감의 정도에 의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밝힌 김요한(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참여 효능감’의 경우 교회학교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학부모 간 공동의 책임의식을 신앙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측면이 강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회교육 진단을 통해 교사-학부모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부모참여 과정 및 교사역할의 사례를 소개한 임상필(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에 반해 ‘교수자기 효능감’의 경우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적영향을 보였다. 이는 교사 자신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학습자 다루기 및 동기화, 직무를 통한 리더십 발휘, 촉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는 교수자기 효능감이야말로 교사 스스로가 지각하는 정체성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단순히 직무만족의 정도를 초월하여 교사직을 사명으로 받아들일도록 작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기 효능감이 높은 교사야말로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행정업무, 대인관계, 교직 풍토 등으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에 덜 영향을 받음으로써 주어진 직무환경과 만족도를 가늠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교사직 그 자체를 즐기는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구수진(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영유아를 지도할 때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충족할 수 있다는 김경숙(2013)의 연구 결과 및 교사의 내적신념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성희·박영신, 2007; Capara et al., 2006)에서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일부 다른 결과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교수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와에 미친 부적영향의 결과는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소들 중 교수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교수자기 효능감 그 자체가 교수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이는 결국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전국이 아닌 S시와 K도의 두 지역에 편중되어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

계적 표집을 통해 지역 및 대상을 확장시키고 세분화된 연구로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며 반대로 직무만족도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방법을 통하여 변인들의 변화 방향이나 영향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요인 중에서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이와 반대로 유아교사의 영성(이경화·심은주, 2013), 자기결정성(조정서·김은주, 2014)과 같은 다른 변인들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사례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규호 (2007). *교회학교 교사 양성형성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Kang, J. H. (2007). *Development of A Spiritual Formation Group Program for the Sunday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강현숙 (2014). *교수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Kang, H. S. (2014).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tion of Education on Basic Life Habits*. Masters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Koyang, Korea.]
- 공은화 (2016).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6(1), 391-402.
- [Kong, E. W. (2016). Meta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heir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6(1), 391-402.]
- 구수진 (2001). *유치원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Gu, S. J. (2001). *The relation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level with parent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권진하 (2010). *교회학교 교사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협동학습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Kwon, G. H. (201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lended Cooperative Learning System for Teachers of Sunda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김명선 (2012). *교회주일학교 교사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Kim, M. S. (2012). *A study on the ritual of the responsibility and work satisfaction of the church sunday school's teacher*.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미숙 (2008). *보육시설장의 직무만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Kim, M. S. (2008). *The Study of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f Child*

- Care Center Directors*. Masters Dissertation. Bukyung University, Busan, Korea.]
- 김연아 · 김경은 (2012).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105-121.
- [Kim, Y. A. & Kim, K. E. (2012). Teach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s Predictors of the Job Satisfaction of Infant Teacher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1), 105-121.]
- 김연아 · 박연정 · 김경은 (2014).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이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15.
- [Kim, Y. A, Park, Y. J & Kim, K. E. (2014).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 Care Teachers : The Effects of Background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Job Stress. *Journal of child Studies*, 35(4), 1-15.]
- 김영한 · 서 영 (2013). 통합유치원 교사의 교직원화인식, 교수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분석. 52(2), 93-115.
- [Kim, Y. H. & Seo. Y.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Integration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culture,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2), 93-115.]
- 김요한 (2015).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만족도와 하나님 이미지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Kim, Y. H. (2015).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Ministry Satisfaction of Church School Teachers and Image of God and Resilience*. Masters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김정희 · 김동춘 (2010). 영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직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49-173.
- [Kim, G. H. & Kim D. C. (2010).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Teacher Efficac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3), 149-173.]
- 김진아 (2007). *교회학교 교사의 영적 리더십 개발 방안-섬김의 리더십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Kim, G. A. (2006).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 for spiritual leadership of Sunday church school teacher*. Masters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김현경 (2008). **여성운동이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 연구: 1990년대 이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Kim, H. K. (200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women's movement on the child-care policy: focused on the period before the 1990's*.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나아람 (2011).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개선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Na, A. R. (2011).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범철 (2008). **교회학교의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Park, B. C. (2007). *The desirable image of teacher and teacher educations in church school*.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박은실 · 김의철 · 박영신 (2007).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교육과학연구**, 38(3), 29-52.
- [Park, E. S, Kim, E. C. & Park, Y. S. (2007).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8(3), 29-52.]
- 박은혜 (2008).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기독교 교육논총**, 18, 131-152.
- [Park, E. H. (2007). Suggestion to Church School Teachers'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Ident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131-152.
- 박재화 (2013).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회복을 위한 힐링(Healing) 패러다임**.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Park, J. W. (2013). *Healing paradigm for the identity building and recovery of church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박현웅 (2005). **교회학교 교사들의 조직헌신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Park, H. W. (2005).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박혜경 (2014).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사이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Park, H. K.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yber Model for Sunday*

- School Teachers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배현순 · 이희수 (2015). 초등방과 후 학교 강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4), 269-307.
- [Bae, H. S. & Lee, H. S.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eacher Efficacy of Elementary After School Teachers -With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4), 269-307.]
- 백영숙 · 강병재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 및 교수효능감과 교수창의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6, 25-47.
- [Baek, Y. S. & Kang, B. J. (2013). The Relations among Job Satisfactions, Teaching Efficacy and Instructional Creativity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Journal of Korea Child care and Education*, 76, 25-47.]
- 선종욱 · 오병섭 · 황덕수 (2010). *직무 스트레스 개론*. 서울: 이담출판사.
- [Sun, J. W, Oh, B. S. & Hwang D, S. (2010). *An introduction to job stress*. Seoul: Eedam Press.]
- 손원영 (2005). *기독교 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on, W. Y. (2005). *Christian culture education and Sunday schools*. Seoul: Daehan Christian Press.]
- 손진환 (2015). *교회학교 교사들의 학습된 무기력 극복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학대학교.
- [Son J. H. (2015). *A Study on the Plan to Heal the Learned Helplessness of Church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Korea.]
- 양근희 (2008). *교회학교 진단 침체와 부흥*. 서울: 콤란출판사.
- [Yang, K. H. (2008). *Diagnosis of church schools: depression and revival*. Seoul: Koomran Press.]
- 양근희 (2008). 영 · 유아의 하나님 이해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방향. *장신논단*, 32, 111-153.
- [Yang K. H. (2008). God Concept and Job Satisfac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32, 111-153.]
- 양승현 (2002). *주일학교 목회*. 서울: 파이디온 선교회.

- [Yang, S. H. (2002). *Sunday school ministry*. Seoul: Paidion Press.]
- 엄기영 (2005). 위기의 교회학교 - 어린이가 떠난다. **국민일보**, 2005. 5. 5.
- [Um, K. Y. (2005). "Church schools in critical situations-Children are leaving.", *Kookmin Il-Bo*, 2005. 5. 5.]
- 여종일 (2016).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공동체의식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1(5), 597-618.
- [Yeo, J. I. (2016). Effects of job stress, teacher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o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5), 597-618.]
- 오영숙 (2006). **민간보육시설장의 운영관리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Oh, Y. S. (2006).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job satisfaction of private childcare center directors*. Masters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오영숙 (2010). **영아반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Oh, Y. S. (2010). *Analysis of the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in charge of infant classes*.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옥장흠 (2009).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175-200.
- [Ok, J. H. (2009). A Study of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fluenced by Job Stress Factors. *Journal of Korea Teacher Education*, 26(2), 175-200.]
- 이경화·심은주 (2013). 유아교사의 영성과 직무만족 및 직장 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79-199.
- [Lee, K. H, Shim, E, J. (2013). The relation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pirituality with their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at work.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8(3), 179-199.]
- 이기룡 (2016). **교회학교 교사교육 비교분석 및 교사양성 교육과정개발 : 대안예수교 장로회 주요 세 교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Lee, K. R.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 of Sunday School Teachers, and Developing a Curriculum for the Cultivation of Sunday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Koshin University, Busan, Korea.]
- 이동윤 (2014). 예장통합 통계 충격 교회 50% 이상 주일학교 없어. **기독일보**, 2014.

7. 22.

[Lee, D. Y. (2014). “Shocking news! 50 percent or more of churches have no Sunday school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Kidok Il-Bo* (2014. 7. 22).]

이미애 (2014).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자기효능감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Lee, M. A. (2014).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principal's self-efficac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Shila University, Busan, Korea.]

이성희 (2016). 예비유아교사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학문적 자아개념이 신체활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67-86.

[Lee, S. H. (2016). The Effect of Physical Self-Efficacy and Academic Self-Concept on Physical Activity Teaching Efficacy Beliefs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6(3), 67-86.]

이성희 · 박영신 (2007).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31-50.

[Lee, S. H. & Park, Y. S. (2007). A Study on Child Care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1), 31-50.]

이수인 (2014).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문제중심 학습법의 사용 :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문제중심 학습법의 효과에 대한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식연구. **기독교 교육논총**, 37, 233-259.

[Lee, S. I. (2014). Problem-based Learning in a Local Church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Korean Churc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233-259.]

이원선 (2002). **국공립 보육시설장의 운영관리 역할수행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Lee, W. S. (2002). *A study on the Managerial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Director in the Public Day Care Center*.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이정수 · 오연주 (2006).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수활동 및 교수효능감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0(3), 103-124.

[Lee, J. S. and Oh, Y. 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Daycare Center Teachers’ Beliefs of DAP, Teaching Practices of DAP, and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0(3), 103-124.]
- 이정현·안효진 (2012).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3(4), 129-141.
- [Lee, J. H. and An, H. J.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and Job Str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 Studies*, 33(4), 129-141.]
- 이정희 (2005). **유아교육 기관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Lee, J. H. (2005). *A Stud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of collaboration organizational culture*. Masters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Busan, Korea.]
- 이찬일 (2011). **교회학교 교사의 영적건강이 조직현신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락교회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Lee, C. I. (2011). *The Effects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Spiritual Well-being on the Organization Comitment and job Satisfaction. -Focussing on the Church School in Young-Nak church*.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장미정 (2011). **유치원의 질과 교사의 직무만족도, 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ang, M. J. (2011).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quality,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n children's cognitive, linguistic,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장화선 (2010). 교회 주일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신학지평*, 23, 33-58.
- [Jang, H. S. (2010). 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of Church Sunday School in Korea .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3, 33-58]
- 정영선 (2008). **교회학교 교사교육 이러닝(e-learning)도입에 관한 교사의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Jang, Y. S. (2008). *Analysis on Teachers' Demand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e-Learning for Sunday School Teacher Education at Church*.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향림 (2005).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 :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ung, H. R. (2005). *Relationship of job stress to job satisfaction in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with priority given to the region of Gyeongin*.

-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효정 (2003). 교사의 조직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33, 273-305.
- [Jung, H. J. (2003).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on job satisfaction in teachers. *Journal of Korea Childcare and Education*, 33, 273-305.]
- 조경서 · 김은주 (2014). 유아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269-288.
- [Jo, K. S. & Kim, E. J (2014). Early childhood teachers: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quality of life, self-determinac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269-288.]
- 조성연 (200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교육과학연구**, 36(1), 81-104.
- [Jo, S. Y. (2005).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6(1), 81-104.]
- 조향철 (2003).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만족도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Jo, H. C. (2003). *A Case Study on the Self-Satisfaction of Sunday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차선미 (2006).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의 직무수행과 직무 스트레스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ha, S. M.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director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천영섭 (2011). **사례연구를 통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의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Chun, Y. S. (2011). *A Study to revitalize the Children's Worship of Sunday School through Case Study*. Doctoral Dissertation. Chon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현민 (2008). **교회학교 교사의 조직헌신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hoi, H. M. (2008).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t the church school*.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혜윤 (2016). 교사효능감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유치원 교사의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1(3), 73-93.
- [Choi, H. Y. (2016). The effects of teacher efficacy and social support by directors and colleague teachers on the teaching commitment of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11(3), 73-93.]
- 함영주 (2016). 교회학교 교사가 인지한 팀 효과성이 교육부서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부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2, 577-599.
- [Ham, Y. J. (201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Effectiveness and Department Commitment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of Satisfaction among Sunday School Teachers. *Journal of theology and Praxis*, 52, 577-599.]
- 허수윤 · 서현아 · 오지은 (2016). 유아교사의 신체표현 태도와 교수효능감이 신체표현실제 및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8(5), 89-109.
- [Huh, S. Y, Sheo, H. A. & Oh, J. E (2016). The effect of physical expression teaching attitudes and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physical expression teaching practice and teaching anxie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8(5), 89-109.]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 Longman.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NY : W. H. Freeman and Company, 1-161.
- Bandura, A. (2006).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 164 - 180.
- Bruck, C. S., Allen, T. D., & Spector, P. E. (2002).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 A finer-grained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3), 336-353.
- Capara, G., V, Babaranelli, C., Steca, P. and Malone, P., S. (2006). Teacher's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 A study at the school Leve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 473-490.
- Collie, R. J., Shapka, J. D., & Perry, P. E. (2012). School climate and social-emotional learning : Predicting teacher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04(4), 1189-1204.
- Coté, S., & Morgan, L, M. (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 regulati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s to quit. *Journal of*

- Organizational Behavior*, 23, 947-962.
- Federici, R. A., & Skaalvik, E. M. (2011). Principal self-efficacy and work engagement: assessing a Norwegian principal self-efficacy scal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4), 575-600.
- Klassen, R. M., & Chiu, M. M. (2010). Effects of teacher'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 teacher gender, years of experience, and job str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3), 741-756.
- Kusma, B., Groneberg, D. a., Nienhaus, A., & Mache, S. (2012). Determinants of day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Central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3), 191-198.
- McCullum, D., Kajs, L., & Minter, N. (2006).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chool administrator efficacy scale(SAES).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10(3), 105-119.
- McCormick (2001). Self-efficacy and leadership effectiveness : Applying social cognitive theory to leadership.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8(1), 22 - 33.
- Skaalvik, E. M., & Skaalvik, S. (2014). Teacher self- efficacy and perceived autonomy : relationa with teacher engagement, job satisfaction, and emotional exhaustion. *Psychological Reports: Employment Psychology & Marketing*, 114(1), 68-77.
- Shermerhorn, J. R., Hunt, J. G., & Osborn, R. N. (2010). *Organizational behavior* (11th ed.). NY : Wiley.
- Smith, W., & Guarino, A. J.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rincipal self-efficacy survey(PSES).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10(3), 73-77.
- Tschannen-Moran, M. & Gareis, C. R. (2004). Principals sense of efficacy : Assessing a promising construct.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2 (5), 573-585.

논문초록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

방은영 (총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교수)

본 연구는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및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S시와 K도에 소재한 교회학교의 영·유아·유치부 교사 61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배경 및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묻는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거된 580부의 설문지 중 미 응답 문항과 이상치를 제거한 56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 모두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사를 둘러싼 직무환경의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소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수자기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요소(의사결정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교회학교 교사, 교수효능감, 직무만족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the Cas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양혜원 (Hae-Won Yang)*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with the objectives of performing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and outcome/dilemma regard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In-depth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ocial workers of Taiwha center, document re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perform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consisted of 3 phases including 'begin again', 'forming the basis', and 'flapping for leap'. Two themes, 'healing and restoration' and 'stepping forward slowly based on spontaneity and sincerity'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Two themes, 'being clarified the legitimacy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by internalizing identity' and 'struggling together for establishing concept and finding means'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individuals. Four themes, 'a rich harvest of work', 'social workers' growth of faith · integration of faith and life, and professional growth based on virtuous circle', 'forming a healthy community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and 'progressing a step for constructing the methods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were derived as outcome. Two themes, 'letting go non-Christian colleagues' and 'dilemma as a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that is the long arm of church but not a church' were derived as dilemma. Issues concern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 process of Christian social work, qualitative case study

*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wyang@chongshin.ac.kr

2017년 05월 29일 접수, 06월 30일 최종수정, 07월 04일 게재확정

I. 서론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양혜원, 2016: 164).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기관 중 기독교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고경환, 2006: 68)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일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명의식을 가진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김희수·양혜원, 2008), 과학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대다수 기독교사회복지현장의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현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교회복지사역도 일반 사회복지실천에 기도나 찬양 등 종교적 형식을 일부 첨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박창우, 2013: 690).

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근대적 사회복지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에 여러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목적, 주체, 대상, 방법, 자원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박창우, 2013: 674-675), 일반 사회복지의 방법을 기독교 가치로 점검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조흥식, 2007: 145). 또한 사회복지가 제도화·과학화·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중립이 요구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최무열, 2004: 12), 사회복지실천과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전제와 가치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박창우, 2014: 645).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천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강춘근, 2005: 12; 양혜원, 2007: 155; 박창우, 2013: 673). 이에 더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교회라는 장에서 수행되는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뿐, 관점이나 이념에 근거를 두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¹⁾(이준우 역, 2001: 32).

1) 관련 내용을 이론적 배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체성이나 자세 등 원론적 차원의 통합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김희수·양혜원, 2008: 134-138; 정금선·양혜원, 2015: 191-192). 대다수 기독교 복지기관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으므로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회복지를 뜻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전문직으로, 그러한 신념에 의하여 수행되는 실천의 실제적 양상은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될 것이고, 또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²⁾ 그러나 국내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연구는 크게 실태조사, 기초이론 연구, 대상 및 문제별 교회복지지역 연구,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초이론과 교회복지지역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 사회복지실천방법 중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 적용 가능한 것을 소개하는 초보적 수준으로(김희수·양혜원, 2008: 119-12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재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거나(김희수·양혜원, 2008)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나 사례를 다룬 연구(유장춘, 2003; 장선·김순안, 2012)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다수 기독교 복지기관과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몇 년 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하, 태화복지관)에 주목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2) 국내 및 국외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동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희수·양혜원, 2008),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에 관한 연구”(박창우, 201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신념이 지역사회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특정 지역사회복지관이 기존의 형식적 수준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직 및 사회복지사 개인이 경험한 바를 세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첫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둘째, 태화복지관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셋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및 딜레마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

상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신념에 의하여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인이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명자원들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유장춘, 2002: 90),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리와 정신에 따라 인간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영위되도록 도모하는 모든 노력”(이재서, 2013: 20),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박창우, 2014: 646).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적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복지활동이라는 점이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양성만 역, 1992: 13)을 의미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창

조, 타락, 구속으로,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며,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삼중 렌즈”라고 할 수 있다 (신국원, 2005: 45-46).

반면에 이와 같이 특정한 ‘관점’에 의한 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수 있을 뿐 기독교사회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복지사역을 대표하는 학자인 갈랜드(이준우 역, 2001: 32)는 사회복지는 의료사회복지, 교회복지사역 등과 같이 실천체계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분류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락으로 보이지만, 손용철(2002: 261) 역시 기독교사회복지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기독교사회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창우(2009: 156-157)는 과학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있지 않은 전제들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에서 유독 종교적 패러다임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에서 마르크스주의자나 여성주의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사회복지에 접목시킨 급진 사회복지실천모델이나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모델 등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단지 마르크스주의나 여성주의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특별히 중요시하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양혜원, 2016: 167-168). 특히 세계관은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벗어 버릴 수는 없는 안경”(양승훈, 1992: 20)과 같고, 또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강준근, 2004: 67) 고려할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은 다른 세계관에 근거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사회복지활동이며, 이는 구분되고 분류될 수 있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다.

2.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 비교

그렇다면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사회복지와 일

반 사회복지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와 교회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이 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인접 학문의 지식과 기술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망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천방법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양혜원, 2007: 160-161).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정신에 기초하는 것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의 보편적 인간애와 자유·평등 정신에 근거한다(양혜원, 2007: 161). 일반 사회복지의 이념적 토대에 이웃 사랑의 신학적 근거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김동춘, 2003: 306).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인간관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며, 자율적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적 존재이기도 하다(양혜원, 2016: 171).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의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전적인 자율성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양혜원, 2007: 161; 양혜원, 2016: 172). 궁극적 목적이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과 인간의 행복 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김한옥, 2004: 37).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방법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도 일반 사회복지나 인접 학문의 이론이나 실천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양혜원, 2007: 163).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기도, 찬양, 예배 등 기독교적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형식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당사자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박창우, 2013: 686-687). 기독교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 달리 교회 또는 기독교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의 목적, 방법, 대상, 내용의 결정에서 재원의 출처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교회나 기독교인이 지원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인의 후원만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사회복지는 결국 모든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박창우, 2013: 687-688).

3.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방안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미엑-케이스(Chamiec-Case, 2007)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실천의 전 과정에서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를 일종의 ‘여과장치(filter)’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통합하는 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Chamiec-Case and Sherr, 2006: 271), 첫째 과정(process)통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신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점검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수단이 신앙적으로 정당한지 질문한다. 둘째, 내용(content)통합으로 관점, 태도,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로부터 지속적인 지침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천과정의 의사결정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셋째, 자각(awareness)통합으로 무의식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한 수준으로 영적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흐름은 그동안 사회복지실천에서 배제되어 온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사회복지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었고(손신·신효진, 2010: 201),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회와 기독교 기관,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이 있다(원지영, 2013: 225). 영적 접근이 역경의 극복, 무책임한 행동의 억제, 윤리의식, 이타성, 신체적·정신적 대처능력의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Walsh, 2007, 이혜숙, 2009: 13에서 재인용), 기존의 신체·심리·사회모델에서 신체·심리·사회·영적 모델로 시야가 확대되었고(조운희, 2010:

123), 영적인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에 필수적 영역이자 사회복지실천의 정당한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원지영, 2013: 218).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관련 교육·훈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신앙적 지침과 영성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desto et al., 2006: 83). 기독교사회복지사의 31%가 당사자와 함께 기도한 경험이 있고, 78%는 종교 또는 영적 지지체계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Furman et al., 2011: 192). 미시적 차원 뿐 아니라 기독교사회복지 공동체, 조직문화, 조직성과 차원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동체 및 조직문화 차원의 영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조운희, 2010: 129), 사회복지사의 영성이 강할수록 직무성과가 높으며(이혜정, 2002: 60), 신앙과 실천의 통합은 업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iec-Case and Sherr, 2006: 281).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통합이나 영성적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등 공공의 성격을 갖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의 결과(김희수·양혜원, 2008: 153-154),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정체성, 사명, 자세 등 원론적 차원에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기도, 신앙을 주제로 한 상담, 예배나 찬양, 교회자원 연계 등 초보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기관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기독교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졌는데, 나름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혼란과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관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현장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 그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공감대의 확산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경험, 성과 및 딜레마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방법인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기술과 분석을 시도하고(고미영 외, 2009: 68), 일정한 현상에 관한 특별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심하는 연구방법이다(고미영, 2009: 18). 질적 사례연구는 현상의 변수들을 그 맥락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적합하고(Yin, 1984: 23), 특정적·서술적·발견적·귀납적 성격을 갖는다(허미화 역, 1994: 32-35). 질적 사례연구는 실생활에 닿을 내리고서 현상에 대한 풍부하고 총체적인 보고를 낳으며, 통찰을 제공하고 독자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의미를 조명해낸다(허미화 역, 1994: 60).

2. 연구사례 선정

태화복지관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도, 여성교육, 사회사업을 설립이념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개관하여 ‘태화사회관’을 거쳐 1980년부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95년 종로에서 현재 위치인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전하였다.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어서 타 지역사회복지관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체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에 태화어린이집, 태화초록교실³⁾, 태화해뜨는샘⁴⁾, 강남구청소년쉼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5개 부속시설이 있다.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총 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복지관 소속 직원은 49명(사회복지사 17명)이다(2017. 4. 1. 기준).

3) 발달장애아동 보육시설

4)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태화복지관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해 왔지만, 최근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독교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섬김과 나눔’⁵⁾ 사업의 일환으로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을 실시하면서 가속화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담당했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슈퍼비전을 제공했으며, 이외는 별도로, 태화복지관의 ‘도담도담’ 사업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자문교수로 참여하였다.⁶⁾ 이러한 과정에서 태화복지관이 여타의 기독교복지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 실천현장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경우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 및 경험을 탐구하는데 적합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이에 태화복지관 관계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태화복지관은 복지관 뿐 아니라 부속시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속시설 및 사회복지사 이외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복지관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로 사례를 경계 지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문서자료 검토, 참여관찰 등이

5) ‘섬김과 나눔’은 태화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기획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화복지관을 포함한 5개 산하기관에서 재단의 목표 중 하나인 ‘섬김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였다.

6) 본 연구자가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일부 참여한 경험은 본 연구 수행의 발판이 되었지만, 반면에 연구자의 사례에 대한 선이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후설(Husserl)은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괄호치기(bracketing)’라고 표현하였다. 그가 제시한 괄호치기의 주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가정과 선이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료수집 및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문헌고찰을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신경림 외, 2005: 236). 본 연구자는 괄호치기를 통하여 선이해가 연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1~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대개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에 관해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접 장소는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원칙으로 했는데, 주로 기관 내 상담실이나 회의실 등이었고, 전임 관장과의 면접만 외부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문서자료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련된 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 소책자 등 태화복지관에서 출간한 자료들⁷⁾을 활용하였고,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등 일부 사업기록 자료를 참고하였다. 기관 홈페이지 및 웹 문서 형식의 기관 소식지에 대한 검색도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매주 진행되는 확대책임자(팀장) 기도모임 중 2017년 2월 1일에 진행된 모임과 매주 드리는 직원예배 중 2017년 2월 28일에 드려진 예배에 본 연구자가 참석하여 그 진행과정과 참석자들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주요 내용 및 질문을 메모하였고, 이후 메모를 참고하여 관찰 내용을 반추하면서 현장노트를 작성하였으며, 후속 면접 및 문서자료를 통하여 질문사항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별 분석은 자료를 읽으면서 중심 주제를 찾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검토하면서 관련된 소주제를 찾아서 중심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세밀하게 기술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해석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미영 외, 2009: 72).

연구결과를 면접 참여자 중 3인에게 검토 받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및 질적 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7) 보고서에는 ‘이웃공동체를 꿈꾸다-좋은 이웃 만들기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태화비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태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등이 포함되고, 소책자로는 ‘발자욱’과 ‘발걸음’ 등이 있다. 소책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연구(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심층면접은 ‘도담도담’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와의 면접을 시작으로 하여, 참여자 1인과의 면접을 마친 후 다음 면접 참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현 관장과 전임 관장 등 관장 2인, 부장 1인, 사회복지사 5인 등 총 8인이고, 이들의 대화복지관 재직 기간은 짧게는 4년 10개월에서 길게는 21년이며, 소속 부서는 사회복지사업부, 총무부, 문화교육사업부 등 다양하다. 면접에는 입사 초기부터 줄곧 기독교 사명감으로 일해 온 경우, 반면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되었을 당시 신앙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던 상태여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등, 신앙 및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을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되고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연구과정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 참여자의 권리에 관해 고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면접 내용을 인용할 때 진술자를 기호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특성 상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접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제시하지 않았고 면접 내용 인용 시에도 진술자 기호를 명시하지 않았다.⁸⁾

8) 면접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면접 참여자 전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특정 인용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면접 참여자의 견해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결과분석에 면접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논문에서 면접 참여자 전원의 진술을 인용하였다. 현 관장이나 전임 관장의 면접 내용 중 기관장의 진술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문의 경우에는 본문에 이를 명시하였다(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받음). 또한 기존에 출간된 문서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은 해당 문서자료에 제시된 실명과 직함을 그대로 밝혔다.

IV. 연구결과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대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다시 시작: 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봄

(2009년 9월~2011년)

태화복지관에서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S 관장이 부임하면서부터이다. S 관장 부임 당시 태화복지관은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외부로 많이 알려진 바는 사회체육 프로그램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일명 ‘수영장 사태’였지만, 그 외에도 직원 신분 및 급여체계가 불공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조직 내 갈등도 심각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S 관장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기독교 정체성의 약화에서 찾았다.

“2009년 태화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태화가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이유로 태화의 본질인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기독교적 관점이 개입되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며 종교적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가 설득력 있게 태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당시 모든 분들이 태화의 재정 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재정문제였으나 실제로는 태화의 존재이유가 부인되고 구성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가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정식 관장, ‘발자욱’, p. 14)

S 관장은 자신의 사명을 태화복지관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진리하고 대적이 되는 것”, “세상의 가치들”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먼저 기독교를 내려놓았고 중간관리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였으며, 비정규직 문제 등 불공정한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심한 혼란과 저항이 발생했고 중간관리자들 중 상당수가 기관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직원들은 담

담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기관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다들 담담히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말아서 하시려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S 관장은 부임 초기 대규모 내부공사를 앞두고 중간관리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관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생소한 자리였고, 상당 기간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나 모임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관리자들의 마음을 모아갔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이를 사업수행에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1921년 태화를 설립한 선교사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2) 토대 만들기: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도담도담’이라는 깃발을 들 (2012년~2015년)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201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도담도담’이라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특화사업의 수행이다.

조직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원 영성훈련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먼저 전 단계의 중간관리자 기도모임이 개인별, 팀별, 직급별 기도모임 또는 큐티(quiet time)로 확대되었다. 중간관리자 기도모임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다수의 팀에서 팀 회의에 앞서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영성 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태화복지관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활동하는 직원 동아리가 있는데, 스포츠나 요리 등 일반적 활동을 하는 동아리 외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활동한 영성 동아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온고지신’을 들 수 있는데, 온고지신에서는 태화복지관을 거쳐 간 선배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태화 재직 중 가졌던 사명감에 대해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였다.⁹⁾ 그 외 영성 동아리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동아리, 기관에서 주차나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들을 섬기는 동아리 등이 있다. ‘로그인’ 역시 중요한 직원 영성훈련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부의 스터디 모임으로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관련 논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소집단 학습을 진행하였다. 기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직원예배도 직원 참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월 1회는 목회자의 설교를 대신하여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찬양, 위십(worship), 성극 등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드러진다. 이러한 영성훈련에 대한 대다수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성을 가지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감사하는 마음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되게 내 개인적인 것도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맞물리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해 진행이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그 안에서 증거들을 내 스스로 찾아내면서는 오히려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 과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직 차원의 체계 구축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기록양식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태화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에 ‘기관사명과 관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 사업평가서에 ‘기관사명과 관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평가’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기관의 사명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가서에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변화 사례’라는 항목도 넣어서 사례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존의 양적 평가를 보완함과 동시에 양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

9) ‘온고지신’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발자욱’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아직도 다수의 직원들에게 이러한 항목의 기록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전히 추상적으로 기록하거나 사업을 계획한 후 성경에서 관련 구절을 찾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틀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그걸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점” 하나를 놓아줌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 및 의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반영한다거나 팀장 승진 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 선발 및 진급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이나 기독교 영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슈퍼비전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체계의 일부라고 하겠다.

다른 한 축인 ‘도담도담’은 태화복지재단 ‘섬김과 나눔’ 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태화복지관의 ‘도담도담’은 저소득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적 관점이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가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자원봉사자나 부모교육 강사 등 투입 인력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여 201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까지 3년 간 진행되었다.

‘도담도담’은 관장을 포함하여 대다수 직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나 그 개념이나 방법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담당자는 입사 당시부터 줄곧 기독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기존과는 다른 각별한 수준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또한 담당자,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 등 사업수행 인력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임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참여 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고, 1차년도 말부터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과 담당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등 신앙적 열매도 거둘 수 있었다.

‘도담도담’은 원래 기획된 의도와 같이, 단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서의 경험 및 성과가 담당자로부터 소속 부서로, 또 소속 부서에서 전체 기관으로 흘러갔다. ‘도담도담’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깃발”이 되어주었다.

“○○○ 팀장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나가면서 이렇게 부서로 되고 또 사회복지사업부가 중심이 되고 또 다른 부서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도담도담’ 하나의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깃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태화복지관은 직원 영성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도담도담’이라는 특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3) 도약의 날갯짓: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도약을 위한 날개를 펴 (2016년)

태화복지관은 ‘도담도담’ 이후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점은 ‘태화 비전 2021’을 수립한 것이다. 2021년은 태화복지관이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태화 비전 2021’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S 관장의 후임으로 2014년 부임한 현 Y 관장은 태화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2015년 6월 태화비전위원회 ‘주춧돌’이 구성되어 그해 말까지 미션·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미션·비전 수립이 진행되었다. 미션·비전 수립의 기본 방향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태화,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태화, 조직원이 기대하는 태화”로 설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다. 또한 40명의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12개 팀(시설)별 인터뷰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미션·비전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션·비전의 초안을 도출한 후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 22일 ‘태화 비전 2021 GREAT HARMONY’ 선포식을 가졌다. 이렇게 수립된 태화복지관의 미션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

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이며, 비전은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지역공동체', '기독교영성을 바탕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섬김공동체', '조화를 우선하며 함께 걸어가는 대화공동체'이다. 이 중 '섬김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목표로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실천전략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체 직원들에게, 특히 '주춧돌'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태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거쳐 왔던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태화가 이 시점에서 바로 서야 될지를 계속 자문해보자.”

“지역주민이 태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태화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분들(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사업 담당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워낙 다양한 직종이고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태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보니까 뭔가 직원들이 거기 안에 소속감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중간관리자들의 기도모임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Y 관장은 2016년 초, 중간관리자 기도모임을 강화하고자 부장과 팀장으로 구분하여 모임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 기도모임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2016년 여름, 예상치 못한 난제로 기관이 잠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장들은 매일 아침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로 중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 스터디 모임 '로그인'도 한 단계 발전되었다. 2016년에는 논문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학습하던 수준에서 한 발 나아가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글로 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¹⁰⁾

태화복지관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수립된 미션·비전을 통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재차 천명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목표와 그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10) '로그인'에서는 이렇게 쓰여진 17편의 글을 모아서 '발걸음'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제시함으로써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성장된 모습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2. 조직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 차원 경험의 핵심 주제로 ‘치유와 회복’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도출되었다.

(1) 치유와 회복

태화복지관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조직 차원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S 관장 부임 당시 태화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문제는 크게 재정적 어려움, 불공정성, 관계갈등 등이었는데, 기관의 기독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간의 상처가 점차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주 갈등이 너무 첨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사협의회하면 책상을 다 내려쳐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 직원들이 굉장히 어느 기간까지 고통을 다 감내하겠다는 것을 동의해 주고, 정말 아주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기도모임이라는 주제로 책임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중략)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책임자분들이요.”

(2)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조직 차원에서 볼 때,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긴 호흡의 전진이다.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결정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도담도담’ 담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러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방법이 모호하고 기존 경험도 전무한 상황에서 3년 간 진행될 특화사업을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사명감을 가

진 한 직원이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여 자원하였다. 비전위원회 구성도 자발성이 전제되어, 각 팀별로 자원하는 직원 한 명씩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영성 동아리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구성원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진정성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영성훈련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헛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이야기가 오간다. 비전위원회 실무를 책임진 직원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편지를 건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발성에 이러한 진심 어린 수고가 더해져서인지 위원들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개인의 사명, 기관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맞추기 위해 이곳(비전위원회)에 참여한다’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으면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직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방향성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일부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거나 기독교가 생소한 직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위하여 기관은 “단계를 한 번에 확 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 신앙적 고민이 많았던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민해보라고도 하시고 정말 많이 조언해주셨는데 그때 기다려주신 것, 그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부딪혀야할 부분이 뭐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부분을 막 채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데에, 덜 힘들게 갈 수 있었던 힘이 됐어요.”

Y 관장은 전임자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자신이 거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또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사람도 만드시고 태화에서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 저는 지금 저도 제가 아마 열매도 거두지만 뿌리는 단계인 사람들이나 사업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지금 저는

그 단계를 가고 있음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3.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대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개인적 차원의 경험은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이라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1)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

①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사명으로 받아들임
대화복지관은 기독교 정체성이 뚜렷한 기관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복음전도를 궁극적 사명으로 하여 설립한 기관이라는 역사적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화를 1921년에 세우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귀한 역사로 인식하고 지금 현재도 그게 동일하게 현재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태화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태화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미션과 비전이 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미션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 참여하셨던 모든 직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대화복지관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기독교 정체성이 기관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도 내재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각자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중간관리자들부터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실천을 기독교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다. 모태신앙이지만 신앙과 떨어져 있었던 한 직원은 기독교 정체성이 내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했지만 기관의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독교사회복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와 가지고 그게 어떤 방법이 됐건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책임자들이, 확대책임자들이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지

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실천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실무자 스스로 계속 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내재화가 안됐던 거죠. 내재화가 안되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중략) 사업 자체에 이걸 녹여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갈 순 없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조언 구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하고 느껴졌죠.”

②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태화복지관이 차별화되는 지점

태화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 정체성에 바탕을 둔 사명감과 더불어 태화복지관이 여타의 복지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고 인식한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기관별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태화복지관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고유한 “브랜드”이고,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인식한다.

“옛날에 잘나가던 태화가 내세우던 사회복지기술은 이미 많이 상향평준화가 되었고 우리도 그 어느 기관의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끄러울 일일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로 나아가야 되냐 그것도 사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봐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기독교사회복지밖에 없다. 기독교 영성을 우리의 일로써 녹여내는 것 밖에 없다. 이 일을 도구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브랜드가 되고 어쩌면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 아니냐.”

(2)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

① 나름의 개념을 정리함

태화복지관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사업에 대한 접목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관련 논문이나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서 원론적 개념은 접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막막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간의 고민과 시도, 영성훈련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는 적어도 각자 자신이 이해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먼 나라의 어느 누군가의 것”이 아닌 자신의 정리된 생각이다.

“고민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것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 없어 이 실천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나 물으면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기에 이것이 먼 나라의 어느 누군가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심혜정 팀장, ‘발걸음’, p. 30).”

② 개념의 조각들을 모아감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소통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직원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 꼬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전임 관장의 이해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하면은 뭘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다 각자 다르게 갖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좀 뭔가 지향점이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 조금씩 뭔가 핀트가 안 맞거나 지향,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딱 밀도 있게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S 관장님이 그 세미나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꼬끼리를 이렇게 보면 꼬끼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자 만지는 위치가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꼬끼리 형상일거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도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나에 관한 생각의 “조각들”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명료한 것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실천가의 영성에 달린 것이라는 인식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회복지사”이며,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실무자의 영성”이라는데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니까 서로 물으면 서로가 답을 찾는 누군가가 답을 찾아가고 이런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각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일의 중심을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3-24)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어떤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실무자의 그 영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무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참여자분들로 하여금 투영되게 되어있는 것 같고 참여자분들의 반응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사회복지 전문성보다 기독교 영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즉 기독교 영성이 본질이고 사회복지의 방법론이라는 S 관장의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가치하고 양날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날개가 아닌 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법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사회복지가 본질이고 사회사업은 방법론이구나’라는 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S 관장님께서, 인터뷰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니까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기독교 영성의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고 우선순위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③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이와 같이 태화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통분모를 모아감과 동시에 각자 맡은 사업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분투하고 있다.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은 사회복지사 영성, 사회복지사 관점,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당사자 영성, 기독교 자원 활용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i) 사회복지사 영성 차원

사회복지사 영성 차원의 시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예배,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성찰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영성에 달린 것이라는 인식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으로 사회복지사가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데, 이 역시 사회복지사 영성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고 또 하나님과 더 교제 하면서 가는 것 그게 영성으로도 충만해, 그니까 충만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내 삶에서 계속 중요하게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묵상을 통한 지속적인 영적 성찰과정을 가졌으며, 담당 사회복지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히 깨닫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인간의 절대적 노력보다는 영적인 민감성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실천하고자 했다.”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p. 103)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참여할 당사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돕는 자들과 본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해당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기도한 그 기도문은 제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정말 특별한 일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5)

ii) 사회복지사 관점 차원

사회복지사의 관점 차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점검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관점으로부터 기독교 관점에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연주의에 대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면서 “복음적인 부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실천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여 “재해석”한다. 당사자들을 만날 때 기독교 인간관,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대접한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된 바를 프로그램에 직접 접목하기도 한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본주의적 관점의 지식과 기술, 가치를 내려놓고자 했고 기독교 관점의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재구축(reset)하고자 했다.”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p. 102)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정작 본인에게는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실이 느껴지도록 대하고 이야기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용도연 사회복지사, ‘발걸음’, p. 41)

“예를 들면 캠프라든지 부모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성경적,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겠다.”

iii)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상 의사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하고자 애쓰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통상적 기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에 닿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 실무자든 관계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내가 왜 이 일터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무슨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응대할 때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가 무슨 구청 직원도 아닌데 ‘어머니, 어렵겠습니다’ (중략)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고 다시 설득 드리고 하는 과정이...”

업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이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기독교인의 “향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수고나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에 기초한 훈련된 삶이 원숙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게 하다보니까...”

“(‘도담도담’에 참여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행하시는 복지사님이나 또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멤버들의 좋은 면들, 말하자면 향기? 어... 그 향기를 맡고 ‘아,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24)

최고책임자 역시 자신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중간관리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Y 관장은 중간관리자들이 자신을 따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자 날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결국은 저는 ‘책임자들하고 제가 어떻게 나누느냐,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되면 뭐 기독교사회복지실천까지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책임자들하고 일하면서 ‘관장님을 따라가 보자. 관장님과 함께 가보자’라는 마음이 안 될까. 그거가 안되는 거는 제가 분이 안 되면 금방 그 생각이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저도 싸우는 거죠.”

iv) 당사자 영성 차원

당사자 영성 차원은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기독교 영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를 뜻한다. 이에는 기도, 성경말씀 나눔, 간증, 전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영적 영향력 미치도록 돕기 등이 포함된다.

기도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기도하기를 원하거나 사회복지사의 기도하자는 제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경우 함께 기도한다. 드물지만 집단 프로그램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태화복지관이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 중 기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비기독교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중재한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도와 같은 신앙적 요소가 가시화되지 않아도 신앙과 사회복지가 제대로 통합되는 “바나나 케이크”¹¹⁾ 같은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고요. 그게 저한테 막 큰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게 사실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해주신 바나나 케이크의 형태를 항상 저는 그 모임 안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모임을 제안해주신 어르신한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냥 어르신께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같이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반대하셨던 어머님한테는 ‘지금처럼 같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중재는 계속 했던 경험은 있고요.”

한편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에서는 이와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 당사자 대표들과 담당자가 진행해 온 기도모임을 일반 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있어서 갈등이 초래되었는데, 이때 담당 사회복지사는 반대하는 당사자를 설득해서 기도모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도담도담’이 기독교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것에 당사자들이 동의한 바 있고, 영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반대하는 당사자가 기도모임을 제안한 당사자의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도모임을 전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심에도 ‘그걸 꼭 이제 기도모임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도모임을 확대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모임 내에서 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담도담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부모집단상 담도 하고 다양한 캠프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먼저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 다뤄지면서 그 안에서 좀 서로 이제 영적인 이야기들 주고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먼저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위기가 되려면 또 기도모임 자체가 꾸준히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나왔던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
- 11) 여기서 바나나 케이크는 신앙과 삶의 진정성 있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 교육(2012. 7. 25.)에서 본 연구자가 언급한 내용으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식을 생크림 케이크, 건포도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에 비유한 것이다. 생크림 케이크는 케이크 표면에 생크림을 바른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이원화된 채 가시적인 신앙 활동만 이루어진 경우, 건포도 케이크는 케이크 여기저기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통합이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나나 케이크는 바나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케이크에 바나나가 완전히 섞여진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의미 있게 통합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화와 해당 비유를 접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성경말씀 나눔 역시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다. ‘도담도담’ 담당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우울, 가족문제, 진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주 개별적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은 연초에 개별 사례관리 목표를 수립하면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을 성경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행사항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간증은 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하나인 자기 노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나누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이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도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전도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직접적인 전도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로 적절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논란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정서적 필요 뿐 아니라 영적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는 종교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당사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폈고, 특히 일반적 지원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영적으로 접근하여 지원이 결코 “미끼”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그는 이 과정을 이상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으로 인식했다.

“사실 이분한테는 그런 부분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엄격한 사람들은 종교행위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중략) 정말 이 가정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꼭 안 전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서 교회로까지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지원이나 심리적인 지원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줘야지 당사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사업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중략) 본인이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지원 전이면 그게 이렇게 미끼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원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영적 영향력 미치도록 돕기란, 사회복지사가 모든 당사자들의 영성에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인 당사자가 영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를 통해서 여러 당사자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담도담’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회복지사들은 그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영성을 갖춘 실무자 및 실무자와 중심을 함께 하는 일부 참여가족들로 인해 ‘도담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른 참여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는 가족들을 또 다른 영성을 갖춘 자들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p. 77)

“그 목사님 가정과의 그 접촉들, 어쨌든 힘 실어주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담도담’처럼 12가정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렇게 힘 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세우는 일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생각들은 좀 더 하게 돼요.”

v) 기독교 자원 활용 차원

교회, 목회자, 기독교 전문가 등 다양한 기독교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찬양집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거나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할 때 복지관 홍보물을 같이 배포하도록 하고 교회 도서관에서 지역주민 모임을 갖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고 창의적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주로 자문을 구한다. 신규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에 반영하고, 당사자인 목사님께 해당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한다. 기독교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는 등 기독교 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 그 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유사한 경험을 가진 목사님을 ‘이웃’으로 주선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 자원에 대한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④ 함께함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자 ‘함께’ 분투해왔다. ‘도담도담’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은 이들의 ‘함께함’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함께’ 소명을 품고 ‘함

께' 궁리하고 '함께' 견고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이 의미 있음을 깨닫는다.

“사업을 하기 전에 넷이서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값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네 명 실무자들 간에 나눔을 통한 조금 더 이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 주고 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조금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니 답을 얻을 수 없어도 힘이 났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함께 품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는 발걸음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장현 팀장, '발걸음', p. 88-89)

4.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및 딜레마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등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1) 성과

① 사업의 풍성한 열매

태화복지관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풍성한 사업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비기독교인 당사자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드물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신앙적 변화는 당사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진 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성공한 당사자나 자녀양육에 긍정적 변화를 보인 당사자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머니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그 안에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10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원래 이제 공무원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자신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신 거죠. (중략) 그 이유를 찾고 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정진하는 모습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금은 공무원이 되셨고요.”

“(연계해드린) 목사님이랑 그동안 만나면서 ‘아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가 자녀를 보는 게 관점이 좀 달라지셨다는 거죠.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과거에는 막 때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이에게 좀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전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도담도담’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 프로그램의 당사자들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기쁘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나 당사자들을 남달리 존중하는 자세 등을 충분히 체감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열려 있지 않았을까? 마음이.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우리는 ‘정말 이 프로그램 정말 특별하다. 어디에도 이런 건 없을 거다.’ 아 이렇게, 그런 생각했어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41)

“그러면서 당사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이전과는 다른 내용들로 주시니까 ‘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 중에 뭐였냐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를 만날 때 대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10월 첫 주에 진행된 옹기종기 FGI에서 한 어머니께서 ‘옹기종기에 오면 일단 즐거워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존중을 받았어요?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어요? 별 것 하지 않아도,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담당자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담당자가 당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어요.” (김혜립 대리, ‘발걸음’, p. 47)

②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신앙적 성장은 초기의 신앙 수준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서 나타난 성과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실체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신앙과 삶, 신앙과 사회복지라는 자신의 일을 통합시키게 되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성장이었어요. (중략) 제가 복음, 십자가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실체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죄들을 더 드러내서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 사실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왜 하는지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조금 아 이런 일을 하는 이유, 그 어떤 가치 그니까 가치적으로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직업이나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어가지고... (중략)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힘쓴 시간의 의미를) 삶과 일과 신앙을 좀 통합하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것 같아요.”

더불어 전문가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졌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감동과 기쁨이라는 보상,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에서의 준 감동이나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도 고되긴 하지만 ‘아 이게 정말 사회사업이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깐. 그게 자연적으로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또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여기서 뭐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지면 떠나야겠죠. 지금도 계속 신앙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③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가 형성된 것 역시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태

화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 관해 함께 나누고 점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를 이루었다. 기도모임이나 큐티 등을 통해서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보니 문제가 생길 법도 하지만 서로 경계를 잘 지키면서 성숙하게 상호작용하여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제가 그런 시간에 많이 나누죠. 어려운 결정들을 했을 때에. 저도 역시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 이게 정말 크리스찬 기관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 내가 정말 적절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부대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해주세요’ 요청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저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온전히 집중을 예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주로 저랑 슈퍼비전 오래한 팀장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서 오픈하는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서로를 뭐라고 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개인적인 선을 잘 지키는 것도 있었고.”

④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도담도담’을 수행한 경험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업에 적용해 보았고, 이제는 매뉴얼 작성을 기대할 정도로 “갈때기”가 좁혀졌다.

“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부서 내에서 계속 공유함으로써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사업부가 생각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것들을 점점 정리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영역에 회미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과인 것 같고 이렇게 시도해본 사업들이 결국은 다른 사업들에도 계속해서 영향이 미쳐지는 것, 그리고 ‘도담도담’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부분,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에 기독교사회복지가 뭔지 각자의 생각이나 이런 추상적이지만 이런 방향, 지향, 방향이나 최종 목적 정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한번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조금 적용을 시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매뉴얼, 소위 차기에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들. 점점 이제 이렇게 갈때기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2) 딜레마

①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자 한계로 남은 문제는 일부 믿음이 없는 동료들이 기관을 떠난 것이다.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관을 떠나간 직원들이 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바로 밑에 후임이니까 뭔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신앙적인 부분들로써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성경을 한번 나한테 사달라’라고 해서 성경을 한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네 나름 노력했어요. (중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었죠. 우리 조직 내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현안은 아니다. 기존 사회복지사들 중 비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였거나 혹은 퇴사하여 현재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과 달리 최근 태화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채용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준비된 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관 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관련된 고민도 있다. “잘 믿는 사람 뽑아서 달려 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과 “누가 되었든지 간에 태화에 와서 일하다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 다양한 목

소리가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하여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해보기도 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미션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으로 뽑아야 되는가, 아니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들어와도 거기에 잘 순응하고 적응해서 함께 미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구조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불신자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정말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함께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너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희 팀 동료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만 두시긴 했는데 그 선생님은 비기독교인이었어요. (중략)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실천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되게 확실히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때로는 되게 밋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자극이 되긴 했었어요. 그니까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우면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일부러 이제 비기독교인인 실습생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실습지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향이 되게 많이 끼쳐지더라고요. (중략) 예를 들어 예배나 그런 큐티나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실습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알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너무 감동이었는데...”

②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가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

태화복지관의 6대 관장인 빌링스가 처음 사용한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는 태화복지관의 기독교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지금도 태화복지관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용어가 제시된 배경이 단순하지만은 않고, 당시와 유사한 딜레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할 경계, 그리고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및 존중에 관한 문제이다. 일선 사회복지사들도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문제에 부딪히고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도담도담’에 참여한 목사님이 ‘목회’와는 다른 ‘기

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이야기에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6대 관장님이신 페기 빌링스 관장님께서 대화를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닿지 않는 영역까지 정말 서비스를 잘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주셨지만 그 이면에 ‘왜 교회를 짓지 복지관을 짓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보기에든 목사님들이 보시기에든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시다가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텐데 ‘기독교 정신으로 일한다’라고 하지 ‘기독교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중략) 한국의 교회나 교단이나 사회복지나 다 비슷한 딜레마이기는 해요.”

“이 모임 자체가 계속 어떤 구역모임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목회자 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되어있으시든지...”

다면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특성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다. 탁월한 수준의 사회복지실천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의 역할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에 철저히 두 발을 딛고 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기독교 관점의 부모교육을 계획하면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고민하였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는(기독교 관점의 부모교육) 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하고요. ‘지역교회에서도 다 하는 수행하는 기능인데 복지관이랑 교회랑 다른 게 뭐가 있어?’라는 그거죠.”

“제 스스로 성경적인 어떤 공부, 연구들을 했으면 더 많이 알았으면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신학대학원을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깐, 여기서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 지식들, 신학적 지식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또한 태화복지관 역시, 대다수 기독교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즉 기독교

기관이자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원론적 고층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당사자의 영혼을 움직여주실 것으로 믿고 기독교 색채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려 한다는 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은 이러한 고층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목회자가 기독교 기관이자 지역사회복지관인 태화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함께 그것들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중략) 그거는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저 안에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의 어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기관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잘 녹아내려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뭐 어쨌든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은 향후에는 또 가져가야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화가 이 동네에 큰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면 좋겠음. 교회는 종교라는 제약이 있고, 주민센터는 관공서 느낌이 강한데, 태화는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임.” (태화 비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지역 목회자 인터뷰, p. 76)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는 후속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에 대한 고민도 있다. 일반 복지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훗날의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도담도담’이라는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그만한 예산이 또 지원됐었던 사업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일반 복지재단)라든지에 있어서는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다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받지 않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보조금 베이스로 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꿈을 이제 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상황,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경험, 그리고 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접, 문서자료,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대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논의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바는 지도자의 역할 및 자질이라고 하겠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직의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고, 본격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된 데에는 기관장들의 지도력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들은 탁월한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으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렛대’라든가 ‘100주년을 향한 미션·비전의 수립’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스스로 먼저 기득권을 내려

놓았고, 자신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은 신앙적 성숙이 전제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지향하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조직구성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발성’과 ‘진정성’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패에 핵심적 요인이고 이를 위해서는 ‘긴 호흡’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지도자의 자세와 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화복지관의 경우, 기관장들이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면서 오래 기다려주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자발성과 진정성을 끌어낼 수 있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음 사람의 몫일 수 있다는 자세는 흔히 보기 어려운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도력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대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전략으로 직원영성훈련, 기독교 특화사업, 기록양식 보완, 미션·비전의 수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들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영성훈련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영성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인식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구성하고, 직원들, 특히 신앙적으로 준비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사회복지사, 공동체, 실천방안 등 다면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성과를 거두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도담도담’의 성공적 수행으로 기독교 특화사업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초기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임이 입증되었다. 특화사업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적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유되면서 복지관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성과로 기관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특화사업의 양적 확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관의 신념이 확고하고 기관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의 인식도 분명한

태화복지관의 경우에는 특화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단, 대교회, 기독교복지재단 등의 후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보완된 기록양식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사료된다. 확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특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관념적·표면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내면적 차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차원이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직원영성 훈련이 내실 있게 지속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경험이 축적되어간다면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수립된 미션·비전 2021은 그 수립과정을 통하여 태화복지관 역사의 핵심인 선교적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확고한 틀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 뿐 아니라 도약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소수의 리더가 제시하는 미션·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힘껏 귀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빠짐없이 담아낸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태화복지관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적 함의를 상당 부분 이루고 실천 방안 구축에 있어서도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면접 참여자들 중 다수가 개념에 대한 함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원론적 차원의 개념적 함의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모호함이나 이견 때문에 제시된 견해로 사료된다. 실천 방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발전의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수준은 흔히 패러다임, 관점·시각, 이론, 모델, 실천지혜의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고 구체화되는 역삼각형 또는 회오리 모양의 도식(김혜란 외, 2006: 18)으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 중 한 명은 이를 “깔때기”라고 표현했고, 그 깔때기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패러다임·관점 차원에 근거한 사회복지활동으로 정의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모델·실천지혜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특히 이론이 정립되지 않고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패러다임이나 관점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현장에서 사업을 구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근거하는 ‘세계관’의 속성 상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나 당사자 삶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화되는 양상은 매우 다면적이고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꼬끼리 만지는 것에 비유한 것은 관점의 추상성과 삶 전체라는 넓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아직도 꼬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각자가 접한 꼬끼리의 부위가 확장되고 또 서로가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꼬끼리의 전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확실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다. 꼬끼리의 본질적 특징이 명료하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적 배경이나 성숙도, 당사자나 사업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개인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실천방법들은 김희수·양혜원(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독교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방법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심화된 것이다. 기관 전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중점을 두고, 직원영성훈련이나 특화사업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 중 사회복지사의 영성, 관점, 업무자세 차원의 방법은 기독교 색채가 거의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다. 소위 바나나 케이크에 충실한 방법들인 것이다. 결국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민스러운 방법은 당사자 영성 강화와 기독교 자원 활용으로, 이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기도나 전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혹은 당사자 영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교회나 다른 기독교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차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 전문성, 역할 경계에 대한 이슈라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어떻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실마리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본 연구에 제시된 사례 중 하나에는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전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는 전도에 대한 영적 확신이 있었고, 종교적 중립에 대한 윤리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사자의 종교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비스 제공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전도라는 특정한 기독교사회

복지실천 방법에 대해 ‘적절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가부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전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지침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이 사례와 같이 진행된다면 전도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선택 가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인 것이다. 체계화된 실천 모델의 개발은 여전히 향후의 과제로 남겨지는데, 이를 위해서 질적 연구 등 귀납적 접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입장과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적 연구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업은 성과측정 도구의 개발이다. 어떠한 연구방법이 활용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실천현장과 연구자들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일부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기관을 떠나면서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현재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채용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충분히 준비된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더욱 힘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하는 유연하고 긴장감 있는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열린 자세로 공동체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의적으로 적합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사회복지사가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1), 41-85.
[Kang, C. G. (2004). How to study a Christian social welfare as science. *Faith & Scholarship*, 9(1), 41-85.]
- 강춘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0(1), 9-49.
[Kang, C. G. (2005). A study on the value and ethics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Faith & Scholarship*, 10(1), 9-49.]
- 고경환 (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65-73.
[Ko, G. H. (2006). Analysis of religious organizations'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2001-200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15, 65-73.]
- 고미영 (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Ko, M. Y. (2009).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Seoul: Chongmok.]
- 고미영 · 하경희 · 박정임 (2009).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임파워먼트 실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 63-99.
[Ko, M. Y., K. H. Ha and J. I. Park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f empowerment practice in a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31, 63-99.]
- 김동춘 (2003).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성경과 신학**, 33, 305-330.
[Kim, D. C. (2003). Diakonia of church and national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is an answer for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Bible & Theology*, 33, 305-330.]
- 김한욱 (2004).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실천신학연구소.
- [Kim, H. O. (2004). *History of Christian Community Service and Theology*. Practical Theological Institute.]
- 김혜란 · 홍선미 · 공계순 (2006).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파주: 나남출판.
[Kim, H. L., S. M. Hong and G. S. Kong (2006).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김희수 · 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3(3), 115-164.
[Kim, H. S. and H. W. Yang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Christian social workers' experience. *Faith & Scholarship*, 13(3), 115-164.]
- 박창우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방향. **신앙과 학문**, 14(1),

147-174.

[Park, C. W. (2009). Direction for Christian welfar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Faith & Scholarship*, 14(1), 147-174.]

박창우 (2011).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7, 309-341.

[Park, C. W. (2011).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hristian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eology and Praxis*, 27, 309-341.]

박창우 (2013). 기독교복지의 구성 영역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6, 671-694.

[Park, C. W. (2013). A study on the component scop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ology and Praxis*, 36, 671-694.]

박창우 (2014). 인간관 비교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소고(小考). **신학과 실천**, 38, 625-650.

[Park, C. W. (2014). A study o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human view. *Theology and Praxis*, 38, 625-650.]

손신 · 신호진 (2010).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논단**, 59, 201-226.

[Son, S. and H. J. Shin (2010). The meaning and role of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social work practice. *Theological Forum*, 59, 201-226.]

손용철 (2002).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연구.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255-280.

[Son, Y. C. (2002). A study on th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KCU*, 255-280.]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외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Shin, K. L., M. O. Cho and J. H. Yang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Shin, K. W. (2005). *Spectacles of Nicodemus: A story of Christian World View*. Seoul: IVP.]

양성만 역 (1992). **창조 · 타락 · 구속**.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Yang, S. M. (1992). *Creation · Corruption · Redemption*. Seoul: IVP. Trans.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양승훈 (1992).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서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 [Yang, S. H. (1992).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Christian World View*. Publishing Department of Cooperative Association for Christian University Establishment.]
- 양혜원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 **총신대논총**, 27, 147-171.
- [Yang, H. W. (2007).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ncept and practice model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27, 141-171.]
- 양혜원 (2016).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 및 정체성. **총신대논총**, 36, 159-184.
- [Yang, H. W. (2016). The concept and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36, 159-184.]
- 원지영 (2013).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영성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27, 214-236.
- [Won, J. Y. (2013). Integrating spiritual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Gospel and Praxis*, 27, 214-236.]
- 유장춘 (2002).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 86-135.
- [Yoo, J. C. (2002). A suggestion for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movement.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8, 86-135.]
- 유장춘 (200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통합연구**, 16(2), 9-44.
- [Yoo, J. C. (2003). A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spiritu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6(2), 9-44.]
- 이재서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서울: 세계밀알.
- [Lee, J. S. (2013). *The Roo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oward Welfare Theology*. Seoul: World Milal.]
- 이준우 역 (2001). **교회사회사업**. Garland, D. S.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서울: 인간과 복지.
- [Lee, J. W. (2001). *Church Social Work*. Seoul: Human & Welfare Books. Trans. Garland, D. S.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St. Davids, PA: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 이혜숙 (2009). 영성적 관점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해와 적용. **교회사회사업**, 11, 7-37.
- [Lee, H. S. (2009). The understanding and the application of family resilience

- from the Christian spirituality perspective.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11, 7-37.]
- 이혜정 (2002).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영성과 직무성공에 관한 연구: 가톨릭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H. J. (2002). *A Study of Spirituality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Religious in Catholic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장선 · 김순안 (2012). 기독교 원리를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7(3), 245-269.
- [Chang, S. and S. A. Kim (2012). Effect of applying Christian principle to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the self esteem, social adju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female family violence victims. *Faith & Scholarship*, 17(3), 245-269.]
- 정금선 · 양혜원 (2015). 소형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의 복지사역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0(4), 161-196.
- [Jung, G. S. and H. W. Yang (2015). Participation in church social work by pastors and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Faith & Scholarship*, 20(4), 161-196.]
- 조운희 (2010). 사회복지사의 영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34, 121-148.
- [Cho, W. H. (201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er's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Theology and Ministry*, 34, 121-148.]
- 조홍식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방법론. 조홍식 (편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pp. 139-150).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Cho, H. S. (2007). Concept and method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In Cho, H. S. (Ed.), *The Pandect of Korean Christian Social Welfare*(pp. 139-150). Seoul: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
- 최무열 (2004). **한국 사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집.
- [Choi, M. Y. (2004). *Korean Society and Social Welfare*. Seoul: Press of Sharing House.]
- 허미화 역 (1994). **질적 사례연구법**.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서울: 양서원.
- [Heo, M. W. (1994).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Seoul: Yangseowon. Trans.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Chamiec-Case, R. and M. Sherr (2006). Exploring how social work administrators integrate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Social Work & Christianity*, 33(3), 268-287.

Chamiec-Case, R. (2007). Exploring the filtering role of Christian beliefs and values in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 Christianity*, 34(4), 498-512.

Furman, L. D., P. W. Benson and E. R. Canda (2011). Christian social workers' attitudes on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U. S. social work practice and education: 1997-2008. *Social Work & Christianity*, 38(2), 175-200.

Modesto, K. E., A. J. Weaver and K. J. Flannell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religious and spiritual research in social work. *Social Work & Christianity*, 33(1), 77-89.

Yin, R. K. (198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논문초록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혜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경험, 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관장·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문서자료,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대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과정, 실천 경험,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tudents'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

이원준 (Won-June Lee)*

이희진 (Hee-Jin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832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six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predominant concerns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s of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for whistle-blowers; (2)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to advocate the disadvantaged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ristian group shows lower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and higher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an atheistic group.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relation to the way of perceiving whistle-blowers. Second, among Christian group, these three paths are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e intention for advocacy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The more the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Changshin University),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wjlee@cs.ac.kr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hjlee@handong.edu

lack of social commitment, the less positive perception is given to the whistle-blow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less the intention for advocacy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e more the intention of advocacy, the more positive perception regarding whistle-blowers in the organiz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is not significant. Third, among the group without religion, two paths are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e intention for advocacy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however, the rest is not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While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does not directly have th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 in non-religious students, the intention for advocacy indirectly influence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a mediation effect. According to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effect of lacking social commitment on perceiving whistle-blowers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intention for advocacy are show different tends, therefore,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is prov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above.

Key Words : whistle-blow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1. 서론

1. 문제제기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은 조직의 전·현직 구성원이 내부의 불법적·비도덕적 일이나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목격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외부의 조직 또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이다(박광국 외, 2001: 110). Near과 Miceli은 “내부고발 행위는 현재 해당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조직의 일원이었던 내부인(insider)에 의한 행위”라고 하였다(Near and Miceli, 1985; 박광국 외, 2001: 109-10; 신성자·이원준, 2017: 65-66 재인용).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해 사람들의 비판의식은 상당히 높지만,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에 이를 만큼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한 의로운 행위라는 평가부터, 조직에 부적응한 사람이거나 조직을 배신한 고발자라는 평가까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Barnett, 1992: 37; 박광국 외, 2001:

110 재인용). Bosupeng은 내부고발이 자신의 직장의 비윤리적인 비밀을 드러내거나 노출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직장에서 발생된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리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의 내부고발의 결과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실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직장조직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상충된 가치들이 충돌하고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Bosupeng, 2017: 23).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이 비록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목격하고,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졌다 해도, 그러한 비판적인 인식이 실제로 내부고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드물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또는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회의 문화적 풍토에서,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예: 실직, 승진 및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 구성원들과의 관계 악화, 내부자로서의 낙인 등등)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의리가 없고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내부고발을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서는 내부고발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결국 나쁜 평판을 얻게된다(Bosupeng, 2017: 26). 개인주의적 가치가 중시되는 서구의 문화권과 달리, 관계(relationship) 중심적이고 도덕성 및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더욱 내부고발행위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김기범 · 김시업, 2006: 49-50).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이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매체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재정 및 인사비리, 인권침해사건 등)이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대구일보, 2017.5.14).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생각해 볼때, 사회복지조직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켜, 이로 인해 사회복지조직의 사업 및 서비스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후원사업(물질후원, 노동 및 재능후원 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의 감소와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이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에 연

루됨으로서 파생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신성자·이원준, 2017:64). 국내에서 발표된 내부고발에 관한 선행연구(박흥식, 1991; 박광국 외, 2001; 고길곤·조수연, 2012)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대상도 공무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미래의 사회복지사로 활약할 수 있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 비리들을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주요 관련요인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개척 연구가 발표(이원준·신성자, 2017)되었고, 후속연구(이원준, 2017)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대학생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시험부정행위(컨닝) 고발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는데(이원준, 2017: 2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한 비판의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내부고발은 “사전적 부패억제도구로서 그 파급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크다”(박광국 외, 2001: 109). 그렇기에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래에 사회복지사가 될 해당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연구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른 원조직(상담가,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사회복지조직의 고유의 특성 등을 반영한 관련요인이 추가로 설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사회구성원의 안녕 및 복리(well-being)를 위한 사회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옹호(advocacy)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empowerment)은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역할이기도하다.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가지는 순기능과 함께, 내부고발의 역기능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실직, 승진 및 보직에서의 불이익, 왕따, 밀고자라는 낙인 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법률적 장치(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2001.6.8;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마련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는 있지만,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는 쉽지 않다. ‘관계성’(relationality)과 ‘연결성’(connectedness)을 중요시하는 집단(조직)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의 특성이 여전히 내부고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김기범·김시업, 2006: 49-50; 신성자·이원준, 2017: 66). 이러한 우리사회의 한계점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지만,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고발의 목적이 개인적 이득추구, 복수심 등과 같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될 경우, 내부고발행위는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 내부고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부고발자의 동기(motivation)가 순수하지 못할 경우, 내부고발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클 것이다. 성숙한 사회구성원은 같은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 또는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옹호(advocacy)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런 옹호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게 되는 내부자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indicato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가 내부고발자의 중요한 동기(motivation)가 되었을 때, 내부고발의 순기능은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는, 복지적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이자, 사회복지실천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목적

전술한 논의점을 토대로, 연구가정을 설정하기 위해 몇 가지 추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분명할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 또한 높을 것이고, 옹호개입의지가 강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료된다.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기 보다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한층 더 증폭(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mediator)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치와 부합하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이 지닌 의미 또한 ‘정의’, ‘공의’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기독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정의’(공의)와 같은 가치가 내면화(internalization)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책임성, 약자에 대한 옹호와 같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 가치는, 기독교의 교리와의도 잘 부합된다. 따라서 기독교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대학생들에 비해, 과연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성과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려는 개입의지가 더 강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독교인과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의 경우, 어떤 사안이나 어떤 상황(예: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상황 등)에 처했을 때, 이들이 보일 수 있는 대응양상은, 이들이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예: 이웃에 대한 사랑, 정의 등)이 내면화되어 이들의 행동규범에 반영된 외현화의 결과라는 보는 시각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공 특성상, 사회적 책임성과 약자를 위한 옹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지만, 이들 중에 기독교인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무교인)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를 과연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옹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과연 무교인 보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부고발이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응징 및 처벌(예: 실직 등) 뿐 만 아니라 직장조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 지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론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서 의미 있는 연구과제로 제시했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인식에 사회적 책임성이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과제에 추가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종교배경(기독교인 Vs. 무교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까지 포함한 보다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전술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인식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를 함께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사실들을 토대로 사회복지적 함의(implications)을 모색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책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은 “사회적 의무, 상호성 규범, 그리고 사회정의(이동원 외, 2003; 정수영, 2005: 10) 등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이원준, 2017: 206-7). 사회적 책임성의 개념은 “곤경에 처해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협의의 개념에서 사회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향(orientation)”이라는 광의의 개념까지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Greenberger, 1982:

157; 이원준, 2017: 207 재인용). 사회복지사는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성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기도하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상된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기능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조직 및 기관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실망감과 불신은 그만큼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책임성 및 양심은 내부고발의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Pfeffer, 1982: 99),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 수준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및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insider)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덜 지지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2. 옹호개입의지

옹호(advocacy)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면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행동”(Mickelson, 1995: 95)이다. 옹호는 “소외된 개인, 집단, 계층 등을 대신해서 행동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집합적인 행동을 하거나, 개인 또는 지역에게 힘을 부여하는 행위”이다(Schneider and Lester, 2001: 58).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원조하여 이들의 사회기능 수준을 향상시켜서, 자신들이 속한 사회환경 (또는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원조하는 것만이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minority)들에게 억압적인 사회환경 및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사회개혁(social reform)적 사명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은 다른 원조 전문직(상담, 정신의학 등)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이 지닌 이러한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바와 같이(Cohen and Struening, 1962; Specht and Courtney, 1994; Abramovitz, 1998; Haynes,

1998), 최근 사회복지실천이 미시적 실천개입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불평등 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옹호자나 행동가의 역할보다는 상담가 또는 치료자 역할을 선호하고 더 많이 수행하는 사실이 보고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억압적인 사회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옹호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선영, 2005: 36).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옹호(advocacy)는 사회복지실천을 대표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옹호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상호교환적인 개념이기도 하다(Radian, 2000: 17).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인한 손실은,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자원 및 인적 자원 등의 효과적인 활용을 어렵게 한다. 결국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클라이언트)이 받을 수 있는 혜택(benefits)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회적 불공평성의 문제를 지속·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의 심각성과 내부고발의 당위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옹호개입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분명할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 또한 강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옹호개입하려는 의지가 분명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고,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을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mediator)으로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3.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내부고발 행위자의 특성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rationale)로 ‘자질이론’(trait theory), 조직의 ‘역할이론’(role theory), 그리고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역할정체성 이론’(role identity theory)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자질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들보다 마음이 단단하고 의지(will)가 강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위험부담이 큰 내부고발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Elliston et al., 1985: 25, 박광국 외, 2001: 111 재인용). ‘역할이론’은 내부고발의 원인을 역할갈등에 초점을 둔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과 기대, 즉, 직무, 충성심, 직업윤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양심 등이 충돌한 결과로 내부고발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Rizzo. et al., 1970: 151; Pfeffer, 1982: 99; 신성자·이원준, 2017: 68 재인용). 사회복지사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 및 실천가치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로 인해 상충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업무수행 및 역할을 요구받을 경우, 역할갈등 또는 ‘역할 압력들(role pressures)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내부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박홍식, 1999: 51-53).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및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및 규범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Tajfel and Turner, 1979,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이원준·이희진, 2016: 81-2 재인용). 그럼으로 사회복지학문 및 사회복지전문직에서 강조되어온 주요 가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또는 소외자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평성의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개입해왔다. 사회복지실천은 분배적 사회정의(distributive social justice)의 실천이기도 하다(신성자·이원준, 2017:68).

미국사회사업가 협회 윤리강령에서 제시된 핵심가치(서비스,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능력) 중에 ‘사회정의’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eamer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의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라 하였다(Reamer, 2000; Crabtree, 2000; 전선영, 2005: 39 재인용). 사회의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책무이자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할 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평가는 상당히 단호하고 비판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정리해보면, 사회정체성 이론 및 역할정체성 이론 등을 근거로(Turner, 1982, 1985),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가 보다 분명할 수록,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은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문제에 훨씬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고,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insider)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4.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차이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종교가 강조하는 가치, 규범, 역할, 삶의 방식은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그러한 종교집단(혹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지각 또는 정의하게 되면서 종교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이원준·이희진, 2016: 81; 이원준, 2015: 187). 약자에 대한 보살핌, 양심,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 등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 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이론적 관점(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에서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기독교 집단(조직)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서 형성될 때, 기독교인의 행동양상에는 무교인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원준·이희진, 2016: 81-82).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를 목격하였을 경우, 이들이 취하는 대응양상을 기독교

교의 가치와 가르침(예: 사랑, 공의 등)이 내면화된 행동규범이 외현화된 결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 가르침이 깊이 내면화된 기독교인의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비록 불법적, 부도덕한 일이나 행위를 자행한 사람일지라도, 고발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공의’(정의)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신념으로, 내부고발로 인한 위험부담(예: 실직위험, 승진 및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관계 악화, 밀고자라는 낙인 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소위 초월적인 힘(transcendence)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전제(premise)이기도 하다. 공의, 혹은 정의로움의 가치는 기독교 교리와도 부합된다. 부정부패 및 비리가 자행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위라는 측면에서, 내부고발행위는 기독교의 가치와 교리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의’(정의)의 가치가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 자신의 직장조직에서 발생한 불법적, 부도덕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의롭다는 신념을 가질 때, 내부고발로 인해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및 손실(예: 실직위험, 승진 및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관계 악화, 밀고자라는 낙인 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소위 초월적인 힘(transcendence)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용서’의 가치가 깊이 내면화된 경우,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행위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무교인)에 비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대한 평가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과제라 생각한다. 앞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인식에, 이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부가하여, 사회적 책임성의 직접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종교배경(기독교인 Vs. 무교인), 즉 ‘기독교 유무’에 따라서, 그 양상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하는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직접효과, 간접효과, 조절효과)에 대한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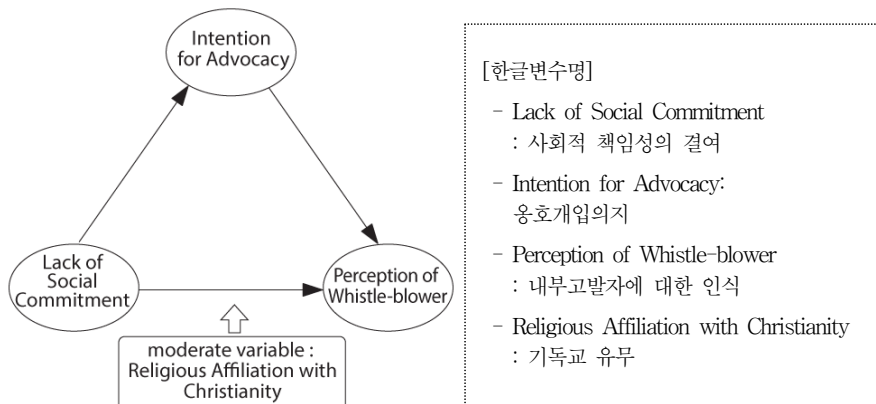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옹호개입의지는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
3.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전공대학생들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무교)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조절(moderating)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들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위치한 대학교(6개)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954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한 표본은 불교 및 기타종교를 가진 122명을 제외한 832명으로 여학생(556명)이 약 66.7%로 남학생(276명, 33.2%)보다 많다. 기독교인이 513명,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319명이다.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 및 회수기간은 약 2개월에 걸쳐서(2012.10-11) 이루어졌다.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1) 종속변수: 조직내부고발자 인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척도(이하 ‘조직내부고발자인식’ 척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평가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척도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신성자·이원준, 2017: 73; 이원준, 2017: 209).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내부자가 고발하게 된 배경 및 상황을 기술한 [시나리오]와 함께 척도문항이 구성된 척도이다. 척도문항내용은 김기범·김시업(2006: 51)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지각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내부고발자의 ‘성격적 특성’(4문항: 소신있다; 성숙하다; 정의롭다; 신뢰할 수 있다)과 ‘대인관계측면’(2문항: 내부고발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친구”라면 얼마나 호감을 갖는가)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내부고발자 인식척도(6개 문항)는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고,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32이다.

[시나리오]

“김두식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역에서 잘 알려진 A 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차 사회복지사이다. 김두식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책임 관리자 및 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관의 책임 관리자와 직원들이 워크숍 등을 핑계로 나이트 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드나들기도 하고, 워크샵

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을 구입(예: 스키, 리프팅, 바다낚시 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예산 집행이 일회성도 아니고 수년 간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신성자·이원준, 2017: 73; 이원준, 2017: 209).

(2) 매개변수: 옹호개입의지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11개)은 구조모형분석에서 모델의 간명성을 높여 정규성과 모수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목묶음(item parcelling)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옹호개입의지 척도는 선행연구(Harbitson, 1991; Neal, 1965)에서 사용한 척도를, 국내에서 전선영이 번안한 척도 내용을 사용하였다(전선영, 2004: 61). 척도문항 내용은 “나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탄원할 것이다”를 포함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거의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의 점수가 더 높을수록 옹호개입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865이다.

(3) 독립변수: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

사회적 책임성은 도덕성의 주요 하위 구성개념이다(조학래, 1996: 4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 척도는 이원준(2015)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척도 문항 내용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조학래, 1996; 이원준, 2015). 척도문항 내용은 사회에 대한 헌신(1문항: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은 대충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1문항: “내 문제도 아닌 사회문제에 대해 알 필요 없음”), 개인적 책임에 기초한 이타성(1문항: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책임은 없음”), 타인에 대한 관심(1문항: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타인의 피해입는 것은 어쩔 수 없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성 척도는 5점 척도(아주 그렇지 않다=1점~아주 그렇다=5점)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내부 사회적 책임성이 부족(결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657 이다.

(4) 조절변수: 기독교 유무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의 직·간접 효과가 ‘기독교 유무’에 의해 어떻게 유의

하게 조절(moderating)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기독교 유무’는 이항변수(0=기독교, 1=무교)이다.

(5) 주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주요 척도들(사회적 책임성, 옹호개입, 조직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해보기 위해서 실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합성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 결과는 Table 1의 내용과 동일하다. A.V.E 값은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 값은 0.7 이상(Bagozzi and Yi, 1988)이어야 양호하다고 평가에 근거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세개 척도의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혹은 합성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nstrument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C. R (Construct Reliability)	.962	.988	.984
A. V. E (Average Variance Extracted)	.868	.942	.932

(6)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의 인과관계(직·간접효과,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이 용이한 통계 패키지인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절대적합지수 RMSEA와 상대적합지수 CFI와 TLI의 값을 각각 제시하였다).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서 정상성(normality)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Schumacker and Lomax, 2004; 홍

1)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2) 기독교=0, 무교=1

세희, 2009),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bias)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Shrout 와 Bolger(2002)의 주장에 근거하여(이원준, 2014: 343, 이희진·이원준, 2016: 85 재인용),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관측변수들(indicators)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측정 변수들의 왜도값은 -1.242~.867 범위에 있었으며, 절대값이 모두 2미만이다. 첨도값은 -.255~1.705 범위에 있었으며, 절대값 7을 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 분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Curran et al. 1996:16-2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N=832)

Variables	Indicator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E	Kurtosis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SC1	2.01	.843	.833	.085	.912	.169
	SC2	1.85	.802	.867	.085	.811	.169
	SC3	2.14	.843	.482	.085	-.082	.169
	SC4	1.84	.806	.864	.085	.829	.169
5 point		1.96	.579	.410	.085	.115	.169
Intention for Advocacy	AV1-2	3.77	.800	-.461	.085	.108	.169
	AV3-4	3.71	.690	-.211	.085	.325	.169
	AV5-6	3.84	.619	-.132	.085	.273	.169
	AV7-9	3.49	.742	-.240	.085	.385	.169
5 point		3.69	.639	-.201	.085	.564	.169
Perception of Whistle-blower	WB1	4.14	.915	-1.242	.085	1.705	.169
	WB2	3.74	.911	-.603	.085	.384	.169
	WB3	4.04	.885	-1.020	.085	1.255	.169
	WB4	3.75	1.000	-.629	.085	.073	.169
	WB5	2.61	1.053	.398	.085	-.255	.169
	WB6	3.69	.952	-.534	.085	.218	.169
5 point	척도	3.66	.703	-.664	.085	1.449	.169

2. 기독교 집단과 무교집단 간의 주요변인들의 평균비교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간의 주요 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척도의 평균에서는 기독교 집단(M=3.6712)과 무교 집단(M=3.6416)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 및 옹호개입의지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독교 집단(M=1.8577)이 무교 집단(M=2.1199)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이 덜 결여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개입수준 또한 기독교집단(M=3.788)이 무교 집단(M=3.577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즉, 기독교 집단은 무교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옹호개입수준이 더 높게 관측되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

	Variables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Christian Group(N=513) Means(SD)	1.8577(.5625)	3.7788(.5599)	3.6712(.7165)
Atheistic Group(N=319) Means(SD)	2.1199(.5680)	3.5771(.5434)	3.6416(.6825)
t(P)	-6.513(.000)	5.111(.000)	.590(.555)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세 개의 잠재변인(‘사회적 책임성의 결여’, ‘옹호개입의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의 반영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832)

Variables	Indicators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SMC
Lack of Social Commitment	SC1	.422	.641	.064	10.086	***	.178
	SC2	.644	.920	.069	13.253	***	.415
	SC3	.489	.734	.065	11.333	***	.239
	SC4	.686	1.000				.471
Intention for Advocacy	AD1-2	.688	1.000				.473
	AD3-4	.833	1.054	.047	22.480	***	.694
	AD5-6	.709	.801	.041	19.611	***	.502
	AD7-8	.792	1.078	.050	21.607	***	.628
	AD9-11	.764	.886	.042	20.964	***	.584
Perception of Whistle-blower	WB1	.746	1.000				.557
	WB2	.841	1.126	.043	25.917	***	.707
	WB3	.862	1.121	.042	26.550	***	.743
	WB4	.809	1.180	.047	24.898	***	.655
	WB5	.251	.376	.051	7.388	***	.063
	WB6	.640	.892	.046	19.367	***	.409

*** $p < .001$, ** $p < .01$, * $p < .05$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chi^2=406.242$, $df=87$, $p=.000$, $TLI=.933$, $CFI=.945$, $RMSEA=.062$)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4. 모형분석

전체 표본(8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chi^2=406.242$, $df=87$, $p=.000$, $TLI=.933$, $CFI=.945$, $RMSEA=.062$)와 동일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성은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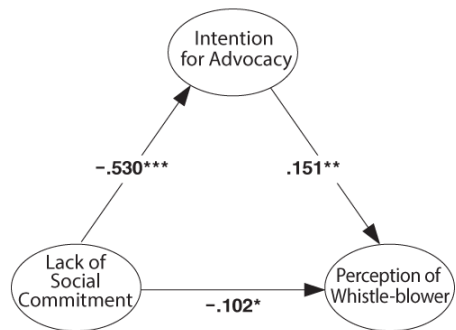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Table 5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Parameter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 (P-valu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530***	-.525	.049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02*	-.129	.065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1**	.192	.059
In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p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95	-.080	.003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0	-.030	
$\chi^2=406.242$, $df=87$, $p=.000$, $TLI= .933$, $CFI= .945$, $RMSEA=.062$			

*** $p < .001$, ** $p < .01$, * $p < .05$

조사대상자(832명) 전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하였던 세 개의 직접경로, 즉, ‘사회적 책임성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102*), ‘사회적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530***),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151**)은 모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옹호개입의지는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옹호개입의지의 부분 매개효과(.095; 하한값: -.150, 상한값: -.030)가 입증되었다(Table 5).

이러한 직·간접효과에 살펴보는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종교배경, 즉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모형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직·간접효과가 기독교인과 무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Table 6)을 실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의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방법(multi-group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기독교집단과 무교집단간 각 연구모형에 설정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의 계수값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선행과제이다.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잠재변인(3개)을 각기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indicators)의 내용에 대해서,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 간에 각각 동일하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집단(기독교집단, 무교집단)간의 비교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되어,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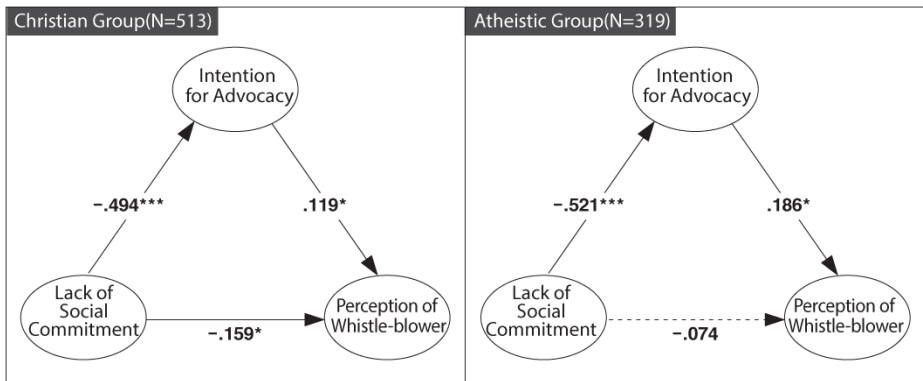


Figure 3.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기독교 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chi^2=473.583$, $df=174$, $p=.000$, $TLI=.926$, $CFI=.939$, $RMSEA=.046$)과 측정모형($\chi^2= 506.860$, $df=186$, $p=.000$, $TLI=.926$, $CFI=.935$, $RMSEA=.046$)을 비교하였을 때, 자유도 차이(Δdf)가 12일 때 카이제곱차이 값($\Delta \chi^2$)이 33.277로, 임계치인 21.03을 초과하였으나, 모형의 적합도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측정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3과 Table

6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Table 6 The Result of Moderate Effect

Christian Group (N=513)				Atheistic Group (N=319)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494***	-.502	.061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521***	-.525	.084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Intention for Advocacy	-.159*	-.195	.081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Intention for Advocacy	-.074	-.095	.122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19*	.144	.072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86*	.238	.106
Indirect Path				Indirect Path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59	-.072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97	-.12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38	.001	.054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226	-.014	.023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chi^2=506.860$ df=186 p=.000,
 CFI= .93, TLI= .926, RMSEA= .046

*** $p < .001$, ** $p < .01$, * $p < .05$

먼저 기독교인 집단의 모형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159*) 경로, ‘사회적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경로(-.494***),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경로(.119*) 경로, 이 세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옹호개입의지 또한 감소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옹호개입의지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비리를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의 간접효과경로(-.059; 하한값: -.138, 상한값: .001)에서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옹호개입을 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인정되지 못했다.

무교집단의 모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설정된 세개의 직접경로 중에서, ‘사회적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521***), 그리고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186*), 이 두 경로는 유의성이 입증되었지만, ‘사회적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074)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전매개(-.097; 하한값: -.226, 상한값: -.014)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접경로(3개) 및 간접경로(1개)에 근거한 직·간접효과는, 조사대상자(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종교배경, 즉, 기독교인이거나 또는 무교인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성결여 및 옹호개입의지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에 따른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사회복지조직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특성들(예: 사회적 책임성, 옹호개입의지)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조직에서와 같이 부정부패 및 비리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내부고발이 사전적 부패억제도구로서 그 파급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면서(박광국 외, 2001: 109),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을 때,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복지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832명)으로, 이들은 과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평가에, 사회복지실천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하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가 미칠 수 있는 직·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부가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옹호’의 가치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치와 부합하고, 조직의 비리를 묵인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부담(risk-taking)을 안고 큰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의 행위는 정의(justice)의 가치와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무교인)과 기독교인 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요인들(사회적 책임성, 옹호개입의지)이 미칠 수 있는 직·간접효과와 영향력에서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대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인식은 기독교인이나 무교인이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독교 집단(M=3.6712)과 무교 집단(M=3.6416) 모두 척도점수 중간값(3점)을 상회하였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도 정도가 긍정적인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의 직·간접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되는 사람일수록 옹호개입의지가 감소하고, 옹호개입의지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현상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들의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이들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조적이었다. 무교집단에서는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정도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직접효과)을 주지는 않았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전 매개(full mediation)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무교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 의지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내부고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에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이들이 모두,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전공자들로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도 유사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성이 더 양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자하는 의지 또한 더 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기독교인들이 무교인과 비교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무교인의 경우, 이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옹호개입하려는 의지가 분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무교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의지가 약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은 기

독교인 사회복지전공대학생과 무교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행동양상의 차이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합요약해보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종교배경(기독교 유무)에 따라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함께, 옹호개입의 매개효과가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을 토대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발생을 예방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교육의 실효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Caillier, 2017).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실증자료는 물론, 본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에 기초한 내용(내부고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 내부고발 동기강화, 효과적인 내부고발을 위한 효능감 강화, 사회적 책임성 향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옹호개입 의지 강화 등)이 충실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의 양상이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 유의하게 상이하다는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두 집단(기독교인 집단 Vs. 무교인 집단)간의 차이(difference)와 각 집단의 현저성(salience)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분석 결과, 기독교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insider)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교 집단에서는 ‘옹호개입의지’를 매개(완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에게는, 이들의 옹호개입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실천적 함의(practical implications)를 얻을 수 있다.

‘보편성’을 지닌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관련 교과과목(예: 사회복지실천윤리 등)과 접목하여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대학에서 공식적인 교과과목에서 특정종교를 가진 학생(기독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기독교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기독교 대학 및 신학대학에서 혹은 일반대학의 기독교인 교수들과 연계하여 개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학에서의 기독교인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학내 기독교 신우회 등과 연계하여 진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개발한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도 보급하여 사회복지조직에서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조직 기관, 시설, 단체 등이 적지 않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사회복지조직의 기독교인 직원들, 특히 처음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묵인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높지 못하였다. 이들이 졸업 후 활약할 사회복지조직에서도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Caillier는 내부고발교육을 통해 내부고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하나는 내부고발교육을 통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조직의 비리를 밝히는 노력을 인정하고, 내부고발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고용인들은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직장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비리행위를 보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신호이론(signal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Caillier, 2017: 10). 부가하여, 내부고발교육에서 익명의 채널을 통한 내부고발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내부고발을 상사나 직장내부에 알릴 수도 있지만(internal whistle-blowing), 공공기관, 혹은 내부고발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등 조직 외부에 알릴 수도 있다(external whistle-blowing)(Caillier, 2018: 10).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부고발이 익명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누가 비리를 보고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행위를 줄일 수 있다. Caillier가 제시한 이러한 교육내용은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에서도 적용해 보고,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과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Caillier, 2018).

넷째,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부고발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문책과 징벌이 따를 수 있는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속한 내부자로서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가들은 타인이 겪는 어려움에 잘 공감하고, 배려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에는 익숙하다. 반면에 모순, 갈등 또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면(confrontation)하는 역할에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감정(죄책감, 혼란스러움, 두려움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선행과제로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내부고발자가 봉착할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회계사(Sherron Watkins)의 내부고발로 Eron과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도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기도 하였다(the Guardian, 2003.6.21). 실직한 많은 사람은 내부고발자를 비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자의 어떠한 영웅주의(heroism)도 입증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자신이 다닌 직장(회사, 조직)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falsified profit)을 얻어냈다는 사실(fact)일 것이다(Bosupeng, 2017: 2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교육을 진행할 때, 이들에게 자신이 내부고발을 고려하거나, 내부고발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죄책감, 분노 등)를 표출하도록 격려하고, 상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자기개방(self-disclosure)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조집단 성격의 소집단 토론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자를 보는 개인의 평가는 ‘조직의 배신자’부터 정의(justice)를 구

현하기 위해 ‘순교자’가 된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내부고발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다양한 요인들(예: 내부고발사안, 개인적 특성, 조직에서의 위치, 조직문화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이 지닌 ‘다양성’과 ‘가변성’(Miceli and Near, 1992: 51, 박광국 외, 2001: 110 재인용)을 반영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진행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풍부한 토론주제를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문화된 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습되고, 내면화된 가치체계는, 졸업 후에 활동할 새로운 공간인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 단체) 안에서도 반영되어, 실천지혜로서, 행동규범의 준거 틀(reference)로서 구조화되어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요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또는 단선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지닌 방법론적 한계점을 극복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직접효과, 매개효과와 함께 조절효과를 함께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역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무교인들 간에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인식에, 사회적 책임성 및 옹호개입의지가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 또는 매개효과는, 두 집단(기독교인 Vs. 무교인) 간에 상이한 양상이 있음이 밝혀져, 종교배경(기독교 유무)을 고려한 효과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설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가 가진 작은 기여점과 의의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 및 설문내용의 제한점으로 인한 한계점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도구(척도)는 단순히 척도문항에 근거한 응답자의 평가형식이 아니었고, 내부고발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한 후,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한 정보 없는 상황에서의 평가에 비해 평가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상황은 특정 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현실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토대로 시나리오 내용을 구성하였

지만, 내부고발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과 가변성을 생각할 때, 특정상황 중심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를 일반화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대상을 기독교인과 무교인에 한정하는 것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독교와 타종교(예: 불교)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주요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가르침이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는 기독교인과 타종교를 가진 사람의 특성에 대응양상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해나가는 연구의 확장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간과한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다양한 심리특성, 조직문화, 제도적 요인 등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길곤 · 조수연 (2012).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46(3), 213-239.
- [Ko, K. K. & Jo, S. Y. (2012).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Tolerance of Corrupt Practi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3), 213-239.]
- 김기범 · 김시업 (2006).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0(4), 47-59.
- [Kim, K. B. and Kim, S. U. (2006). Is the Whistle Blowing Behavior in Organization Just or Cooperativ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4), 47-59.]
- 박광국 · 주효진 · 김옥일 (2001).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학보**, 35(1), 109-125.
- [Park, K. K., Ju, H. J. & Kim, O. I. (2001). Analyzing the Perception Types regarding Whistle-Blowing within the Organization: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1), 109-125.]
- 박홍식. (1991). 내부고발 (whistle-blowing):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25(3), 769-782.
- [Park, H. S. (1991). Whistle-Blowing: Its Theories, Pratices, and Implicat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3), 769-782.]
- 박홍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나남출판사.
- [Park, H. S. (1999). *Logic of Whistle-Blowing*. Seoul: Nanam Press.]
- 신성자 · 이원준 (2017).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부정적 인식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컨닝 고발자에 대한 평가의 매개효과와 통제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1), 63-88.
- [Shin, S. J. & Lee, W.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supportive or critical perceptions toward whistle-blowing on their evaluations for whistle-blowers within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valuation regarding blowing the whistle on exam cheat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bility to control.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5(1), 63-88.]
- 이동원 · 박옥희 (2003).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Lee, D. W. & Park, O. H. (2003). *Social psychology*. Seoul: Hakjisa.]
- 이원준 (2014).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6(1), 333-361.
- [Lee, W. 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Donors' Utility on Their Intention for Donation Continuity Focusing on Private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1), 333-361.]
- 이원준 (2015).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이타행위 노출경험이 기부지속노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성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여부 및 주관적 경제형편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181-212.
- [Lee, W. J.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Private Donors" Experience of Being Exposed to Altruistic Action on their Efforts of Continuing Sponsorship for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ristian Religious Affiliation and Subjective Financial statu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4, 181-212.]
- 이원준 (2017).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컨닝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8, 201-224.
- [Lee, W.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tudents' Perception for Exam Cheating on their Perception for a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8, 201-224.]
- 이원준 · 이희진 (2016).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인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후원 후 감사증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4), 75-104.
- [Lee, W. J. & Lee, H. J. (2016). Effect of Private Donors'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1(4), 75-104.]
- 전선영 (2004).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Jeon, S. Y. (200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work educations, values and advocac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전선영 (2005).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한 사회복지교육과 옹호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 57(4), 35-63.

- [Jeon, S. Y. (2005). A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Work Education and Advo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 Valu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35-63.]
-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ung, S. Y. (200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onation Involvement Levels of Donors*.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이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o, H. L. (1996). *A Study on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on the Self-Identity and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홍세희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구조방정식모형 초급. 서울: S&M 리서치그룹.
- [Hong, S. H. (2009). *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Series 6: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Beginners*. Seoul: S&M Research Group.]
- Abramovitz, M. (1998). Social work and social reform: An arena of struggle. *Social Work*, 43(6), 512-526.
- Ashforth, B. E. and F. Mael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Bagozzi, R. P. and Y. Yi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rnett, T. (1992). Why Your Company should have a Whistleblowing Policy.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57(4), 37.
- Bosupeng, M. (2017). Whistle Blowing: What Do Contemporary Ethical Theories Say?. *Studies in Business and Economics*, 12(1), 19-28.
- Caillier, J. G. (2017). An examination of the role whistle-blowing education plays in the whistle-blowing proces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4(1), 4-12.
- Crabtree, C. R. (2000). *Who We Really A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Attainment and Social Work Value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Curran, P. J., S. G. West and J.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lliston, F. et al. (1985). *Whistleblowing Research: Methodological and Moral Issues*. NY: Praeger Publishers.
- Fornell, C. and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Cohen, J. and E. L. Struening (1962).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Mental Hospital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4(5), 349-360.
- Greenberger, E. (1982). Education and the Acquisi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The Development of Social Maturity*, 155-189.
- Harbison, J. R. (1991). *Value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s of Those Pursuing an MSW Degree: Does the BSW Make a Dif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Haynes, K. S. (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43(6), 501-509.
- McClelland, D. C. (1982). What Behavioural Scientists Have Learned about How Children Acquire Values. In D. C. McClelland (Ed.). *The Development of Social Maturity*. New York: Irvington Press.
- Miceli, M. P. and J.P. Near (1992). *Blowing the Whistle: The Organizational and Leg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and Employees*, Lexington Books.
- Mickelson, J. S. (1995). Advocacy. In Edwards, R. L. (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1*(pp. 95-100). Washington, DC: NASW Press.
- Neal, Sister M. A. (1965). *Values and Interests in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Near, J. P. and M. P. Miceli (1985). Organizational dissidence: The case of whistle-blow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4(1), 1-16.
- Pfeffer, J. (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MA: Ballinger Publishing Co.
- Radian, E. (2000). *Social action and social work education in Canada*. University of Calgary.
- Reamer, F. G. (2000). *Social Work Values & Eth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 Rizzo, J. R., House, R. J. and S. I. Lirtzman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150-163.
- Schneider, R. L. and L. Lester (2001). *Social Work Advocacy: a New Framework for Action*. Brooks/Cole.
- Schumacker, R. E. and R. G. Lomax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y Press.
- Shrout, P. E. and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echt, H., and M. E. Courtney (1994). *Unfaithful Angels: How Social Worker has Abandoned Its Mission*. New York: Fress, MacMillan.
- Tajfel, H. and J. C. Turner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and J. C.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G. Austin and S. Worchel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 C. (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uop Relations* (pp.15-4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s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 & B. Markovsky (Eds.)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2*, (pp.77-122), Greenwich, CT: JAI Press.
- 대구일보 2017. 5. 14일자. “인권 유린 · 각종 비리 근절...내년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http://www.idaegu.com/?c=6&uid=363302>. (검색일 2017.07.01)
- [“Human rights violations, various irregularities ... Closed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next year”, Daegu Il-Bo (2017.5.14.).
Retrived from <http://www.idaegu.com/?c=6&uid=363302> (2017.07.01)]
- the Guardian(2003.6.21.) “Sherron Watkins, Enron whistleblower”.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03/jun/21/corporatefraud.enron> (2017.08.17)

논문초록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원준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희진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교신저자)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에 위치한 6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인식에 사회적 책임성이 미치는 직접효과,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 그리고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발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집단은 무교 집단보다 ‘사회적 책임성’ 수준과 ‘옹호개입의지’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기독교인 집단은 ‘사회적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경로, ‘사회적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될 수록, 옹호개입의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옹호개입의지가 강할 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성 결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무교집단의 경우, ‘사회적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경로와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경로는 유의하였지만, ‘사회적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무교집단의 경우, 사회적 책임성 결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독교 유무에 의해서, 사회적 책임성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주제어 : 내부고발,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공, 사회적 책임성, 옹호개입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The experience of menopausal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

조은주 (Eun-Ju Cho)*

최은정 (Eun-Joung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현미 (Hyun-Mi Cho)***

이민경 (Min-Kyung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eply the experiences of menopausal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es and to reveal its meaning and structure. For this purpose, 8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es experiencing menopausal depression are presented with specific cas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ed them. As a result, six components and sixteen subcomponents were derived. The six components that were derived were 'the uncontrollable change of the body', 'the heart that does not conform to my will', 'the pain that is going down,' 'burden of heart that must be taken as a Christian', the 'Energy of helpful' and 'A religious support'. The categories of 'uncontrollable changes in the body' and 'the heart that does not conform to my will' were found to be difficult due to physical symptoms. The psychological and religious difficulties appeared in the categories of 'the pain that is going down' and 'burden of heart that must be taken as a Christian'. And the categories of 'Energy of helpful' and 'A religious support' are overcoming by the power of family and faith.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concrete plan for the role of education and specialists in overcoming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Key Words : local church, middle-aged women, depressiv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yugin05@naver.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yuchanmom@nate.com

**** 고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Kosin University),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joymuch@kosin.ac.kr

2017년 08월 26일 접수, 09월 17일 최종수정, 09월 18일 게재확정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지역사회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강종봉, 2011),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돌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어떤 역기능적인 상황도 함께 가져온다(안선영, 2010). 또한 교회가 교인들이 자율적이고 성숙한 인격으로 교회 내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교인들로 하여금 자아성취의 길을 열어 놓았을 때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중년기 교회 여성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자아실현도 가능한 것이다(조지행, 2002).

더욱이, 한국교회의 양적 발전을 이룬 것에는 교회 구성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나(이원규, 1994), 교회의 제도와 구도가 개인 및 가족의 성장을 위한 복지를 비롯해 여성의 문제와 요구에는 관심이 부족하다(조지행, 2002). 따라서 한국교회 절대 다수가 중년여성이라는 점에서 중년 여성의 우울증 문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님을 알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성진희, 2016).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의 3억명 가량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18% 이상 증가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WHO, 2017), 2016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61만3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1.5%를 차지했으며 이중 여성이 46만9000명으로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보건복지부, 2017).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통계 자료에서는 50세 이상 69세 이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3배가 넘는 비율로 우울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은 중년기에서만 발생하는 변화와 혼란, 그리고 신체적으로 갱년기와 폐경을 경험하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의 변화로 인해 우울증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김하나, 2009).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우울증을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문상정, 2013: 105-128).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DSM 5)에 따르면 우울증은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

단하고 있으며 주요우울장애란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과 함께,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 피로, 무가치감,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APA, 2013). 갱년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은 주로 여성의 40~50대 갱년기에 주로 나타나며, 주요우울장애의 증상 이외에 실제 경험하는 증상으로 초조, 걱정, 심한 건강염려증, 후회, 죄책감, 절망감, 편집성 성향, 우울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병전 성격이 급하고 예민하며, 강박적·양심적이고 융통성이 적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최명숙, 2002).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우울증 혹은 우울한 정서로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우울증의 문제는 종종 영적인 병, 마귀역사, 귀신들림 등에 귀인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심상권, 1996), Mark R. McMinn(1995: 230-235)은 신앙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경우, 그것을 마치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숨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자책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황광호(2009)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년여성 성도 5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76%(41명)라고 하여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받지 않았더라도 증상 경험으로 고통받는 중년여성에 관해서 논하였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부인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이는 우울증에 걸린 것이 반드시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하는 등의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편견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최악시하여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David A. Seamands, 2001). 우울증은 증상이 심해지면 자학적인 행동이나 자살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권석만, 2000) 우울증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며,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분야에서 교인들의 가정과 영혼을 돌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조지행, 2002).

이러한 중년여성을 돕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전문 상담이 가능한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가를 비롯하여 목회자나 교구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교구간호관 교구간호사가 신앙과 건강이 통합되도록 최적의 안녕을 유지, 증진하도록 돕는 사역으로(Westberg, 1990), 일부 교회에서는 교구간호를 통해 교인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

기도 하지만 교구간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손수경 외, 2002: 182-196).

그러므로 중년여성들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도와주기 위한 교회 내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비롯하여 우울증 예방 교육 및 전문가 역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역교회 중년 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본질적 의미와 우울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교회 중년 여성의 독특한 경험이나 삶의 총체적 상황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경험에 대하여 이해한 후, 그에 따른 교회 내에서의 지지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교회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교회 중년여성이 겪는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밝히기 위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중년이란 성장 발달과정에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간주되는 시기로 여성의 경우 중년기가 생애주기 중에서 매우 현저하고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김은경·이경혜, 2012: 1043-1057).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이 시기에 폐경을 맞게 되며 폐경을 전후로 하여 여러가지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갱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은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일어나며 중년 여성의 50% 이상에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송애리, 2005: 12-19).

갱년기에 겪는 중년여성 건강문제는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정신적 증

상들이 나타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김순안, 2010). 갱년기 증상으로는 난소에서 배란이 중지되고 호르몬이 감소하는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정서, 사회적 변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데 주로 홍조와 발한, 심계항진, 수면장애, 근골격계 통증, 배뇨장애, 신경과민, 우울 등이 나타나며(이경혜 외, 2011: 239-252), 이외에도 여러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대한 위협감, 불안, 자녀 독립에 따른 역할갈등, 상실감으로 자아의식의 위기, 고립, 위축 등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 심하면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최광심 외, 2008: 335-345).

중년여성의 우울증은 생각하는 것이 느려지고 신체활동 감소, 죄책감, 절망감에 사로잡히며 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Lauren, 2006). 특히 중년기는 권태, 쇠약해져가는 활력, 결혼의 위기, 변화하는 가치관 등과 싸우게 되는 시기으로써(Garry R. Colins, 1991)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 증상이 바로 우울증이며, 이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유병율이 2배정도 더 높다(권석만, 2000). 특히 40~50대 중년여성의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적 원인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부재에 따른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나타난다. 우울증을 겪는 중년여성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증상들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 및 심리사회적 기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김교현, 2004). 이러한 우울증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슬픈 감정 상태와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로 설명되어지는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우울증의 증상은 간혹 한 번씩 일어나거나, 일어나더라도 이내 사라지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 자신을 지배하고, 강도가 극에 달하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의 보고자료 중 우울증 진료 현황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중 40~60대 중년여성이 진료현황이 44%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우울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갱년기 증상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 중년여성의 우울 경험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중년기에 들어서 주로 발생하는 위기이다(김영희, 2007). 이러한 우울증의 문제는 한국교회 구성원의 70% 이상

이 여성이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대의 대부분이 중년여성이라는 점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성진희, 2016).

나경인(2004)은 우울경험이란 우울한 기분과 사고력이 떨어짐으로 평소에 어려움 없이 하던 일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정신 운동 저하, 불안, 초조감, 불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은 고통을 수반하며, 증상도 오로지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기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워 글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처절하여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하여 본 사람이 아니면 깊이 알 수가 없고, 울적함이 조금 깊어진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심각한 상태인 것이라고 하였다(오강섭, 2007).

김형숙(2008)은 교회내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5%라고 보고하였고, 중년 기혼여성의 우울은 남성, 청소년, 노인 여성의 우울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김춘경, 2011: 25-51), 이미라(1994: 623-634)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여성보다 갱년기 증상 호소가 낮았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교와 불교보다 갱년기 증상 호소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여 신앙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권숙희 외, 1996: 172-186). 이는 교회 구성원은 잠재된 능력을 종교 활동을 통해 발휘할 수 있으며 종교 활동이 자신의 사회적 의미와 내적 의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교회 내 봉사를 비롯한 중년기 여성의 종교 활동은 중년기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명자, 1998).

지영옥·김미경(2013)은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엘리야와 같은 성경의 인물도 우울증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인도 다양한 원인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질병을 신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받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않고 숨기게 된다(정병태, 2012). 전문가나 신앙공동체가 미리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도, 체면상, 직분상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꺾어 터질 때까지 본의 아니게 은닉하게 되어 더 이상 돌이키거나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영희, 2007). 또한 여성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사회문화가 우리사회 속에 뿌리 박혀 있어 여성이 평가절하됨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감정과 의견을 타인에게 맞추려 하는 여성의 특성이 작용하기도 한다(박금자, 1999).

흔히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파괴적인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문제이다(Archibald D. Hart, 2000).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신앙자체를 포기하기도 하며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우울증 혹은 우울한 정서로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들 스스로가 우울증을 겪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해 버리는 주위의 인식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이를 더 숨김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성진희, 2016).

그러나 한국교회 개신교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에서 80.6%가 정신 질환을 영적인 병 또는 마귀역사나 귀신들림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정병태, 2012). 이로 인해 목회현장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황광호, 2009). 교회의 중요하고 힘든 일의 대부분을 중년기의 성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중년기 우울증을 영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최윤희, 2009).

김영희(2007)는 크리스천 우울증의 특징을 감정의 부정, 혹은 은닉, 과도한, 혹은 잘못된 죄책감, 절망감, 소망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신앙공동체의 평신도와 사역자를 활용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숙쉬로키(2009)는 목회 차원에서 우울증 상담을 너무나 간략하고 조속하게 해결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 우울증에 대한 상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이며, 또한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상담이라고 하였다.

성진희(2016)는 중년 여성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교회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연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황광호(2009)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년여성 성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76%(41명)이며, 개인으로 시작되는 어려움이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고통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우울증을 동반하며, 교회내

중년여성들도 비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목회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교회내에서 잘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났으며, 개인의 어려움이 교회 공동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회내 우울증 대상자의 상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연구한 질적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분석을 통해 교회내 많은 중년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우울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제시 될 것이며,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본질을 발견하고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질적 연구 중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갱년기 우울경험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지역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하고 있는 40세~65세 사이의 중년여성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 지역교회란 부산, 경남지역내의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를 말한다. 둘째 기준은 평소 폐경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갱년기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스스로 표현한 대상자로 하였다. 셋째 기준은 앞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인터뷰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동의한 대상자들 중 우울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우울증 선별 검사도구 중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로 우울증을 측정(신호철 외, 2000: 1451-1465)하여

BDI 점수가 10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Beck은 BDI 점수 0~9점을 정상, 10~15점을 정도의 우울증, 16~23점을 중등도의 우울증, 24~63점을 심한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Beck, Aaron T.1967). 또한 면담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후 허락을 받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었다. 표본 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심층자료를 수집할 때는 6~8명의 단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Kuzel, 1992: 31-44).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7.4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명, 이혼이 1명 이었고 직업이 없다는 5명, 직업 있다는 3명 이었다. 교회 직분은 집사가 4명 권사가 2명, 전도사 1명 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ge(yr)	Marital status	Employment	Church officer	BDI Score
Participant 1	54	divorce	no	deaconess	34
Participant 2	61	married	yes	senior deaconess	11
Participant 3	52	married	yes	deaconess	28
Participant 4	54	married	no	deaconess	13
Participant 5	57	married	no	junior pastor	19
Participant 6	63	married	no	senior deaconess	19
Participant 7	65	married	no	senior deaconess	26
Participant 8	53	married	yes	deaconess	12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2월 8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약 2개월이었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90분이었고 주요 질문은 “중년여성으로서의 갱년기 우울 경험은 어떠합니까?”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했고, 참여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충질문을 이어나갔다. 부가적 질문 내용은 “중년여성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중년여성으로서 가장

보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갱년기 증상 중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갱년기 우울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갱년기 우울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갱년기 우울의 증상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갱년기 우울증상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되어 각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진행하였고. 면담 도중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되어 참여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 스스로가 참여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의 언어로 필사한 후 녹음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원 자료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면담시 재확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참여자에게 확인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1985)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진술을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차례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표현양식과 어휘는 다르지만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과 관련 있는 의미를 추출하였고 총 8명의 참여자로부터 6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이를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로 분류 하였다. 셋째, 주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넷째, 각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기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구조기술을 통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일반적 구조기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하위구성요소로는 16개가 도출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 없이 참여자들이 실제 경험하고 이해하는 모습 그대로를 밝히고 서술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자 자신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본 지식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 학회 및 질적 연구 콜로키움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정신보건간호사로서 10년 이상 정신과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정신간호학 강의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하는 주제와 중

심의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도출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국문학 전공 교수 1명과 간호학 교수 1명의 자문을 받았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심의승인(승인 번호: KU IRB 2017-0005)을 받은 후 진행되었고, 연구자는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주요 질문, 면담 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참여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메모나 필사 시에는 개인 정보는 기입하지 않을 것이며, 수집된 음성 파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하여 3년 동안 보관하고 보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연구자가 직접 관리할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자료를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자료 분석을 마친 후에는 녹음된 자료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필사자료는 분쇄할 것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가 원하고 편안한 곳으로 선택할 것임을 미리 설명하였고, 면담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면담 도중에도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신분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 처리할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구조는 ‘통제 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 ‘꺼져가는 듯한 아픔’, ‘기독교인으로서 저야 하는 마음의 짐’, 이겨낼 수 있는 힘’, ‘신앙이 버팀목이 됨’의 6개 구성요소와 16개의 하위구성 요소로 도출되었다.

Table 2 Livedexperience of menopausal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

Category	Sub-Category
The uncontrollable change of the body	Sudden change of body
	Unexplained pain in the body
	Can not sleep comfortably
The heart that does not conform to my will	Feeling helpless to sink to the floor
	Head is hollow and not concentrate.
	A life without vitality
	Uncontrolled emotion
The pain that is going down	Uncomfortable sadness
	Old memories remain as scars
	Thinking of Death by Yourself
Burden of heart that must be taken as a Christian	Judged as a religious matter
	My self-righteousness
Energy of helpfull	Supported Family
	Thanks for playing my role
A religious support	Positively sublimation
	By the power of faith

1.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 기술

(1) 통제 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중년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 증상으로는 제일 먼저 신체의 변화를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호소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는 참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남을 느끼고 호소하였다. 이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에 열이 나는 느낌, 땀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식은땀이 흘러 힘들었던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동안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손가락이 뻣뻣하고 뼈마디가 쭈시는 통증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두통을 호소하는 등 실제로 신체의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잠을 들이기가 힘들거나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잠을 들이지 못하여 다음날 힘들어하기도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는 등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힘들어 했다.

① 갑작스런 몸의 변화로 인한 당혹스러움

참여자 1의 대부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노화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갱년기인줄 몰랐지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스트레스 받쳐서 열나고 화나서 그러는 줄 알았어 (참여자 1). 지금도 가끔 가다가는 한번씩 확 달아오르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다른 사람은 갱년기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가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2). 누워 있는데 거짓말 안보태고 여기서 땀이 또르륵 또르륵 여기서 흘러지더라. 어떤 사람은 성가대 앉아서도 그런다는데 나는 누워 있는데 한~ 두 번 그러더라고 이게 온 몸에서 땀이 찹질방에 가면 땀이 또르륵 또르륵 떨어지는거 있잖아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또 왜 이렇게 체지방 분해가 안되나.. 먹는게 소화가 안되면서 살이찌더라고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게 한 6개월 거진 1년..작년은 너무 힘들었는데(참여자4). 육십 대에 들어선 내 얼굴을 보니 너무 나를 가꾸지 못하고 (한숨쉬며...) 망가져 있더라고 그때 우울감정이 밀려 온다는걸 느꼈지(참여자6). 아~한 오십대 중반쯤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식은땀도 나고 괜히 얼굴...땀고... 너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하니까 창피스럽더라니까...교회에서 기도회 마치고 어디 밥이라도 먹으러 갈라치면 너무 얼굴에 열나고 땀나고 하니까 남사스럽더라니까...(참여자7). 작년 가을에는 폐경까지 경험하면서 내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고 땀 흘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폐경기를 겪게 되니 얼굴은 열나고, 땀나고... 참 힘들더라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지...(참여자8).

② 원인모를 신체의 통증

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동안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손가락이 뻣뻣하고 뼈마디가 쭈시는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는 등 원인모를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여기 막 팔피테이션이 팍 있으면서 이 손가락이 막 뻣뻣해 오는게 퍼지지도 않고 몸중상도 있고...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숨이 잘 안쉬어 지면서 이 손가락들이 뻣뻣해 저요 이쪽은 막 저려오고 그다음 손발이 막 저려오고 손가락 발가락이 뻣뻣해오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5분쯤 가더라고요. 주무르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 까지(참여자3).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 지고 나가기도 싫고... 너무 안좋아 지니까 변화가 확 180도로 오니깐 힘들 때만 여기 손발이 요런데가 저러가지고 요렇게 요런데 있잖아 왜 발가락하고 손가락 마디마디 이것 요렇게 살짝 부딪히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뼈가 으스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될라나 발가락도 그러고(대상자4). 너무 열 받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잠못자고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참여자6).

③ 편안히 잠들 수 없음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잠을 들이기가 힘들거나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잠을 들이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는 등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힘들어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요 근래는 잠못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벽기도를 못나가요. 새벽기도 갈려고 시간만 맞추면 내가 정신적으로 예민한가 뭐를 하면 완벽주위라서 그런가 시간만 맞춰 놓으면 잠을 못자니까(참여자1). 새벽 서너시 정도 되면 잠이 펄떡 깨지면서 식은땀이 확 나고 가슴이 너무너무 더워지는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잠들기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인제 일어나가지고는 새벽 한 세시반 내시 일어나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의 머리도 안되고..(참여자3). 별 일도 아닌데 괜히 ○○이 아빠가 보기 싫고 볼 때 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 밤새 잠을 못자니까 다음날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다음날 더 힘들고 속에서 열나니까 또 못자고...(참여자6).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니 잠을 못자겠더라... 밤새 잠을 못자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가서 수면제를 좀 타다 먹었지... 지금도 폭 자지는 못해(참여자7).

(2)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

참여자들은 모두가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무력감을 경험하였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이럴 때는 집에 누가 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였다. 마음도 공허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며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 것도 못하고 땅 아래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머리가 멍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건망증 증세가 한번씩 나타나기도 하여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지며 의욕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조절도 잘 되지 않아 예전 같으면 쉽게 참을 수 있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였다.

① 바닥으로 가라앉는 무력감

참여자들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다고 하며 아무런 의욕이 없다고 하면서 몸이 땅 아래로 꺼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매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만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기분은 완전히 쪽 가라앉았지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데...집밖에 나가는 것도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귀찮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려고 몇날 며칠 생각하고 고민을 하

고 있는 내가 웃긴거야(참여자1). 그냥 사람이 멍하게 뉘이 나간사람처럼 순간적으로 멍해질 때가 있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고 별로 삶의 즐거움도 없고(참여자2).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얼굴 벌게지고 땀이 확 나면서 등줄기부터 땀나고 머리 밑에도 땀이 줄줄줄 줄 흘러 내리면서 땅 아래로 막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구요(참여자3).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뭐든지 기분도 침체되고 이러니까 좀 그렇지 기분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좀 안좋아 지더라고 내 몸이 힘들면 누가 오는 것도 힘들고 자식이 봐도 내가 챙겨주고 이래 하다가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서글퍼지고 그러지(참여자4).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막상 돌아가시니 내까지 맥이 확 풀리면서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누워서만 지냈는데(참여자5). 내 나이 육십 되도록 까지 나만 내한테 해 놓은게 뭔가 싶어 공허하고 마음이 착 가라 앉으면서 이상하더라고(참여자6). 나를 위해서 이뤄 놓은거 하나도 없고...참 허무하네. 너무 우울하고 힘들니까 맥이 빠지더라고...(참여자7). 그땐 그냥 괜찮은 척 했는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나봐 마음이 자꾸 가라 앉고 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서 형제도, 시부모님도, 친정아버지도, 남편도 다들 함께 늙어가니 자꾸만 몸이 아픈데가 생기고... 내가 신경써줘야 할 일이 계속 생겼지...(참여자8).

② 머리가 멍해 집중이 안됨

참여자들은 머리가 멍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건망증 증세가 한번씩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건망증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그런게 있더라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정신..이렇게 노년에 이르는 단계를 접어들고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 서글픈거라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거라(참여자2). 한번은 집 비밀번호를 생각이 안나는 거라 저걸 무의식적으로 눌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비밀번호는 다 눌러 봤는데 문이 안열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전화해도 통화가 안돼 큰딸도 안돼 둘째딸도 안돼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인가 세 시간 밖에 앉아 있었어(참여자4). 멍청이처럼 멍~하게 브라질 가서 정신없는 과정에 아들 죽음 확인하고 장례절차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오는데...그때 무슨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왔는지...(한숨, 눈물 흘리며)(참여자7).

③ 활기를 잃은 삶

참여자들은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며 의욕이 더 없어진다고 하였다.

약속을 해 놓고 나면 다음날 되면 너무 후회를 하는거야 내가 왜 만나기로 했지 셀모임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참여자1). 여러 가지 생각차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매일매일 생

활이나 그게 마음이 힘들다 해야 하나 압튼 좀 힘들었지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막상 돌아가시니 내까지 맥이 확 풀리면서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구요(참여자5). 우울하고 화가 나니까 잠을 못자겠더라고... 그러니 낮에 일도 집중이 안되고 손에 안잡히지...수십년을 해 오던 일을 육아 때문에 줄여가며 애보고 집에서 있을 때 웬지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참여자6). 멍청이처럼 멍~하게 브라질 가서 정신없는 과정에 아들 죽음 확인하고 장례절차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오는데...그때 무슨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왔는지...(한숨, 눈물 흘리며)(참여자7). 난 원래 눈앞에 해결할 일 많아도 계획을 세워서 착착 해 내는 스타일인데 자꾸 주변사람들 챙길 일 많아지고 내 몸까지 안 좋으니까 전에처럼 활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참여자8).

④ 조절되지 않는 감정

참여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조절도 잘 되지 않아 예전 같으면 쉽게 참을 수 있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였다.

옛날 같으면 짜증 안낼거를 참을 수 있는 거를 1에서 10까지 하면 7, 8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한 2까지 참았다가 막 화내고 그러니까 불안간에 화내고 그러니까 당황하고(참여자4). 우리 OO이 아빠는 하던 일이 지방근무가 많아서 주로 주말 부부를 하고 살았어 그러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적응도 안되고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이 힘이 들더라고 꼴보기도 싫고(중략) 천불이 나고 원래 주말 부부로 지내던 사이라서 같이 오랜 시간 지냈더니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더라고.... 한동안 한집에서 지내도 밥도 같이 안먹었지...(참여자6). 남편이 그날에도 밥, 양말 등 계속 묻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하나도 없이 너무 괴롭혀서...폭발하면서 평평 울었다니까(참여자7). 폐경기를 겪으면서 생전에 땀 흘리는 것도, 얼굴에 열나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얼굴에 땀을 흘리고 하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 자꾸 스트레스도 잘 받고...(참여자8).

(3) 꺼져가는 듯한 아픔

참여자들이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옛 상처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문득문득 죽음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부분들이다.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충고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라 하거나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하는 반응들은 참여자들이 전혀 이해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과거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상처가 되어 생생하게 떠올랐으며

특히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힘들어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못살거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느 순간 문득문득 죽음까지 생각하는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① 이해받지 못하는 서글픔

참여자들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니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충고하는 등 참여자들이 전혀 이해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별로 신경도 안써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안듣는다니까...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생긴거 멀쩡하고 해입고 다니는거 멀쩡하고 그니깐 내 가슴 아픈건 생각도 안해요. 말을 해봐도 ‘돈있잖아’ 다 그렇게 얘기해 그냥(참여자1). 발가락하고 손가락하고 요런데 꼬집는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안되잖아 근데 남들이 봤을때는 멀쩡한거야 그제...왜 멀쩡한데 아프다고 그러느냐고 이러잖아 왜~~그럼 사람이 진짜 미치고 환장 하겠는거야 이게 나는 진~~짜 너무 아파 죽겠는데(언성이 올라감)(참여자4).

② 옛 기억과 경험의 상처

참여자들은 과거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상처가 되어 생생하게 떠올랐으며 특히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힘들어 했다.

트라우마 같은게 나한테 딱 예전에 트라우마...이 남자랑 살 때 그런 트라우마 들이 앞에서 상황이 딱 하면은 극도로 화를 내는거야 버럭 올라오는거야 안그래야 되는데(참여자1). 옛날에 지나왔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억울했던 일, 억울했던게 너무 많았던거 같아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와요 아...눈물난다 어짜꼬...(참여자3). 내가 일평생 생각해도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살면서 내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지 싶어. 내 나이 육십 되도록 까지 내한테 해 놓은게 뭐가 싶어 공허하고 마음이 착 가라 앉으면서 이상하더라고 육십 대에 들어선 내 얼굴을 보니 너무 나를 가꾸지 못하고 (한숨쉬며...) 망가져 있더라고...(참여자6). 그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대를 끊어 놔다는 등, 너 때문에 아까운 애가 죽었다는 등... 무한반복인거야...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를 믿는 다는게 그러나 하면서...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보면 내가 제일 힘든데 너무 자주 고통을 주는 말을 하고 저주 퍼붓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어느날엔가는 내가 기절을 해버렸어...참나...허~참...(깊은 숨을 들이쉬던 후 내쉬며...)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절한 사람 일으킬 생각도 안하고...(참여자7).

③ 죽음을 생각하는 자신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못살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느 순간 문득문득 죽음까지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자살 할려고 칼 들고 있는데 그 순간에 괜 거야 거기까지 어떻게 간건지 몰라 (어디서) 부엌에 톱니칼은 그거는 뺐다 나가는 건데 정신 딱 차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참여자 1).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인제 아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다운되니까 왜 이렇게 안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안좋은 생각을...진짜 안하는게 아니라 평생 나 이려고 살면 못살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안할려고 하면 왜 이렇게 눈뜨고 있으면서 먼지가 저거를 치워야 되는데 몸이 안움직여 지잖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 이렇게는 못살거 같은데(웃으면서)하하...한번 집정리를 한박스를 한 다서 여섯 박스 버린거 있어요. 내가 없으면 어차피 버려야 할 물건 같은거 정리가 저절로 되더라고...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참여자4). 내가 주방 바닥에 기절해서 누워 있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를 일으킬 생각도 안하고 쓰러져 누운 내 팔위를 넘어 다니면서 겁 가지러가고 몰뜨러가고 하더라고...(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가 그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참여자7).

(4) 기독교인으로서 저야하는 마음의 집

참여자들은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잣대로 판단되어 지는 경험을 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느냐는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특히 직분자로서 마음의 짐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① 신앙적 문제로 판단되는 괴로움

참여자들은 기도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는 등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잣대로 판단되어 지는 경험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새벽기도 안와서 그렇다고....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그래도 사람이 진짜 새벽기도도 해야 하나...? 기력이 없어 못하는데 근데 남들은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때는 집앞에 교회 갔는데 사람들은 왜 본 교회 안 오냐고 그것도 너무 웃겨. 그러면 화가 확 올라오고 말이 안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참여자1). 새벽기도도 이번 특별새벽기도도 몇 번 못나갔어요. 잠을 꿀딱 새우니까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집에서 해야겠다.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죠 권사가 되가지고 새벽기도도 안오나 그렇게 하겠지만...(참여자2). 그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대를 끊어 났다는 둥, 너 때문에 아까운 애가 죽었다는 둥... 무한반복인거야...교회 다닌다는게, 예수를 믿는다는게 그러나 하면서...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보면 내가 제일 힘든데 시어머니란 시집와서 지금까지 이날 이때껏 나를 저주를 하고...하이고야...(참여자7).

② 나를 자책하는 마음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로 힘들어 하며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교인이면 용서도 쉽게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아이러니해 나는 저 집하고도 싸우기 싫어서 나와 가지고도 시어머니한테 일년 반동안 계속 연락을 했는데 내 자식을 키워 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저런...그렇게 하면서 나도 내 속에 미움이 있을 거 아냐 근데 내가 정리를 못하잖아 그에 대한 갈등이 대개 많았지 크리스찬이니까...좋고 위로 받는 반면에 죄책감에 더 시달리게 되는 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한 것도 커요(참여자1). 14살 먹은 강아지가 있는데 백내장이 와서 지금 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앞을 못보고 그애가 우울하고 늘 하루종일 엎드려 있으면 어떤 때 그 아이를 보면 순간적으로 눈물이 팍 나는 거라 아이고 새끼야 니가 앞을 못보는데 내가 니한테 해줄 것도 없고 백내장 수술을 해줘도 니가 나이가 많고 이런데 내가 어떨 때는 죄인인 것 같다 이러면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참여자2). 내가 믿음이 정말 좋으면 이런것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승리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가 안되노 이것도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번씩 죄책감이 들어예 내가 그냥 믿음이 똑바르면 이런 마음도 안들고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내 왜 이렇게 눈물이 많고 우울하고 슬프고 막 자판기만 봐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자동적으로 왜 이럴꼬 하고 한번 씩 자책하고 죄책감이 한 번씩 들었던거 같아요(참여자3). 글썄... 감사하고... 기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힘들때는 그럴 마음도 잘 안생기더라고요(참여자5).

(5) 이겨낼 수 있는 힘

참여자들은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힘든 가운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내었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

현하였다. 자녀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힘든 가운데 계획적인 생활을 해 온 것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① 힘이 되는 가족

참여자들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내가 왜 이걸 드러냈는가 하면 이것도 계기가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우울증 약을 먹었을 거예요 그대로 놔두었다면...여동생이 여동생은 그래도 객관화 시키는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언니 니 분명히 그래 있으면 진짜 정신병원에 간다. 그리고 나중에 60만 넘어도 언니 니가 너무 우울해 가지고 삶을 비판해서 맨날 슬프게 살 것 같다고 정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다 꼬집어내야 된다고 자꾸만 그 나한테 얘기해 주었어요(참여자3).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니까 우리 신앙도 출장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한 3~4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좀 그런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인터넷 뒤져보고 하다가 약도 사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일본 사람들이 뭐 해송이라던가 일본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에 먹는게 있다더라고 그거 먹고 나니까 좀 나건거 같더라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뒤져보더니 그걸 사주더라고(참여자4). 우리 00아빠가 더는 못 보겠던지 내보고 뭐가 하고 싶냐고 묻고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고민을 해보니 공부가 좀 하고 싶어서 그때 우리 000이 대학교 입학할 때 나도 신학대학교 입학 했지요. 공부하면서 내가 참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길 참 잘했다 싶고 그거라도 안했다면 이렇게 잘 회복 됐겠나 싶고(참여자5). 자매들이 많으니까 아플 때 서로 돌아봐 주고..우리 애들이 다 일찍부터 철들어서 자기 앞길 잘 헤쳐나가고...(참여자8).

② 힘든 가운데 내 역할을 해 옴에 감사

참여자들은 자녀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힘든 가운데 계획적인 생활을 해 온 것들이 힘든 가운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내었으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 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 어릴 때 몇푼 더 번다고 나다니지 않고 그냥 애한테 몰빵해서 키웠던게 잘했다 싶어요. 애가 이렇게 성장한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3). 그전에는 그냥 나태하고 그랬는데 인제는 지금은 체계적으로 뭔가를 딱딱딱딱 그냥 몸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때도 뭔가 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뭘 연결해서 안했는데 인제는 하루에 이렇게 뭔가를 꼭 체력이 딸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뭘 하기는 하는데 그 계획표에 따라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스케줄을 잡아

서 그만큼만 해야겠다 그러지(참여자4). 내가 욕심이 넘은 나이에 손녀딸 봐 주고 하면서 그래도 일 다니는 딸 도와줄 수 있으니 뿌듯하지...(참여자6). 무엇보다도 내가 병원 직원이라 가족들이 아플 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도움을 주는 입장 이라는 게 좋더라고(참여자8).

(6) 신앙이 버팀목이 됨

참여자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은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마음과 신앙의 힘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고 기독교인으로서 판단 받기도,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①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승화

참여자들은 우울한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상처로 인한 미움, 짜증과 화로 인한 마음의 갈등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힘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고 했다.

생각은 죽고 싶다는게 왔다 하면 끝 결론은 그쪽이야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거기서 벗어 날려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거 아니면 벌써 그어도 열두 번은 그었을 거야(참여자1). 내가 또 몸이 안좋아 지면서 나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대상자4). 화가 나서...폭발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적 양심 때문에 난폭해지지는 않았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 생각해서 이혼도 안하고 참고 살지. 신앙 때문에 엇나가지 않고 잘 참고, 그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 가질려고 노력하지(참여자7).

② 하나님을 찾음으로 어려움을 극복

참여자들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새벽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오후 저녁 한 해가 지면 뭐라 말 할 수 없는 가슴에서 밀려오는 뭔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막 과~악 감당을 못하겠는거라 그럼 집 밑에 가까운 교회가서 못견디겠다고 하나님께 울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6개월 동안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런걸 하고 나니까 내가 조금씩 순환이 되더라고(참여자2). 다소 침체 되려고 하더라도 기도로 감사로 이기도록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원망도 좀 들었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이겨내려 한 게 좋은 모습인거 같아요(참여자5).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6). 자꾸 몸이 아프고 밑으로 처지는 것 같고 마음이 울적하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난... 뭐 예전에도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좀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할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찬양도 부르고, 듣고... 암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싶어.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 힘들게 겪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는 가지 않고 그나마 신앙이 있으니 잘 회복 한 것 같네...(참여자8).

2.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일반적 구조 기술

본 연구는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구조를 시간적 맥락 속에서 경험된 내용적 흐름에 따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제일 먼저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에 열이 나는 느낌, 땀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손가락이 뻣뻣함,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 두통 등의 신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로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수면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힘들어 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머리가 멍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건망증 증세가 한번씩 나타나기도 하여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지며 의욕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였다.

갱년기 증상들은 우울 증상을 동반하면서 참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니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였으며 아팠던 옛 상처들의 기억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며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못살거 같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문득 죽음까지 생각하는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잣대로 판단되어 지는 경험을 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느냐는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특히 직분자로서 마음의 짐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힘든 가운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내었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황들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마음과 신앙의 힘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판단 받기도,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여 그들 삶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탐색하고 시도한 연구로서 중년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은 16개의 주제와 6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고 도출된 중심의미에 따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첫 번째 경험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권숙희 외(1996: 172-186)와 김하나(2009)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우울증은 가볍게는 두통이나 어깨 결림, 위장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과, 안절부절,

피로, 긴장, 신경질 등의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갱년기 증상과 외모상의 노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냈고,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겪는 신체적 증상으로 열감호소, 식은땀, 불면증 등의 호소가 있다(염정애, 2015)고 하여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갱년기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힘든 가운데도 그대로 생활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면서 이겨내기도 하였다. 이혜숙(2001)은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대체요법 경험 연구에서 호르몬제를 복용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호르몬 복용 후 약 3~20일만에 신체적 불편감이 사라졌고 잠시 중단했을 경우에는 다시 불편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르몬 대체요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다른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이혜숙, 2004).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 중 신체적인 증상들은 대부분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증상으로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것 보다는 신체적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 요법에 대한 교육이 교회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두 번째 경험은 심리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갱년기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 하며, 잠을 자고 난 후에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박혜숙 외(2010: 55-62)의 연구에서 보고 하였으며 신경림(1998: 414-430)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세월에 떠밀려움(고목, 황혼, 쓸쓸함, 맛의 변화, 건망증, 아쉬움), 생생한 일기예보 같음, 힘이 쇠잔해감, 뒤늦게 덜컥 겁이 남, 건강에 힘쓴다라는 주제가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형숙 외(2003: 479-488)는 갱년기 증상의 정서적 증상으로 우울, 불안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퇴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그의 연구에서 갱년기 증상과 우울은 중증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처럼(정도연, 2016), 실제 참여자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이해 받지 못하는 서글픔을 경험했고, 과거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만큼 힘든 경험과 이렇게 살거면 못살 것 같다는 마음들이 문득문득 죽음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경험들을 하였다.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감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한 김하나(2009)는 갱년기 우울경험의 연구에서 이 시기의 심리적 변화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삶에 대한 성찰로 나누어졌는데, 삶에 대한

성찰에서는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자위’, ‘연속되는 힘든 삶에 대한 한탄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삶에 대한 한탄과 분노는 BDI 점수로 중한 우울상태 이상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를 정도언(2016)은 우울을 ‘잃어버린 편지가 되돌아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참여자들이 겪는 경험은 전형적인 우울의 증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미 외(2016)는 아로마테라피를 통해 갱년기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보고하였고, 박선아(2012)는 시치료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이 더 낮아졌음을 보고하였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자기표현을 통한 기법 치료,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중년여성의 위기와 우울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김영희(2007)는 교회내 우울증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내에서 구역과 목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증상으로 인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표현과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세 번째 경험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 따른 신앙적 모습에 대한 타인의 기대가 있지만 참여자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이 힘든 상태이다. 성진희(2016)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교회 내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정서로 우울증을 믿음이 없는 결과로 보는 것이 현실적 문제라고 했다. 우울증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독교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중년 여성들은 마치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치부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울증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야하는 마음의 짐’은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황광호(2009)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목회돌봄의 실천 방안으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삶의 문제가운데 영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 생활의 유지를 돕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윤정화(2013)는 교회내 기독교상담자의 폐경기 중년여성에 대한 인

간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황광호(2009)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장(場)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우울증 예방을 위한 목회돌봄 실천 방안으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교육해야 하고 우울증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 상담 및 교육 담당 교역자 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교회 내의 평신도 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넷째,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네 번째 경험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참여자보다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받은 참여자는 스스로가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갱년기 우울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강성년(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종교적 성향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의 호소는 낮고, 부정적 정서 반응인 우울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의 힘으로 버티게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도출 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지영옥·김미경(2013)의 기독교 중년여성들의 우울증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중에 교회 내에서 부부학교에 참여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 적응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은 증상이 심해지면 자학적인 행동이나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데(권석만, 2000) 우울을 겪는 교회내 중년여성들이 신앙의 힘이 버팀목이 되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이겨 내고 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갱년기 우울로 힘들어 하는 중년여성들 즉,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헌신과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하는(조지행, 2002) 이들을 위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인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울증을 더 이상 개인적인 연약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종합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교회 중년여성들의 갱년기 우울경험을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지역교회 내에서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하는 중년여성들을 위한 지지체계와 방법을 제안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근거로 지역교회 중년여성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이 포함된 총체적 접근, 즉 우울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회 내 전문가로 구성된 사역팀을 이루어 중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중년기 성도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우울증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의 실제적인 접근과 웃음요법, 미술요법 등의 대체요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필요시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구간호의 적용과 확대가 요구된다. 교구간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적절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위한 교구간호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연구자들의 교회 중년여성들 가운데서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연구자 요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독교중년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교회가 갱년기 우울을 경험하는 많은 중년여성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가 되어 치유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성년 (2005).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종교적 성향과 갱년기증상,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Kang, S. N. (2005).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Climacteric Symptom, Depression of the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 Master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 강종봉 (2011). **지역교회에서의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Kang, J. B. (2011). *The Effectiveness of Youth Disciples Training Program at Local Churches on Adolescent's Self Esteem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Dong Eui University, Busan, Kore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진료행위정보.**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5).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보도자료.**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6). <http://www.hira.or.kr>.]
- 구분진 (2013). 일지역 중년 여성의 갱년기증상, 화병과 삶의 질.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2), 5-23.
- [Koo, B. J. (2013). A study of climacteric symptoms, hwabyung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3(2), 5-23.]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Kweon, S. M. (2000). *Depression.* Seoul: Hakgisa.]
- 권숙희 외 (1996).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 [Kweon, S. H. et al. (1996).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opausal symptom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3(2), 172-186.]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10, 55-68.
- [Kim, G. H. (2002).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 55-68.]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Kim, M. J. (1988). *Development in Middle Adulthood.* Seoul: Kyomunsa.]
- 김순안 (2010). **갱년기 여성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박사

- 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im, S. A. (2010). *A Study on Influential Variables on Climacteric Women's Meaning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 김신미·송지아·김미은·허명행 (2016). 아로마테라피가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스트레스, 우울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대한간호과학회지**, 46(5), 619-629.
- [Kim, S. M., Song, J. A., Kim, M. E., & Hur, M. H. (2016). Effects of aromatherapy on menopausal symptoms,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a systematic review. *J Korean Acad Nurs*, 46(5), 619-629.]
- 김영희 (2007). 크리스천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유:God-images를 중심으로 한 목회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9, 31-67.
- [Kim, Y. H., (2007). The healing Power of God-images in Pastoral Counseling for Christian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9, 31-67.]
- 김은경·이경혜 (2012). 기혼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병인에 관한 연구-폐경에 대한 태도와 가족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1043-1057.
- [Kim, E. G., Lee G. H., (2012). The factors related to the menopausal symptoms of married middle-aged women: focus on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menopause and family related variabl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9(6), 1043-1057.]
- 김춘경 (2010). 중년기 우울 여성의 우울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1(4), 1783-1806.
- [Kim, C. G. (2010). A qualitative study on depression experiences of middle aged depressed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4), 1783-1806.]
- 김하나 (2009). **중년 우울증 여성들의 생애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 성장기 가정 내 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H. N. (2009).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the Life Experience of Middle - Aged Women with Depression: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Experience in the Growing Family*. Masters Dissertatio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형숙 (2008). 우울증을 가진 중년 기독교여성의 상담 경험. **산학논단**, 54, 111-149.
- [Kim, H. S. (2008). Counseling experience of the middle-aged Christian woman

- with depression. *Theological Form*, 54, 111-149.]
- 나경인 (2004). **인생의 두 번째 고비, 우울증**. 서울: 북스.
- [Na, G. I. (2004). *The second hump of life, Depression*. Seoul: Books.]
- 문상정(2013). 중년기 여성의 부부갈등과 부정적 정서간의 관계. **관광경영연구관광경영학회**, 17(3), 105-128.
- [Mun, S. J. (2013). The middle-aged women's relationship with marital conflict and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7(3), 105-128.]
- 박금자 (1999). **중년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Park, G. J. (1999). *A Structural Model for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박선아 (2012). **중년기 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 [Park, S. A. (2012). *The Development of the Poetry Therapy Program for Decreasing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and Its Verification of Effect*. Masters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박혜숙·김애정·배경의 (2010).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와 폐경기 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3(2), 55-62.
- [Park, H. S., Kim, A. J., & Bae, G. E. (2010). Life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adaptation of middle-aged women in the menopause period.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13(2), 55-62.]
- 박형숙·김상금·조규형 (2003). 일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우울,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479-488.
- [Park, H. S., Kim, S. G., & Cho, G. H. (2003). A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4), 479-488.]
- 보건복지부 (2017). **정신질환 실태조사**.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Mental illness survey*.]
- 성진희 (2016). **기독교중년여성의 우울증 개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Sung, J. H. (2016). *A Study on Depression Improv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Christian Middle-Aged woman*. Doctoral Dissertation. Christi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손수경 · 강경자 · 이지현 · 이영은 · 박춘화 (2002). 부산지역 목회자의 교구간호사업 요구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182-196.
- [Sohn, S. K., Kang, J. K., Lee, J. H., Lee, Y. E., Park, C. H. (2002). The Demands on Parish Nursing Services by Pastors in Busan, *The Journal of Korea Community Nursing*, 12(1), 182-196.]
- 송애리 (2005).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와 관련된 건강요인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1), 12-19.
- [Song, A. R. (2005). Health factors related to management of menopause among climacteric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1), 12-19.]
- 신경림 (1998). 중년기 여성의 폐경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관한 체험 연구. **한국간호학회**, 28(2), 414-430.
- [Shin, G. R. (1998). The lived changing body experience of postmenopause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414-430.]
- 신호철 외 (2000). 우울증 선별 검사 도구로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의 타당성. **대한가정의학회지**, 21(11), 1451-1465.
- [Shin, H. C. et al. (2000). Detection of depression in primary care = validit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1(11), 1451-1465.]
- 안선영 (2012). **중년기독교인의 우울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교회 내 상담사의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An, S. Y. (2012). *The Need of In-Church Counselors for the Recovery Self-Respect and Depression in Middle Aged Christians*. Masters Dissertation. Baejae University, Daejeon, Korea.]
- 염정애 (2015). **중년여성의 갱년기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대학교.
- [Yeom, J. A. (2015). *Study on Menopausal Experience of Middle Age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윤정화 (2013). **폐경기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Yun, J. H. (2013).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Doctoral dissertation. Baeksuk University, Seoul, Korea.]
- 이경혜 외 (2011). 경남지역 일부 갱년기 · 폐경기 여성의 식사와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신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6(2), 239-252.
- [Lee, G. H. et al. (2011). Climacteric and menopausal women's beliefs on daily

- meals and food supplements -A focus group interview study-.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16(.2), 239-252.]
- 이미라 (1994). 폐경에 대한 적응과정. **대한간호학회지**, 24(4), 623-634.
- [Lee, M. R. (1994). Adaptation process to menopau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4), 623-634.]
- 이원규 (1994).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 [Lee, W, G. (1994). *The reality of Korean churches*. Seoul: Bible Research Publishers.]
- 이혜숙 (2001).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대체요법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Lee, H. S. (2001). *The Experiences of Postmenopausal Women abou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혜숙 (2004).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완화를 위한 대체요법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1), 149-160.
- [Lee, H. S. (2004). The experiences of alternative therapy with the menopausal symptom in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1), 149-160.]
- 정도연 (2016). **프로이트의 의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Jeong, D. E. (2016). *Freud's chair*. Seoul: Woongjin knowledge house.]
- 정병태 (2012). **기독교 중년여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성경독서치료의 효과 - 시편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Chung, B. T. (2012).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with Bible upon Middle-aged Christian Women Suffering Depression: Focused on the Book of Psalms*. Doctoral Dissertation. Hanyoung University, Seoul, Korea.]
- 조지행 (2002). **중년기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교회**.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o, J. H. (2002). *The Stress of Middle Age Woman and the Church*. Masters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지영옥 · 김미경 (2013). 성경적 상담을 통한 기독교 중년 여성들의 우울증 회복 과정 - 근거이론적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21, 292-321.
- [Ji, Y. O., Kim, M. G. (2013). Depression recovery processes of christian middle age women through biblical counseling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1, 292-321.]

- 최광심·오현이·심정신 (2008).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우울과 대처와의 관계.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지**, 33(3), 335-345.
- [Choi, K. S., Oh, H. E., & Shim, J. Shim, C. S.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mptom, depression and coping among middle-aged women.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3), 335-345.]
- 최명숙 (2002). 중년여성의 신체불만족, 우울과 섭식장애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570-582.
- [Choi, M. S. (2002). A study on eating disorder, depress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f middle aged women. *Korean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8(4), 570-582.]
- 최원상 (2012).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Choi, W. S. (2012). *A Pastoral Counseling Approach to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Chumnam, Korea.]
- 최윤형 (2009). **중년기 그리스도인의 우울증 치유를 위한 성경적 상담 사역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Choi, Y. H. (2009). *A Study on Biblical Counseling Casefor Healing of Middle-aged Christians'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현숙쉬로키 (2009).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Shiroki, H. S. (2009). *A Study on the Depression of the Middle Aged Woman*.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 University, Seoul, Korea.]
- 황광호 (2009). **중년 여성의 우울증 이해와 치유를 통한 목회돌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외국어대학교.
- [Hwang, G. H. (2009). *The study of ministry through understanding thehypochondria and the healing for middle ag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Kyong 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yungbuk, Korea.]
- 권준수 역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TM*. 서울: 학지사.
- [Kweon, J. S. (201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TM*. Seoul: Hakgisa.]
- 송헌복 역 (2001). **상한 감정의 치유**. David A. Seamands. 서울: 두란노서원.

- [Song, H. B. (2001). *The upper limit of emotion*. Seoul: Duranno. David A. Seamands.]
- 심상권 역 (1995). **우울증 상담**. Beck, Aaron T. John Rush, Brain F Shaw, Gary Emery and Hart, Archibald D. 서울: 두란노.
- [Shim, S. K. (1995). *Cognitive of Depression, Counseling the Depressed*. Seoul: Duranno. Hart Beck, Aaron T. John Rush, Brain F Shaw, Gary Emery and Archibald D.]
- 오강섭 역 (2007). **우울증은 치료된다**. 와타나베 쇼. 서울: 동도원.
- [Oh, K. S. (2007). *Depression is cured*. Seoul: Dongdowon. Watanabe Show.]
- 이수민 역 (2006). **우울증 내 안의 파란열정**. Lauren, D. (1998). 서울: 현실 문화 연구.
- [Lee, S. M. (2006). *(The)Deepest blue : how women face & overcome depression*. Seoul: Realistic Culture Research Publisher. Dockett, Lauren (2001).]
- 정동섭 역 (1995). **기독교 상담과 인지요법**. Mark R. McMinn (1995). 서울: 두란노.
- [Jung, D. S. (1995). *Christian Counseling and Cognitive Therapy*. Seoul: Durano. Mark R. McMinn.]
- 정동섭 역 (2000). **우울증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 Archibald D.Hart. (2000). Dark Clouds Silver Linings. 서울: 요단출판사.
- [Jung, D. S. (2000). *Dark Clouds Silver Linings*. Seoul: Yodan Publishing Co.]
- 정동섭 역 (1991). **훌륭한 상담자**, Garry R. Collins. 서울: 생명의 말씀사.
- [Jung, D. S. (1991). *Great counselor*. Seoul: A mystery of life. Garry R. Collin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Beck, Aaron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Medical Division. Harper & Row.
- Giorgi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Kuzel, J. (1992). Sampling in qualitative inquiry, BF Crabtree and & WL Miller, Editors. *Doing qualitative research*, 1994, 31-4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 CA : Sage.
- Morse, J.M., & Field, P.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London: champman & Hall.
-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Westberg G. E. (1990). *The Parish Nurse : Providing a Minister of Health for your Congregation*, Augsburg Minneapoli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mental_health/management/depression*, Geneva: http://www.who.int/mental_health/management/depression/en/.

논문초록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조은주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최은정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조현미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이민경 (고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교회 중년여성이 겪는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밝히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갱년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교회 중년여성 8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례를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16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6개의 구성요소는 ‘통제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 ‘꺼져가는 듯한 아픔’, ‘기독교인으로서 저야하는 마음의 짐’, ‘이겨낼 수 있는 힘’, ‘신앙이 버팀목이 됨’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의 범주는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것이 나타났고, ‘꺼져가는 듯한 아픔’, ‘기독교인으로서 저야하는 마음의 짐’의 범주에서는 심리적, 신앙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겨낼 수 있는 힘’, ‘신앙이 버팀목이 됨’의 범주는 가족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들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도와주기 위한 교육 및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역교회, 중년여성, 우울 경험, 질적연구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Korean Nurse Missionary's Experience in Oversea Missionary Work

한미영 (Mi-Young Han)*

손수경 (Sue-Kyung Sohn)(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Korean nurse overseas missionar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nine female nurse missionaries who had spent more than 2 years in overseas mission fiel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May 2013 to September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Results: The general structure of Korean nurse missionary's experience was 'living as a Christian nurse in a foreign land'. 6 constituents extracted from this analysis were made up of 'mission calling and preparation', 'encountering the strange and unfamiliar world', 'being overwhelmed by the situations of the land', 'recognizing self, others, and the mission', 'joy and feeling worth to see the changing land', 'growing spirituality'.

Conclusions: These findings provide deep understanding of lives and difficulties of nurse missionaries working in overs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eded to develop and intervene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 that are helpful for nurse missionaries.

Key Words : missionary nurse, mission, phenomenology

이 논문은 한미영 (2015).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중에서 일부를 이 논문의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illa University),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hmyr@silla.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Departmen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sue@kosin.ac.kr

2017년 08월 17일 접수, 09월 16일 최종수정, 09월 16일 게재확정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근대간호는 서양간호선교사들에 의해 동양에 전달되었으며, 한국의 근대간호 역시 Heathcote, Shields와 같은 간호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명숙 외, 2011: 256; 이상규, 2009: 242). 기독교간호사들의 해외보건의 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간호사들은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타국에서 간호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용숙, 2009: 1-2).

2016년 해외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의료인의 수는 689명이고, 통계자료가 활동 선교사의 수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실제 선교사의 수는 이보다 더 많으며(인터넷자료, 2017.1.23), 그 중 50% 이상이 간호선교사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간호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역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간호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습득,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선교지에서 직접적 도움을 받을 자원과 인력의 부족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성장배경과는 다른 타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탓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사역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장훈태, 2012: 205-206). 해외 파송 한국 간호선교사들 중 10년 이상 장기사역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간호선교사의 22.6%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내한 외국인 선교사의 비율이 49.1%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양용숙, 2009: 57 재인용). 그러므로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양질의 해외사역을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파송 한국 간호선교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직무를 분석한 조사연구가 한 편 있었다(양용숙, 2009). 그리고 관련 국외연구는 간호선교의 변화 방향 고찰과 효과적 간호선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종설연구와(Bajkiewicz, 2009; Tazelaar, 2011), 다양한 영역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안녕과 멤버케어의 효과를 연구한 질적연구가 있

었다(Camp et al., 2014; Keckler et al., 200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선교사나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고, 대부분 종설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간호선교사들은 귀국 시 사역보고나 간증 등의 발표기회를 가지나, 그들의 심층적인 경험 전반에 대하여 나누고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호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그들의 실제적 필요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야 하나, 이를 위한 자료도 피상적이고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간호사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개별적 독특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귀분 외, 2005: 159-163). 따라서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선교 경험을 시간적, 상황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 간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선교사로서 해외선교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통하여 파악된 간호선교 경험의 핵심적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인 간호사 출신으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선교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자료의 포화를 위해 선교사역의 종류, 결혼여부, 선교경력을 고려하여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B시의 S병원과 B병원 간호부의 협조와 연구참여자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당시 4명의 참여자는 영구 귀국, 5명의 참여자는 일시 귀국한 상황이었으며, 미혼 사역자가 5명, 기혼사역자가 4명 이었다. 참여자들은 현지 병원의 간호관리자, 지역사회보건간호사, 간호대학 교수, 의료봉사, 교회개척, 상담, 관할 선교지를 총괄하는 리더로 일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최저 33세부터 최고 50세까지 이었다. 사역지는 5명은 아시아, 2명은 아프리카, 1명은 북아메리카, 1명은 남아메리카 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별 면담횟수는 2회에서 5회까지 이었으며,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까지 총 28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귀하의 해외선교 경험은 무엇입니까?”이었다.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에는 준비한 부가적 개방 질문을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 관찰한 사항은 참여자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이었다. 연구를 위한 메모는 참여자의 진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면담 도중 가능한 삼가하였으며, 참여자와 헤어진 후 기록하였다. 참여자와 2차면담은 1차면담의 내용 중 미흡한 상황에 대한 확인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수행된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Giorgi, 1997: 235-260; Giorgi, 2012: 3-12; Giorgi, 1985, 신경림 외 역, 2004: 19-35). 첫째, 전제없이 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였다. 둘째, 간호선교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경험진술이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의 의미단위를 구별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시키고, 변형된 의미단위들의 관련성을 서로 비교, 대조하며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각 참여자의 통합된 의미단위들을 분석하여 핵심개념을 찾고,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자료를 회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자료의 적합성과 추상성을 높여 나갔고, 자료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같은 속성과 차원 수준으로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분석하고 수정하였다. 넷째, 구성요소들 간의 일관성 있는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Lincoln, Guba, 1985: 294-331). 첫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2년 이상 해외선교 경험이 있는 간호선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1년간 실시되는 의료선교훈련을 이수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3인에게 다시 읽도록 하여(member check)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기술이라는 검토결과를 얻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간호선교사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자료가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여 보다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면담과 필사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과정 전체를 계속적으로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았다(audit trail). 넷째, 연구의 중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반성적 일기(reflective journal)를 기록하여 자

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드러난 연구결과에 대해 결과가 과연 그러한지 회의적 태도를 유지하며 결과를 다시 검토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심의 승인(IRB no: 1040549-130715-SB-0023-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중도 포기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의 방법 및 참여자의 권리와 자율성 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한 후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도중 1명의 연구 참여자가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삭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참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컴퓨터 파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서 삭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 결과 참여자가 경험한 해외선교 경험의 구조는 6개의 구성요소와 15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6개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준비’, ‘낮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영성’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교소명과 준비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해서 보고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선교활동을 동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과 기쁨 등을 체험하며 간호선교를 소명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선교현장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 조산사 훈련, 석사 학위 취득, 임상경험, 타문화권 적응훈련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선교 헌신의 동기’와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 헌신의 동기

참여자들의 선교 헌신의 동기는 타인에 대한 아픈 마음,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본받음, 신앙인으로 당연한 일, 선교를 강조하는 주변 분위기의 영향이었다. 참여자들은 간호선교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명의식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그 땅을 위해 울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사는 땅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엄청 아프면서도 ‘누군가는 가야되지 않을까?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참여자 1)

②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

참여자들의 간호선교사역을 위한 준비는 간호사로서 전문 영역과 문화적응을 위한 훈련을 미리한 경우와 구체적 준비없이 단순한 봉사의 생각으로 출발한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들의 준비내용은 문화, 종교 및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로 의료인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선교지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마자 조산사 코스를 들어갔었죠. (참여자 8)

(2)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참여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모습을 꿈꾸며 선교지에 도착했지만, 그들 앞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놓여있었다. 선교지의 상황은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달라 하고 싶거나 혹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현지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사역의 한계가 봉착됨을 절감하며 현지어 습득에 필사

적으로 매달렸으나 속달은 더디기만 하였다.

더하여 선교지 정착 초기에는 기후, 음식, 언어와 관습이 다른 낯선 현장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남는 일에 급급하였다. 이 모든 일과 함께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존하며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는 현지인의 생각과 태도에 실망도 겪어야 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기대와 다른 현장’, ‘언어의 장벽에 부딪침’,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 ‘수용하기 힘든 현지 문화’로 도출되었다.

① 기대와 다른 현장

참여자들은 현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거나, 혹은 출발 전에 들었던 상황과 달라서 준비한 계획이 어긋나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 일에 대한 열정은 넘쳐나지만 실제 적용 시 역량부족으로 꿈꿔왔던 사역을 펼칠 수 없는 답답한 경우도 있었다. 사역 초기, 참여자들이 겪은 이러한 시련은 지나온 삶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교의 본질에 관해 숙고하며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사역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다 겪는 고민들이 언어하고 문화적응하면서 갑자기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고. 그곳 어린아이들과 계속 놀면서 ‘나는 뭘하고 있나!’ 이 생각 많이 하고. 여기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올 때는 왔는데 언어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애들하고 계속 놀아야 되니까. 애들이 친구 부르듯이 나를 불러내고, 나이 마흔 넘어서 애들이랑 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② 언어의 장벽에 부딪침

참여자들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음을 절감하며, 언어공부에 전념하였으나, 체계적인 언어학습 자료의 부재, 훈련된 현지어 교사의 부족으로 언어숙달은 더디기만 하였다. 또한 영어권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참여자들은 영어로 동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위축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빈약한 언어구사 능력으로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돌며 더욱 자신이 그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서류를 봐야 되는데 B어는 되게 어려운 언어거든. 서류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서류제출부터 먼저 하잖아. 서류를 보고 있으면 하나도 몰라. 이거 뭐. 그래서 나는 면접 볼 때 인상 좋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거야. 감으로. 언어도 잘 안들리고 서류를 봐도 잘 모르고, 물론 도와주는 현지인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 (참여자 1)

③ 낮은 땅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지 도착 초기에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역은 뒷전으로 밀어 두었다. 참여자들은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수도와 전기 같은 기반시설의 미비, 열악한 주거환경, 생필품과 음식재료의 부족으로 고달픈 생활을 해야만 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였다. 한편 생활수준이 낮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생활한 참여자들은 물자는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궁색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그냥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전기도 물도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느라 어떤 선교사역을 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씨루고(씨름하고), 맨날 물 갖고 씨루고(씨름하고), 전기 갖고 씨루고(씨름하고). 하루 세 끼 해결하는 게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하루 세 끼를 일단 가정주부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큰일이었고. 그리고 애기들이 밤에 소변, 오줌 누러 간다. 뭐하면 자꾸 깨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 들고 왔다가야 되고, 그렇게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④ 수용하기 힘든 현지문화

참여자들은 도덕수준, 시간개념 및 낮은 자립의지 등에서 현지문화와 충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지인이 물질적 도움이라는 배후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대했음을 알게 된 후 현지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하고 있는 일에 회의마저 들었다. 특히 사역초기에는 현지 문화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 현지인의 행동을 부도덕한 것으로 또는 다름이 아닌 틀림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사기를 당하면 처음에 몇 달은 모르는데 적어도 6개월 지나면 내가 사기 당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데도 역수로 마음이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그게 엄청 힘들거든. (참여자 1)

(3)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참여자들은 물리적 환경과 여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범위가 제한적인 타문화권 생활로 동료선교사나 배우자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로써 불가피하게 극심한 관계갈등을 겪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정서적 고통과 관계갈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사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고 자괴감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 요소는 ‘무너지는 건강’, ‘심리정서적 고통’, ‘힘든 관계로 인한 소모전’, ‘선교사로서 부족한 삶’으로 도출되었다.

① 무너지는 건강

참여자들은 기후와 음식의 변화, 과로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지인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현지인과 동일한 의식주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몸의 이상반응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후는 불가항력적으로 참여자들을 무기력하게 혹은 움츠러들게 했으며, 몸을 돌볼 여력없이 과도하게 일한 결과로 쇠약해지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몸의 아픔은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소진 현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 나는 어쨌든 ‘내가 그 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 곳의 생활에 최대한 나를 맞춰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 단기로 잠시면은 가능한데 2년 있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참여자 4)

② 심리정서적 고통

참여자들의 삶에 수반되었던 심리정서적 고통은 외로움, 가족을 향한 부담감과 미안함, 낙담과 소진 등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현지인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깊은 속마음을 터놓기 어려웠다. 특히 미혼 참여자들은 가식없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할 가족이 없어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의 외로움은 고국에 대한 향수, 혼자 일을 감당하는 막막함과 혼자서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등과 뒤섞여 있었다. 미혼 참여자들은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늘 무거웠다. 기혼 참여자들은 한국과 선교지 어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녀들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자녀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 이 일의 지속여부를 두고 갈등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지인의 변하지 않는 영적 세계관을 보며 실망과 낙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감각해지는 소진 증상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참고 견디고 지냈다.

딱 도착하는 순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딱 서는 순간 외롭다는 게 확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 곳에 있기가 너무 두려운, 그 외롭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한국사람 혼자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국사람 혼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참여자 3)

③ 힘든 관계로 인한 소모전

참여자들은 동료선교사들과 삶의 방식 및 성향이 달라 그 차이를 극복하며 융합해 가는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동료 선교사와 선교관점이 달라 대립하기도 하였다. 선교관점의 차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사역의 주력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 현지인에게 선심성의 돈을 주는 문제, 그리고 업무추진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동료와의 갈등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한국의 수직적, 권위적 문화의 영향 탓에 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선교사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갈등을 겪어야 했다. 기혼 참여자들은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가사와 육아의 무거운 짐을 남편과 나누기 원했지만 실제 도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껴야 했다. 참여자들은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는 말로 풀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 혹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참는 갈등대처 전략을 사용하였다.

거기서 사람들한테 너무 질렸어요. 현지인한테 질린게 아니고 한국 분한테 질렸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다시는 S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소모전보다 한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소모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참여자 5)

④ 선교사로서 부족한 삶

참여자들은 역량부족, 처해있는 상황의 한계 그리고 관계갈등에 묶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교사 모델대로 살 수 없음에 극심한 내적갈등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비록 현

지인의 결점이 눈에 보이더라도 현지인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 하였다. 또 선교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업무는 의료봉사와 병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젊은 기혼 참여자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직접적인 선교사역보다는 선교사 아내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과연 선교사가 맞는지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동료선교사와 관계불화로 인해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거나 삶과 사역의 균형이 깨어진 모습들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꼈다.

남편은 그 곳에서 일 하기로 결정했고, 저보고는 “아이들 전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으로서 한 집에 가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애. 그 당시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한테 크게 불평을 안 했어요. 말은 안하고 속으로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제가 (선교)갔다 오고 거의 일 년이 다 됐을 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중략) 자기가 선교사의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갔을 때 내가 선교사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삶이 어려운 거에 대한 부담감이 두 개가 다 오는 거예요. (참여자 5)

(4)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참여자들은 간호선교사로 일하면서 선교지의 상황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선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나 점차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이나 성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선교에 대한 인식 재정립’,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으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에 대한 인식 재정립

참여자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선교 인식은 하기를 원하거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지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선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를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 삶의 본을

보이는 것, 내가 아닌 절대자가 주관하는 일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갔지만 I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선교사라는 게 그냥 그 곳에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M국에 있을 때 M국 사람들, I국에 있을 때도 I국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는 것 그게 선교사로서의 생활이지. (참여자 8)

②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

참여자들은 선교사역이라는 독특한 경험과 관계갈등 그리고 선교지의 단조로운 생활 덕분에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자아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통찰은 인격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혀 나갔다. 참여자들은 관계갈등의 핵심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관점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변화가 단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운 후 현지인의 성숙을 차분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복음은 하나이지만 문화는 다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한국식 신앙생활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현지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제가 그 때 뼈저리게 느낀 게 ‘나는 너무 한국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이었구나!’ (중략) 일단 그 상황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믿을까?’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문화나, 내 속에서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안해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 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참여자 9)

(5)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참여자들은 삶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현지 병원의 간호사, 간호교육자 혹은 지역사회 의 일차건강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현지인의 기독교 개종, 신앙성숙, 질병회복과 같은 일들을 볼 때 여태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보상되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선교현장에 요긴한 간호’, ‘현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됨’으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현장에 요긴한 간호

참여자들은 간호자체를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간호를 복음전파의 효과적인 도구로 여기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간호를 선교자체 또는 선교도구로 보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지식과 기술이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호는 현지의 열악한 보건의로 상황의 필요를 채우고 현지인을 신체적,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유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복음전파의 접촉점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받은 간호교육과 임상경험을 현지의료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현지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였고 현지인의 신체간호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전인적 돌봄자로 일하고 있었다.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풀 베는 칼에 베였다고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거예요. 나갈 수가 없고 뭐 실이든 소독물품이든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제가 슈처(suture)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여자 7)

② 현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됨

참여자들은 현지인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후 신앙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어려움이 보상되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현지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믿기로 결심한 후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현지인의 신앙성숙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기다림의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에게는 현지인의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는 귀한 열매로 보람을 가지게 하였다.

근데 참 기뻐던 거는, 현지인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그게 참 기뻐요. 그 사람 현지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이렇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한테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생겼다는게 참 좋았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게 참 좋았었어요. (참여자 4)

(6) 깊어지는 영성

참여자들의 신앙심은 선교지에서 더욱 깊어졌다. 참여자들은 기댈 곳 없는 낯선 땅

에서 오직 절대자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선교지의 단조로운 생활 덕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며, 이로써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선교지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절대자가 자신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때로 참여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위구성요소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도출되었다.

① 체험하는 신앙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절대자의 충만한 위로, 기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다. 이러한 믿음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이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깊이가 있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선교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몰고 가는 추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의 그 기쁨들 그럴 때의 그 만족감이. 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참여자 8)

2.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

본 연구의 6개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해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낮선 땅에서 기독간호사로 살아가기’이었다.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와 관련된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을 통해 선교가 자신들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간호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했으나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지 상황, 언어숙달의 어려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생존문제, 그

리고 현지인에 대한 오해와 실망 등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는 동안 참여자들은 몸의 아픔, 외로움과 낙담 등의 정서적 고통, 동료들과 힘든 대인관계와 본인의 삶이 선교사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힘든 날들을 지내야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압도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 맞서 내적으로 현지인과 현지문화, 동료선교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였고, 외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현지인들의 전인적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러한 현장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변화되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성숙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과 봉사를 통하여 현장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복음과 간호지식 및 기술이 선교지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를 통한 현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이고 깊어지는 영적 성장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영성은 참여자를 짓누르는 현장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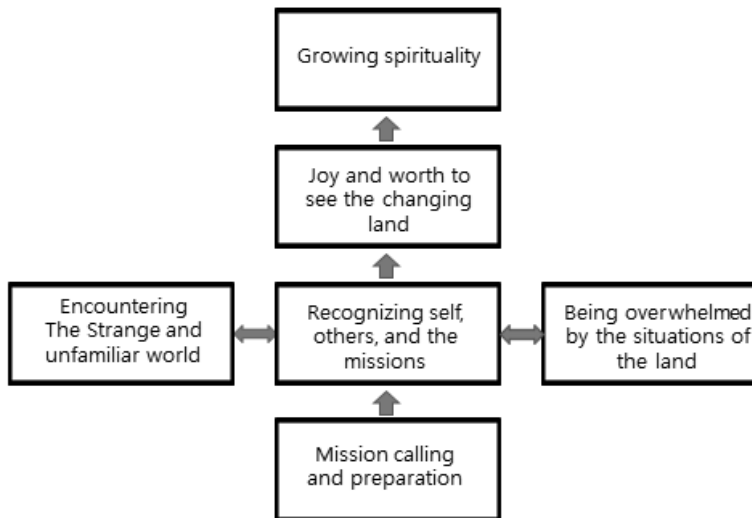


Figure 1. General structure of oversea missionary's experience in this study participants

IV.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준비,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영성이었다. 본 장에서는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 내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선교사역 준비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 선교사와 동일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간호 지식 및 기술을 개별적으로 습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인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약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창의적 접근지역에 적합한 선교인력이지만, 전문적인 선교교육이나 전문 선교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권형재, 2016: 68, 83). 전문적이고 다면적인 선교사 훈련은 준비된 선교사를 양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교사역과 선교사 중간이탈을 방지하므로(김은호, 2014: 414, 434), 전문적인 간호선교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낯선 선교지 속에서 현지문화 적응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주로 자국 문화의 관점으로 타문화를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선교 준비는 선교지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업무에 치중되어 있었고, 사역하게 될 국가의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신입 선교사는 타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육체의 질병, 우울증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Hiebert, 1985, 김동화 외 역, 85-104), 실제 본 연구의 한국 간호선교사들도 사역초기에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지인을 향한 실망감과 좌절, 분노,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에게서 효과적 선교업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 선교현장을 떠날 수도 있다(Schwandt, Moriarty, 2008: 320; 김동화, 2011: 60-63). 그러므로 선교사 준비과정에서 타문화 이해와 적응 및 전문직 훈련 등의 다차원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역초기 문화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치관의 혼란 및 정서·심리적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함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대인관계 갈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유

발시켰고,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이 깨지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관계갈등은 한국 선교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다른 여타의 스트레스보다 선교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교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한국일, 2004: 128-129). 그러므로 간호선교사들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선교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대인관계 훈련 등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 간호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신체·정서적 고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낮은 기후와 음식, 열악한 주거 환경, 과도한 사역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최형근(2011)도 한국 교회가 풍부한 선교인력은 가지고 있으나 선교사 관리에 있어 돌봄이 결여된 생존모드(survival mode)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형근, 2011: 93).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과 사역 둘 다를 감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성 선교사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Schwandt, Moriarty, 2008: 318 재인용). 강병만(2005)은 재정상태나 사역기간 등에 관계없이 여성 선교사들은 남성 선교사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와 우울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강병만, 2005: 180-188). 본 연구의 간호선교사들도 몸의 아픔을 경험하였고, 이것은 때로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강병만(2005)의 연구와 동일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형근(2011)은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은 그들의 영성부족이나 자질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선교사들의 심리적 문제는 깊이 감추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최형근, 2011: 95-97), 본 연구에서 간호선교사들도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삭이며 지내고 있었다. 심리적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선교사도 예외일 수 없고, 심리적 문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사의 전인건강 회복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간호선교사들은 전인간호 사역자로서 자신들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선교지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간호선교사들이 행하는 총체적 간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의 본질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Tomey and Alligood, 2006, 박영숙 외 역, 2008: 199-229),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또한 전통적 선교에서 통전적 선교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안희열, 2013: 254) 간호는 선교에 매우 적절하고 유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호선교사들은 이러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지식의 결핍과 현지인을 위한 건강교육자료 부족, 현지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시설로 간호업무 제공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양용숙(2009)의 해외에서 활동 중인 간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 및 보건교육자료와 같은 간호영역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양용숙, 2009: 59). 그러므로 간호선교사들이 현지 실정에 맞추어 효과적인 전문간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역의 준비과정이나 사역 중에 사역지의 요구분석을 통해 필요한 간호 지식 제공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 시점에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간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간호선교센터나 간호선교연구소 등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문기관은 해외선교 현지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적합한 전문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평가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관들은 국내외의 선교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교준비과정, 언어 및 타문화 이해, 대인관계 훈련 및 상담,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협력하여 개발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열악한 생활여건, 현지문화 적응, 대인관계 갈등과, 신체 및 심리정서적 고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신앙인격의 성숙이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선교지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고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

선교사에게 적합한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수가 9명에 국한된 현상학적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르며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신체, 심리 및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인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간호선교사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간호 선교 업무 수행을 위한 양적연구 및 교재개발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병문 (2005). 선교사의 전인적 건강과 스트레스, 우울증, 일중독과의 관계(2005년도 현황). **복음과 선교**, 5, 170-197.
- [Kang, B.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some health of korean missionaries, stress, depression, and workholic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year 2005. *Journal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5, 170-197.]
- 권형재 (2016).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전문인 선교에 관한 연구: 전문인 선교와 영성. **개혁논총**, 37, 67-92.
- [Kwon, H. J. (2016). A study on professional mission for the unreached people: Professional mission and spiritual growth. *Korean Reformed Journal*, 37, 67-92.]
- 고명숙 · 김태숙 · 민 순 · 엄영희 · 윤숙희 · 이미애 외 (2011). **간호학 개론**, (Rev. 3th ed.), 서울: 현문사.
- [Ko, M. S., Kim, T. S., Min, S., Park, J. S., Yom, Y. H., Yoon, S. H., et al. (2011). *Nursing Introduction*. (Rev 3th ed.). Seoul: Soomoonsa Publishing.]
- 김귀분 · 신경림 · 김소선 · 유은광 · 김남초 · 박은숙 외 (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Kim, G. B., Shin, K. R., Kim, S. S., Yoo, E. G., Kim, N. C., Park, E. S., et al. (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 Publishing.]
- 김동화 (2011). 행정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토탈케어. **선교와 신학**, 28, 59-84.
- [Kim, D. H. (2011). Missionary total car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Mission and Theology*, 28, 59-84.]
- 김은호 (2014). 효율적인 전방개척 전문인 선교훈련을 위한 전략연구. **신학과 실천**, 39, 413-437.
- [Kim, E. H. (2014). Paradigm shift of professional missionary training for the frontier mission. *Theology and Praxis*, 39, 413-437.]
- 안희열 (2013).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평가와 제안. **선교와 신학**, 31, 249-284.
- [Ahn, H. Y. (2013). An appraisal and proposal in cross-cultural missions in the Korean church. *Mission and Theology*, 31, 249-284.]
- 양용숙 (2009). **한국 기독교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Yang, Y. S. (2009). *Job of Korean Christian Nurse Missionarie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장훈태 (2012).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서울: 대서.
- [Chang, H. T. (2012). *Korean Church & Future of Mission*. Seoul: Daiseo.]
- 최형근 (2011).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와 신학**, 28, 85-114.
- [Choi, H. K. (2011). Construction of a missionary member care system. *Mission and Theology*, 28, 85-114.]
- 한국일 (2004). 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 **선교와 신학**, 14, 109-142.
- [Han, K. I. (2004). 120 years of Korean mission and the future of Korean mission. *Mission and Theology*, 14, 109-142.]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6년 말 선교사 통계.”
http://kwma.withch.kr/bbs/board.php?bo_table=sub7_1&wr_id=1672&page=2. (검색일 2017.1.23.)
- [“Annual report of missionaries statistics in Korea in 2016”,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2017.01.10.). Retrieved from http://kwma.withch.kr/bbs/board.php?bo_table=sub7_1&wr_id=1672&page=2. (2017.01.23.)]
- Bajkiewicz, C. (2009). Evaluating short-term missions: How can we improve?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26(2), 110-114.
- Camp, C. A., Bustrum, J. M., Brokaw, D. W., Adams, C. J. (2014). Missionary perspectives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member care practices.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2(4), 359-368.
- Giorgi, A.(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Trans, Shin, G .R. et al. PA: Duquen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 Giorgi A. (2012).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3, 3-12.
- Hiebert, P. G.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22th ed.) Trans, Kim, D. H. et al. MI: Baker Book House Company.
- Keckler W. T., Moriarty, G., Blagen, M. A. (2008). Qualitative study on comprehensive missionary well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7(3), 205-214.
-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Publications.
- Schwandt J, Moriarty G. (2008). What have the past 25 years of member care

research taught us? an overview of missionary mental health and member care services. *Missiology*, 36(3), 317-326.

Tazelaar, G. (2011). Challenges and trends in global healthcare missions.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28(3), 152-157.

Tommy, A. M., Alligood, M. R. (2006). *Nursing Theorist and Their Work*. (6th ed.). Trans, Park, Y. S. et al. Amsterdam: Elsevier.

논문초록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미영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손수경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년 이상 해외선교 경험이 있는 여성 간호선교사 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5월부터 시작하여 자료가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른 2014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근거로 자료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낯선 땅에서 기독간호사로 살아가기’였으며, 도출된 6개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준비’,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영성’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선교사들의 삶과 고충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실제적인 돌봄과 지지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선교사, 해외선교, 현상학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 구성

-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
|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부칙

-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요청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계재가	수정후 계재가	수정후 재심사	계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계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 · 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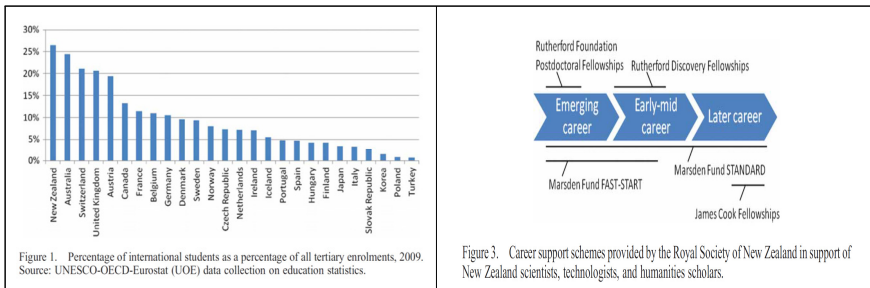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연.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투고 후 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게재 신청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제재를 불허한다.
- ② 기 제재 논문의 경우 제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 장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위원장	손병덕 (충신대학교)
부 회장	문석운 (경희대학교)	편집위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창민 (부산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우종학 (서울대학교)
	임춘택 (경남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총 무	이상무 (평택대학교)		이상무 (평택대학교)
학회이사	강영안 (서강대학교)		방명애 (우석대학교)
	권태경 (충신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Sungmin Chun (VIEW, 캐나다)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정희영 (충신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조성표 (경북대학교)		
	황호찬 (세종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문석운 (경희대학교)		
연구윤리부위원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병덕 (충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2권 제3호 (통권 72권), 2017년 9월호

발행일/ 2017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총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